

자운 스님(마산 관해사 주지)
"청소년 제대로 돌보는 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죠"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1월 7일) · 주간

제1075호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달마대사〉
해탈의 즐거움도 마음에서 나오고
윤회의 고통도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은 세상을 뛰어넘는 문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 24일 동안 불교계는 대화와 중재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9일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에 들어갔고〈사진 왼쪽〉, 이를 받아들인 경찰은 영장 집행을 연기했다. 한 위원장도 불교계의 설득에 자진 출두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조계종과 조계사 대중의 보호 아래 일주문을 나섰다.〈사진 오른쪽〉

"대화로 해결" 약속… '화쟁 정신' 빛났다

조계종, 10일 한상균 위원장 자진 출두 이끌어내

조계종과 조계사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자진출두를 '화쟁 정신'으로 이끌어 냈다.

조계종과 조계사는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시점에도, 또 12.5 2차민중궐기대회에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과 인고의 시간 끝에 '공권력 투입' 이란 초유의 사태를 막아내고, 한 위원장은 조계사 일주문을 나서 자진 퇴거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12월 10일 조계사 은거 24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그간 한 위원장은 "노동악법을 막아내기 전 조계사를 나갈 수 없다"고 퇴거를 거부했으나, 경찰의 조계사 투입이 임박한 시점에 자진퇴거를 결심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조계종의 중재가 난관에 봉착한 때도 있었으나 민주노총과 경찰을 끝없이 설득하며 '화쟁 정신'으로 극복한 점을 호평했다.

12월 9일 한국불교 조계종의 총본산인 조계사는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에 침탈될 위기에 처했다. 8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24시간 후인 9일 오후 4시 체포영장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조계사 일대에 경력 약 1000명과 사복경찰 약 100명을 배치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 스님들 20여 명과 종무원 200여 명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며 관음전 출입구 앞을 막아서며 충돌이 빚어졌다.

'정교(政敎) 충돌'의 일촉즉발의 사태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오후 5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급반전됐다. 자승 스님은 "더 이상 갈등은 종단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내일 정오까지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이에 경찰과 민주노총은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종단의 노력을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내 공권력 투입으로 비롯될 후폭풍의 부담을 안고 있던 경찰도 한 발짝 물러섰다. 경찰은 "자승 스님 제안을 받아

12.5 궐기대회 평화 진행 유도
한 위원장 퇴거 거부 계속 설득
9일 경찰 진입, 충돌 이어지자
자승 스님 나서 "거취 결정" 중재
일촉즉발 상황서도 대화로 풀어

들여 체포 영장 집행을 10일 정오까지 연기할 것"이라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종단은 그동안 한 위원장 사태 중재와 관련해선 화쟁위원회에 일임해 왔다. 화쟁위가 종단안팎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 기구일 뿐만 아니라 종단은 정치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단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조계종의 수장인 자승 스님이 직접 나서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스님의 한수"였다 "충돌 막은 절묘한 한수"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공권력 침탈 위기, 일촉즉발 '48시간'

8일
- 11:20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조계사 방문 "자진출두 안하면 영장집행 불가피"
- 16:00 강신명 경찰청장 '24시간 최후 통첩'

9일
- 10:00 조계종, 첫 공식입장 표명 "경찰 투입시 정부에 책임 물을 것"
- 14:00 경력 1100여 명 조계사 일대 배치 종무원 및 스님 2백여 명 맞대응
- 15:10 경찰, 관음전 진입 시도 '몸싸움'
- 17:00 총무원장 자승 스님, 긴급기자회견 "내일 정오까지 시간 달라"
- 17:40 경찰, 자승 스님 제안 수락

10일 11:20 한상균 위원장 자진 출두

특히, 화쟁위는 12.5민중궐기대회의 평화적 성사에 일조하며 '평화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았다. 화쟁위는 한 위원장의 중재요청을 받아 12.5궐기대회의 평화적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단 의지를 표명하고, '평화의 꽃길 기도회'를 개최했다.

합동 평화 기도회를 마친 스님들과 불교계 단체들은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시청 광장, 광화문로 일대를 행진했다. 차벽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의 꽃길이 놓였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과 시위 참여자들도 고마움을 표했다.

임은영(45, 은평구) 씨는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하러 왔다가 스님들의 행진을 보고 기도회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종교인들의 평화적 중재는 한국 시위 문화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 오늘은 차벽도 없다. 이것만으로도 큰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과 조계사는 11월 16일 한상균 위원장이 피신해 온 후 줄곧 불교계 안팎의 반발에 시달렸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는 "한 위원장을 쫓아내라"면서 연일 일주문 앞에서 시위를 열었고, 조계사 일부 신도들도 한 위원장의 강제 퇴거를 시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서도 조계종과 조계사는 한 위원장을 내치지 않았다. "고통 받는 중생 끌어안는 것이 불교의 소명"이라며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적 방법을 모색할 테니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여론을 달랬다.

한상균 위원장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의 선두에 섰던 도법 스님은 항상 "어느 편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다. 노정 간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을 이끄는 것이 불교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한 위원장 설득을 위한 끈을 놓지 않았다.

이에 한 위원장은 조계사 퇴거 직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계종과 조계사에 고마움을 표했다. "한국불교의 성소(聖所) 조계사가 공권력에 짓밟히는 걸 볼 수 없어서 퇴거를 결심했다"고 운을 뗀 한 위원장은 "그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2천 만 노동자들의 아픔을 품어준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들께 감사하다"며 "특히 종단이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함께하겠단 의사를 밝혀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번에 종단이 보여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노동개악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노동계와 정계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사회 양극화 문제를 위해 종교계도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남겼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관련 기사 3면〉

허위 기부금 영수증 남발 사찰·불교 단체가 '最多'

국세청 공개 63곳 단체 중 50곳이 불교 단체

소득공제용 기부금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63곳의 명단이 지난 12월 3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됐다. 소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들이다. 이들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2014년 귀속 소득공제용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대로 작성·보관하지 않은 63개 단체다.

종교단체가 95%(60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단체 1곳, 문화단체 1곳, 기타 1곳이다. 이중 사찰이

"사찰 재정 투명화는 기부 활성화에 도움돼"

거나 불교 관련 단체들이 50여 곳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교계에 허위 기부금 영수증 남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처럼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 명단공개라는 철퇴를 내린 것은 기부금 단체의 불투명한 운영이 자칫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실제, 경상북도 김천의 A사찰의 경우 137건의 거짓 영수증으로 총 5억 8백만원 어치의 영수증을 발행했다. 전라남도에 있는 B사찰 역시 161건의 가짜 영수증을 남발했다. 총 3억 5천여만원이 넘는 액수다.

신고는 종교단체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주나 궁합을 봐주는, 이른바 '철학관'에 가까운 단체도 문제다. A종교단체 대표는 주로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도들로부터 약 2~3%의 수수료를 받고 수백건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다 적발됐다. 주택가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던 B종교단체는 다른 종교단체의 기부금 영수증을 입수한 뒤 고유번호와 도장을 도용해 신도들에게 수 억원어치 영수증을 나눠줬다.

국세청은 이 중 4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거짓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추징키로 했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제출한 서류에 근거해 작성했다"며 "단체명서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했지만 그 종단 소속단체가 아니라 이름만 붙여놓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종단 차원에서도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하지 말 것을 공문이나 지침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다"며 "투명하게 사찰을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기부금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진제 스님, 연말 맞이 자비행 '귀감'

12월 9일 아름다운 동행 통해 1천만원 쾌척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사진〉이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불우이웃 성금을 쾌척하는 자비행을 펼쳐 귀감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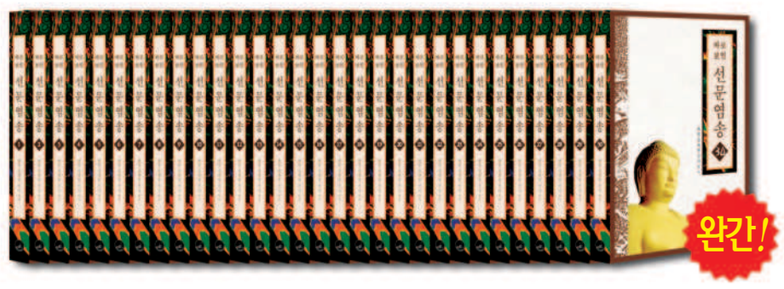


진제 스님은 12월 9일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자비나눔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기금 전달에 대해 진제 스님은 "'천지여아동근(天地與我同根)이요, 만물여아동체(萬物與我同體)라' 천지가 나와 더불어서 한 뿌리요, 모든 존재가 나와 더불어서 한 몸이라. 법계가 서로 연기되어 있기에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심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을 볼 때 서로가 자기의 모습이라 생각하여 나누고 기부하는 마음으로 화합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제 스님은 2011년 이후 해마다 부처님오신날과 연말에 자비나눔 기금을 전달해왔다. 신성민 기자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선문염송 30권, 15년만에 완간하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칙에 공안의 참뜻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안의 교과서!!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바른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도서출판 문젠 031-534-3373 | 010-4520-7963
www.zenparadise.com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서 - 74권 36종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영원한현실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바로보인 법성게 / 달다 / 기우목동가 / 초발심자경문 / 방거사어록
실증설 /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 불조정맥 3개국어판
바른 불자가 됩시다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108진참회문 3개국어판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화두 3개국어판 / 바로보인 간당론 /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바로보인 유마경 / 실증설 5개국어판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3개국어판

월정사 신임 주지 후보 정념 스님

16일 산중총회서 결정… 단독 입후보 사실상 당선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후보에 현 주지 정념 스님(사진)이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제4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원명)는 12월 6일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월정사 주지 입후보자를 등록받은 결과 현 주지 정념 스님이 단독 입후보 했다"고 밝혔다.

정념 스님은 12월 16일 열리는 산중총회에서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 이번 당선으로 정념 스님은 2016년 1월 30일부터 2020년 1월 29일까지 4번째 월정사 주지 소임을 맡게 된다. 또한 24개 교구본사의 현직 주지 가운데 최다선 주지로 이름을 올린다.



정념 스님은 1980년 희찬스님을 은사로 출가,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뒤 1985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 위원장, 강원불교연합회장, 상원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지난 9월 22일에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서 주지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1천 천태불자 '일심수행 정진' 서원

천태종, 6일 신도수계산림… 안거 수행자 등 984명

천태종 안거 수행 경력 8회 이상 수행 및 전국 각 사찰서 귀감이 되는 불자 등 1천여 명의 천태불자가 오계를 수지, 보살도를 실천하며 더욱 용맹정진 할 것을 서원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12월 4~6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서 '제3회 총본산 구인사 금강계단 신도수계 산림대법회'를 봉행했다.

수계 산림대법회는 4일 입제식에 이어 6일 광명전 5층서 봉행 된 수계 및 회향식은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종의회 의장 문덕 스님) △고불문 △청사(삼사 · 칠증사) △국운융창기원 △ 헌화 및 헌향 △연비 △설계 △금강사수여 △수계증 수여 △법어 △축가(영춘 연화합창단) △관음정진 및 축원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회향식에는 수계자를 포함해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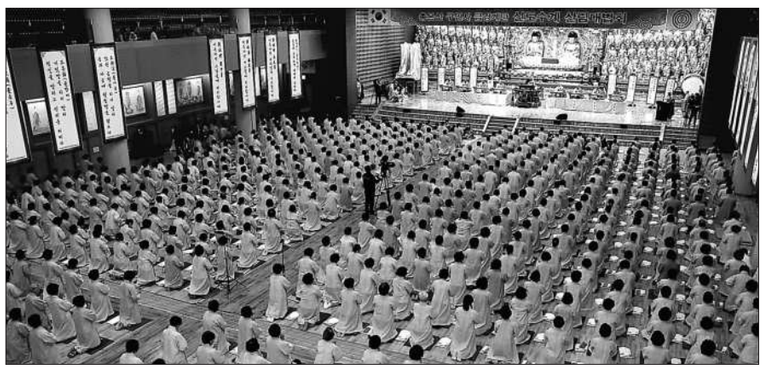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고불문서 "계는 일체 공덕장의 근본이며, 성불의 길을 가는 근본이라 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오며, 어두운 곳에서 빛을 만난 듯,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반야용선을 만난 듯 기쁨과 환희의 마음으로 받아 지니옵니다"라고 부처님 전에 고했다.

이어 전계대화상 도용 종정 스님이 법상에 좌정한 뒤 갈마아사리인 총무원장 춘광 스님, 교수아사리인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칠증사(七證師)인 감사원장 용암 · 월산 · 도산 · 진덕 · 화산 · 도원 스님이 법단에 좌정했다.

이날 수계 산림대법회는 지역 법회와 불사에 모범이 된 청신사 149명, 청신녀 835명 등 총 98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어 수계자들은 삼보전에 공양하겠다는 발원의 연비 의식을 거행했다.

이날 도용 종정 스님은 "계는 저 맑은 연못과 같아 아름다운 연꽃 피워 내리니 계율을 청정하게 받아 지니면 깨달음의 광명이 빛나리라. 해탈을 이루는 길 계의 향기 으뜸이라. 간곡하게 일러주신 그 말씀을 잘 따르라"고 법어를 내렸다.

한편 수계 산림대법회는 4일 오후 입제식 후 습의교육, 5일 계율교육(삼귀의 · 오계), 참회정진(천태관음참의), 수계법문에 이어 6일 수계교육, 수계식, 회향식 등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김주일 기자**



천태종은 12월 6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서 '제3회 총본산 구인사 금강계단 신도수계 산림대법회'를 봉행했다.

정상화 국면 동국대, 갈등 재점화되나

학생회 측 '총장 사퇴' 요구에 학교 측 '엄정대처'

학생회 "이사 즉각 사퇴, 총장 퇴진"
보광 스님 "원칙 벗어난 타협 없다"
일면 스님 "학교 명예만은 지켜야"
종단, 동국대 이사 사퇴 대책 촉구

동국대 이사장 연임을 두고 단식과 투신 예고 등 극한대립으로 치달았던 동국대 사태가 총장 퇴진을 두고 재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국대 이사들의 전원 사퇴 결의 후 정상화 기대를 모으던 동국대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갈등의 포화는 먼저 학생회 측에서 열었다. 동국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로 구성된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추진위원회'(집행위원장 최장훈,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는 1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점진적 사퇴를 결의한 이사들의 즉각 사퇴와 총장 퇴진, 이사회 구조 변경을 요구했다.

최장훈 집행위원장은 "아직 사퇴서를 낸 임원은 아무도 없다. 즉각 사퇴하라. 이사회도 스님 이사를 3명으로 줄이고, 학생과 교수, 직원이 추천한 6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집행위원장은 "이사회 조건에 따라 단식과 농성은 공식적으로 모두 해제했다. 사퇴 약속을 안 지킨다면 거짓말을 했다는 명분으로 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태 확산 조짐에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9일 학교 홈페이지에 담화문을 통해 "원칙과 정도에서 벗어난 타협이나 안이한 화해는 결코 동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기관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폐 수술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보광 스님은 "두 달여간 지속된 학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이사 사퇴 결단 등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데 대해 학교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스님은 "언제부터인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처럼 호도하고 불가능한 요구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면서 불협화음을 키워왔다"고 학생회 측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3일 이사회에서 이사 사퇴를 밝혔던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은 10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내 구성원들이 학교의 명예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일면 스님은 "사퇴 번복은 하지 않겠다. 이사장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원칙을 정해 소임을 다하고 있었음에도 탱화 도둑으로 몰려 그만 둘 수는 없다고 이사들에게 호소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스님은 흥국사 탱화가 절도가 아닌 분실 당한 것이라고 밝히며 당시 탱화를 구입한 비구니 동기 스님의 호법부 조사 경위서 등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스님은 "전생에 지은 업이라 여기지만 더 이상 파렴치범으로 보지는 말아달라. 저와 학교의 명예를 더 이상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8일 동국대 이사회가 지난 3일 학교혼란의 책임을 지고 이사회 이사 전원이 사퇴를 결의한데 대해 공문을 보내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법인사무처에 발송된 공문에 따르면 종관위는 "이사회가 학교현안과 관련해 임원 전원이 공동책임을 지기로 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며 "임원 사직에 따른 절차와 이사회 구성 등 향후 계획에 대해 12월 16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사회의 회신 결과에 따라 동국대 임원들의 사직절차와 후임선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덕현 · 윤호섭 기자

2020년 템플스테이 생산 효과 746억 원

김규호 경주대 교수 템플스테이 학술 포럼서

지난해 479억 생산 효과 유발
444명 직간접 고용유발 효과
템플스테이, 경제 성장에 기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2월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템플스테이의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한국불교의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인 템플스테이가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호 경주대 교수는 12월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주최로 열린 '템플스테이의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 주제 학술포럼에서 템플스테이의 실태와 사회 · 문화 ·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템플스테이의 생산유발효과는 지난해 479억 원이었으며, 제조업과 관광산업, 서비스 업 등 전체 산업에서 290여억 원의 직접 효과와 180여억 원의 간접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444명의 직 · 간접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에 따라 김 교수는 2020년에는 생산유발효과가 746억 원으로 증가돼고, 고용유발효과도 69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전국에 산재돼 있는 운영사찰을 방문하면서 1인 평균 99,21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김 교수는 지난해 19만 3천여 명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약 193억 원의 수요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향후 수요예측치와 1인당 지출액을 반영한 결과 템플스테이로 인한 총 지출액은 2020년 약 3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병길 동국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결론적으로 템플스테이는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 볼 수 있다"면서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지역과 국가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비인 참가비 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본 프로그램 이외에 사찰별로 고급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향후 불교학, 종교학, 철학을 아우르는 명사초청 인문학 강좌를 템플스테이와 연계해 고급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학술포럼에 대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2002년 한일월드컵과 함께 시작한 템플스테이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관광자원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포럼을 통해 템플스테이가 국민행복과 국가 및 지역발전에 선 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유 · 확산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정혜사 소유권 갈등 수덕사 손 들어주나

대검, 배임 · 횡령 '혐의없음' 결정

대검찰청이 12월 4일 (재)선학원이 정혜사 선원장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혜사 소유권을 둘러싸고 선학원 측이 더 이상 수덕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게 됐다.

선학원은 정혜사가 선학원 설립 당시 재산을 출연한 만큼 선학원의 분원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주장해지만, 대전지검 홍성지원과 대전고검 모두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덕숭총림 수덕사 선학원대책위원회는 "선학원 이사회가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사찰에까지 끝없는 재판으로 횡포를 부리는 행위와 세속법에 의지하여 이사회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선학원 측은 12월 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선학원과 수덕사의 소송은 정혜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된 석청 스님이 재단을 배신하고 수덕사와 야합하여 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부제소합의를 작성하여 이번 판결을 낳게 된 것"이라며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라 했다. 향후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종단 사찰, 스님, 전국 불자를 위한 법률상담

불교조계종 종단법률고문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찰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세무관계



김영규 구성원 변호사

학력
1982 진주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1992 제 34회 사업시험 합격
1995 제 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
2009 중국 북경 정법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국제통상법 전공)

경력
1995-1999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20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 중국 청화대학교 대학원 교수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 법무법인 한승 구성원변호사, 중국 상해대표처 대표
2009-2010 법무법인 추정, 법무법인 지평지성 구성원 변호사
2010-2012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구성원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법원
박일환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병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영애 전 춘천지방법원장, 18대 국회의원

검찰
정동기 전 대검 차장
문성우 전 대검 차장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법무법인(유한) 바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010-5769-7071

불교조계종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4 2층) TEL 02)511-2026

BBS불교방송 하반기 개편

7일부터, '소통 강화' 목표

BBS불교방송이 연말을 맞아 라디오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12월 7일부터 라디오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재편성하는 등 개편을 단행했다. '치유와 존중의 BBS TV와 라디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불교방송은 '생방송 확대를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새단장했다. 우선 오전 시간대 정시 5분 뉴스를 폐지하고 새벽 6시 불교전문 뉴스를 신설했다. 또한 라디오 황금시간대인 오전 4~7시, 우리말 금강경, 아침예불, 도림스님의 경전공부에 이어 '불교전문 와이드 뉴스(30분)'와 '원육 스님의 화엄경 불교 강좌'(월~일 06:30~06:50)를 새로 편성, 불자들의 공부 · 신행 시간을 강화했다.

또 '월호 스님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시즌 2를 오전 10시(월~목)에 방송하고, 정병조 동국대 명예교수를 '무명을 밝히고'(월~일 17:05~18:00) 새 진행자로 기용했다. 이와함께 '고한우 세리의 유쾌한 가요쇼'(월~금 12:15~14:00)와 '주병선의 추억의 음악다방'(월~금 21:05~22:00) 등 음악프로그램도 대폭 늘렸다. 이외에도 '이효주의 2시를 부탁해' '김형기의 밤으로의 여행' '지수 스님의 세상사는 이야기' '정준영의 뮤직앨범' 등도 편성됐다.

김주일 기자

좋은벗 풍경소리 20주년 붓다콘서트

17일, 우순실 등 출연

1995년 12월부터 찬불동요와 찬불가 제작 · 보급에 힘써 온 좋은 벗 풍경소리가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는 음악회가 마련된다.

좋은 벗 풍경소리(회장 덕신 스님)는 12월 17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內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좋은 벗 풍경소리 창립 20주년 기념 붓다콘서트'를 연다. 20주년 기념 붓다콘서트에는 풍경소리 1집앨범부터 이번에 발매한 41집까지 모두 참여한 '꼬마풍경'을 비롯해 소리달 중창단, 소프라노 정행 스님, 테너 허철영, 중창단 소리마루, 풍경소리 홍보대사인 가수 우순실 씨 등이 출연한다. 풍경소리는 또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풍경소리 41집을 발매했다. 이번 앨범에는 풍경소리 초창기의 노래(1집~5집) 중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들과 새롭게 편곡한 곡들을 수록돼 있다. (02)723-9836 김주일 기자

"종단 사회 참여, 전문적 가이드 라인 필요"

한상균 조계사 피신 24일 무엇을 남겼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월 10일 자진 출두 방식으로 조계사 일주문을 나서면서 일련의 사태들이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지난 11월 16일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 피신을 요청한 지 24일만이다.

숨 가빴던 24일 동안 가장 빛났던 것은 화쟁 사상을 기반으로 한 조계종의 대화와 중재 노력이었다. 일단 부처님 품안으로 들어온 사회적 약자를 여러 어려움, 불편을 인내하면서 최대한 보호하려했던 것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실제,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12월 5일 열린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평화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경찰을 오가며 중재를 했고, 종교인들이 참여하는 '평화의 꽃길 기도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이 요구한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협상 테이블을 정치권에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12월 10일에도 한 위원장의 자진 출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단체, 조계사의 종무원들이 인간띠를 형성해 보호했다.

한 때는 SNS를 통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던 한 위원장이 조계사를 나서며 가진 마지막 기자회견에 앞서 "부처님의 자비의 품에 2000만 노동자의 처지를 의탁한 24일 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여 주신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한 이유도 불교계의 노력에 동감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력에 대해서 종단 안팎으로는 긍정적 평가 여론이 높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 위원장의 조계사 자진 퇴거 결정을 통해 이번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극단적 갈등들이 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닌 '소통과 대화'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소되는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교계 일련 대화 노력에 의미
화쟁위 중재 방식 실험대 올라
"종단 목표 · 방향 정하고 개입해야"
'소도 역할 어디까지' 숙제 남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병력이 투입됐던 12월 9일 당시 조계사 관음전. 원 안이 한 위원장이 피신했던 장소다. 한 위원장 피신 25일동안 불교계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 경찰과 민주노총을 오갔다. 사진=김주일 기자

하지만 아쉬운 점과 숙제도 적지 않다. 종단이 사회 문제를 개입할 시 명확한 대응 매뉴얼과 가이드 라인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또한 화쟁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화쟁적 중재 방식이 이제 실험대에 올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은 "화쟁위가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해 종단을 대표해 대안을 제시하고 대응할 능력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종단 산하에 능력 있는 연구소를 제대로 구성해 사회문제를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 전문성과 시사적 식견으로 독자적 대안을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니 '견지망월(見指望月)' 식 접근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종단은 중요한 사회문제에 개입 시 종단 기능에 전문가를 더해 목표와 진행 방향을 결정한 후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0년대 이후 조계사가 맡고 있는 '현대판 소도'의 역할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불교계 안팎으로 많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2월 9일 발표한 한 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에 찬성하는 의견이 52.9%로, 반대하는 의견인 32.9% 보다 20%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2%의 국민들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실제 한 위원장이 피신했던 24일 간 보수단체뿐만 아니라 일부 신도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종용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연출됐다. 심지어는 조계사 신도회 일부 회원이 한 위원장을 직접 끌어내기 위해 위력을 행사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다. 2008년 광우병 시위 참여자와 2013년 박태만 철도노조위원장이 조계사에 몸을 기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법응 스님은 "법원으로부터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확신범, 정치적으로 억울하다는 피의자에 대해 조계사 등 도량을 도피처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면서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며 그들 혹은 단체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불교, 종단적으로 접근할지를 명확하게 전문가들을 통해 가이드 라인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저출산' 극복 위해 종교계가 뭉쳤다

종교지도자協 12월 8일
저출산 극복 선언문 발표
생명보호 · 차별 금지 노력
입양가정 위한 지원 사업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계가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장 자승, 이하 종지협)는 12월 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된 행사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축사, '저출산 극복을 위한 퍼즐맞추기' 등이 이어졌다.

종지협은 "지난 30년 간 지속돼 온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 활력을 저하시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문제"라며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종교계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종지협은 "모든 생명과 가족이 존중되는 행복한 사회 모습을 널리 알림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생명보호와 생명에 대한 차별금지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미혼모자 · 다문화가정 · 입양가정을 위한 지원사업 및 인식개선 노력도 확대할 것"이라 강조했다.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12월 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구체적 실천 내용으로 △가족 친화적 가치관 확산을 위한 사회문화 개선 △생명존중 사상의 전파를 통한 낙태방지와 자살예방 △임신 · 출산 · 양육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천도교 박남수 교령을 비롯한 종교계 지도자들과 황교안 국무총리, 방문규 차관, 김희정 장관 등 정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다양한 시각이 불교출판 미래의 희망"

불출협, 12월 10일 출판문화상 시상식

〈만해, 그날들〉 대상 수상

양질의 불서 보급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제12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이 1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렸다.

불교출판문화협회 회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 심사위원장 이병두 진흥원 사무국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서 총무원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올해 유난히도 어려운 출판 환경에도 불구하고, 좋은 불서들이 많이 출간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지홍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후보로 추천된 92종 불서를 보면서 콘텐츠가 다양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시각으로 불교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우리 불교출판의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자인 박재현 씨의 〈만해, 그날들〉과 우수상 〈불자로 산다는 것〉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의 저자와 출판사에 대한 시상으로 진행됐다. 수상작은 또 〈보살지〉 〈분노를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훈민정음의 길〉 등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앉았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출판문화협회는 12월 10일 '제12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일 주 문



연말 이웃돕기 쌀 전달

무원 부산 삼광사 주지 스님은 12월 16일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부산진구 장애인협회에 3kg 쌀 500포를 전달했다.



동국대 총동림동문회장 취임

혜정 스님은 12월 15일 동국대 상록원에서 동국대 불교대학원 승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 1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단양경찰서 경승실장 위촉

덕중 천태종 총무원 복지국장 스님은 12월 9일 충북 단양경찰서 경승실장에 위촉됐다.

제1회 시민인권상 수상자에 혜철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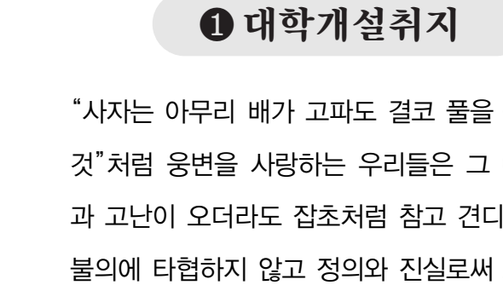


옥천 태고종 대성사 혜철 스님이 1회 시민인권상 인권매체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민인권센터는 12월 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제1회 시민인권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총 6개 분야로 인권기초자치에 박용갑 중구청장, 인권복지에 윤경열 행복마을 원장 ,인권언론매체에 혜철 스님(불교공뉴스 대표), 인권실천에 임동표 한국진흥원 대표이사, 인권법조에 최기석 법률사무소 대표, 인권의료에 최경옥 대청병원 수간호사 등이 선정됐다.

이 중 인권언론매체에 선정된 혜철 스님은 지난 10년간 언론을 통한 인권활동 홍보와 옥천지역 인권센터 창립에 앞장서왔다. 혜철 스님은 전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으로 인권상담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다문화가족 및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주일 기자**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출



한국대승불교조계종(총무원장 취운)은 12월 3일 총무원인 부산 천광정사 대법당에서 종단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단 임시총회를 열고 선거를 통해 차기 총무원장에 취운스님〈사진 왼쪽서 세번째〉과 사정원장 혜관 스님을 선출했다. 취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화합하는 승가, 발전하는 종단이라는 기치아래 전법종단으로 이끌어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해 봉직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참사람 육성 교육기관으로 발전"

신임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내정자



'교육의 질' 강화 제1공약
인재불사 기금모연도 앞장

"실무형 인재, 불교정신에 입각한 참사람 인재를 육성하는 명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제297차 동국대 이사회에서 신임 경주캠퍼스 총장으로 선임된 이대원 교수는 이같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대원 총장 내정자의 임기는 2016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다.

이 총장 내정자는 "합리화와 내실화 경영전략으로 4년 후 지방사립대 중 전국 3위로 도약하겠다"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학교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원동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 내정자는 임기 중 먼저 교육인력 양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총장 내정자는 "불교정신에 입각한 인성교육을 정착시키고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도입할 계획"이라며 "재직교원 역량강화 및 우수교원 충원, 국책연구소 유치로 매년 총 4000억원 규모의 연구비 수주, 행정간소화 및 효율화 추진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유럽 대학과의 공동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불교인문학, 관광 및 경영, 바이오메디컬헬스케어, 에너지안전환경, 자동제어시스템 등 5개 분야를 교육역량 강화 분야로 선정해 경쟁력 확보에도 나선다.

대학의 화두인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실무형 인재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총장 당선자는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외국어 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부전공 및 복수전공 장려, 진로설계 관리, 취업 컨설턴트 적극 활용, 교수 동문과 전문가의 멘토링제도 확립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불교종립학교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참사람 인재교육과 인성교육센터 설립, 인재불사 기금모금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 당선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현재 240여개 지역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다. 산학협력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 기회를 늘려 취업률을 높이고 취업 명문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릴때부터 어머니의 천수경 독경을 들으며 자랐다는 이 교수는 동국대에 입학하며 불교 교리에 관심을 느끼고 불교에 심취했다. 1980년 동국대 농업생물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독일 킬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로 부임해 제11대 교수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주발전협의회 이사, 식물생명공학회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외형적인 지표보다 학력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종단聯 회장 성철 스님 취임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이하 한불련)는 12월 8일 인천 보명사 대법당에서 제3대 회장 성철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재 각성 스님, 제2대 회장 무산 스님, 대한불교승가회 이사장 무공 스님, 윤기순 대표이사 등 협회 임원과 김상희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동참했다.

구생종 총무원장 원당 스님의 사회를 시작으로 무공 스님의 개식선언과 충남무형문화재 40호 보명 스님의 상축문이 진행됐다.

2대 회장 무산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임기 내내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회원님들의 격려로 지금까지 왔다. 향후 역량을 키우는 한불련이 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3대 회장 성철 스님은 "초대, 2대 전임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중책을 맡아 한불련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위상확립, 합리적 조직구조 운영, 발전적 행정시스템 구축 등 3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밝혔다.

성철 스님은 11월 10일 한불련 회장단의 추천으로 제3대 회장에 선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합회 운영에 공로가 인정된 회원들에 대한 훈장표창 및 훈장증서가 수여됐다. **노덕현 기자**

"불교무술 정립 호국불교 알릴 것"

호국불교무술연맹 총재 진관 스님



"예로부터 불교는 호국의 정신을 담은 불교무술을 바탕으로 국가를 수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례로 임진왜란 당시 선조임금으로부터 팔도십육종도총섭(八道十六道總攝)에 임명돼 나라를 구하는 데 일조한 서산대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래 전부터 전승돼온 불교무술을 재정립해 호국불교의 정신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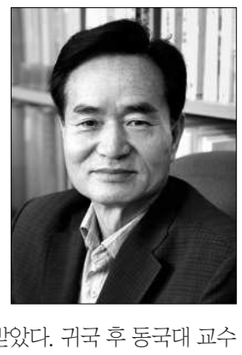
12월 9일 출범한 호국불교무술연맹 총재 진관 스님〈사진〉은 이에 앞서 7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1층 카페 바라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맹 발대식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호국불교무술연맹은 불교무술의 발굴과 체계화, 승군활동의 학문적 정리 등을 통해 한국전통무술을 복원하고 호국불교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관 스님은 "서산대사께서는 호국애민의 정신을 담은 무술을 통해 구국활동을 벌이셨다. 하지만 그 맥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중요한 불교적 가치 중 하나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의 소림사와 같이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불교무술을 '승무도'로 체계화해 국제적으로 보급할 생각"이라고 연맹의 창립 동기를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맹은 내년 1월 중순경 예산군 덕산면에 '호국불교무술문화원'을 개원하고, 불교무술과 관련된 사료를 조사·연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전국에서 승무도를 보급하고 있는 100여개의 도장사범도 함께 참여한다. **윤호섭 기자**

"종교문화, 융합의 시대로 발전해야"

정년퇴임하는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다원주의 시대에 미래 종교문화는 종교간 융합과 대화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12월 14일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65)의 정년퇴임식을 겸한 회향강연회에서의 마지막 강연 주제는 '종교문명의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불교의 역할'로 진행됐다.

그동안 한국불교학계를 이끌어 온 김용표 교수〈사진〉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 동부 템플대 대학원 종교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동국대 교수로 30년 가까이 재직해 왔다. 이후 김용표 교수는 이웃종교와의 교류와 불교학의 세계화와 종교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9·20대 한국불교학회장을 지내며 학제간 교류를 시작했으며 BK21 세계화시대불교학교육연구단장을 역임하며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를 불교학 연구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힘을 쏟았다. 또 세계 각국의 중요 도서관과 학회에 제공되는 영문불교학술지 '세계불교 사상문화저널(IJBTC)'을 25권째 발간하고 있다.

"한국 불교의 기본 입장은 '다원주의를 향하여 열린 포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불교학은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 교수는 근현대 선지식에 대한 재조명 작업 등에도 몰두했다. 현대 한국불교사상에 기여한 월정사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 선운사 박한영 스님, 고익진 교수 등이 연구대상이었다.

"학문과 교육의 길에 은퇴란 적절치 않은 말 같습니다. 정년이란 그동안의 교육연구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학문과 삶의 과제를 찾아낼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2015 불교기자상 및 불기협의 밤

본지 신성민·노덕현 기자 대상 수상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이강식, 이하 불기협)는 12월 7일 오후 7시 서울 STX남산타워 만복림에서 '2015 불교기자상 시상 및 한국불교기자협회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본지 신성민·노덕현 기자는 연중기획 '광복 70년, 불교 70년'으로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획·해설부문은 법보신문 김현태 기자의 '김현태 기자가 만난 시니어불자', 취재·보도부문은 BTN불교TV 이리나·장수정 기자의 '2015 장애인의 날(6회 연재)'이 수상했다. 또한 불교계 기자로 20년 이상 활동한 회원에게 수여하는 근속상은 밀교신문 이재우 편집국장과 불교플러스 박선영 취재부장이 받았다. 이외에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생명나눔상은 BTN불교TV 이석호 기자가 수상했다.

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묵 스님은 격려사에서 "정론직필에 힘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글로 행복을 전해주는 기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묵 스님, 동국대 법인 사무처장 종민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 최초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한불교웅변대학 제1기생 모집

❶ 대학개설취지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결코 풀을 뜯지 않는 것"처럼 웅변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잡초처럼 참고 견디며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진실로써 오로지 진리만을 불같은 "사자후"를 터트리는 위대한 웅변가가 되어야 한다.

"세치의 혀는 칼보다 무섭고" 침묵보다 무거운 정치가의 말 한마디는 "역사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웅변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써 배우고자 하는 후학들이 있다면 부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전수하고자 함입니다.

❷ 입학 및 수강안내

모집인원	자 격	제출서류	강의시간 및 장소
웅변, 연설, 기타(30명) 특별반 0명	비구, 비구니, 법사 기업인(대표), 공무원, 단체, 정치인, 지도자, 일반인(남, 여)	입학권서(1통) 사진 1장	매주 화요일 : 6시 30분~9시(2시간 30분) 매주 목요일 : 6시 30분~9시(2시간 30분) 일주일 2번 (6개월간 강의) • 장 소 : 백용사 대 법당 *시간조절 가능(입학식때 의견조율)
① 교육내용	웅변(3분스피치) 원고작성법을 배우면 훌륭한 연사가 될 수 있음		
• 법문, 연설, 축사, 강연(기타), 임기웅변(3분 스피치) • 총장님(해봉) 직접강의 • 주옥같은 수많은 원고(대회, 강연, 출사, 기타) 내용을 예를 들어 시범 원고작성법 강의(중점적으로 강의)		• 태도 : 연단(표정과 자세) 실기 • 성량 : 발성법 → 고저장단, 호소력, 호흡조절(단문원고 연습, 시범, 실기반복) • 원고작성법 → 서론, 본론, 결론(3단논법)에 의한 청중을 감동, 설득 시킬수 있는 내용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가(중점적으로 강의) • 연단경험 : 매일 연단에 서게 함(단문원고) • 강평 : 연사마다 장 단점	
④ 본대학 이수시 본대학 졸업장 수여		⑤ 입학금, 등록금	없음(보시하겠습니다)
		※ 교재비	6개월간 10만원
⑥ 입학식	2016년 1월 5일(화요일) 오후 5시	⑦ 원서교부기간	2015년 12월 14일부터 – 2016년 1월 3일까지(선착순)

대한불교 웅변대학 총장 해봉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 17번길 42-9(하안동) / 010-6565-2042

겨울 산사서 '힐링' 하며 "Happy New Year!"

2016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다채'

2015년 한 해도 끝자락에 들어섰다. 올해 달력이 덩그러이 한 장만 남아있다. 가는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할 시기다.

하지만 송년회 등 연말 모임으로 몸과 마음은 지쳐있다. 인간관계에 치이고 일에 시달린 당신, 올해에는 고즈넉한 겨울 산사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맞으며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어떨까.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들이 준비한 '송구영신(送舊迎新)' 프로그램이 매우 알차기 때문이다.

도심 산사서 소원 기원

서울·경기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서울 도심 사찰과 산사에서 즐거운 해맞이를 할 수 있다.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는 '2016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를 연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국제선센터의 템플스테이에는 새해 타종 체험부터 108배, 염주만들기, 걷기 명상 등이 진행된다.

도심 속 산사에서 가마솥에 구운 고구마를 먹으면서 한 해를 보내는 것도 좋다. 서울 종로 금선사는 고등학생 이상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를 연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마솥 고구마 구워먹기, 소원나무 만들기, 북한산 산행, 108배 등이 이뤄진다.

서울 경기 인근 교구본사들도 찾아가볼 만 한다. 효행본찰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에서는 박물관 관람과 발우공양, 108배가 주요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제25교구본사 봉선사는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운영해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오로지 휴식만을 원하는 도시인에게도 안성맞춤이다.

양평 용문사에서는 명물 은행나무의 잎에 소원을 쓰고, 탑돌이를 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며, 고양 흥국사에서는 노고산 산행을 하면서 새해 아침 해맞이가 가능하다.

나를 바로 봅시다

충청·강원 충청과 강원권 사찰 템플스테이는 자기 자신을 바로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수 눈에 띈다.

공주 갑사는 새해를 맞아 '용품(용을 품은 나)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삼보일배와 세족식, 명상 등으로 묵은 해를 보내고 싶다면 갑사 템플스테이로 가볼 것을 추천해본다.

전국 50여 템플스테이 사찰서 '해넘이·해맞이' 프로그램 운영
소원 빌고 떡국 먹고 산행까지
새해 원력·다짐 세우기 '적격'

간화선 대표 선승 혜국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석종사에서는 새해를 맞아 참선과 경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제7교구본사 수덕사의 '2016년 행복해(年), 꼭 행복해'는 만다라 그리기를 통한 힐링과 문화 공연 등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산행을 통해 새해를 맞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제4교구본사 월정사는 오대산 산행과 해돋이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한 '비로봉, 희망찬 템플스테이'를 개최하며, 서산 부석사는 노을 감상과 도비산 해돋이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한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지역 명산·명찰서 하룻밤을

전라·제주 남도 지방에는 명산과 명찰이 즐비하다. 그만큼 가볼만한 곳이 많다는 뜻이다. 전라권 사찰에서는 명산 산행을 중심으로 한 새해맞이 템플스테이가 눈길을 끈다.

해남 땅끝마을의 미황사는 달마산 산행을, 구례 천은사는 지리산 산행을, 김제 금산사는 모악산 산행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진도 쌍계사와 화순 쌍봉사도 산행 프로그램과 함께 108배, 타종체험, 스님과의 차담 등이 함께 이뤄진다.

제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진행되는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는 금룡사에서 개최된다. 제주 겨울바다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파도소리 명상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신년계획을 세우고 싶다면 금룡사의 새해 템플스테이를 추천한다.

동해 바다보며 해맞이를

경상·부산 경상권은 동해안을 끼고 많은 명소들이 있다. 경상권 템플스테이 사찰들도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새해 태양을 맞이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선무도 본찰 경주 골굴사는 동해바다에서 새해를 맞는 프로그램 이외에 108배, 새해 타종체험 등을 진행하며 포항 보경사도 동해바다 해맞이와 폭포 걷기 명상을 통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밖에도 성주 심원사는 새해 타종과 일출 명상을 메인으로 한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를 준비했으며, 하동 쌍계사에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도 소원등 탑돌이, 108배, 해돋이 명상 등으로 새해를 맞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6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리스트

지역	사찰명	프로그램명	참가자격	내 용	사찰정보
서울	국제선센터	2016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새해 타종체험, 108배, 염주 만들기, 걷기 명상, 소원 빌기 외	02-2650-2213
	금선사	금선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고등학생 이상 성인	가마솥 고구마 구워먹기, 소원나무 만들기, 108배, 북한산 산행, 차담 외	02-395-9955
	진관사	진관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새해 타종체험, 행복 촛불 밝히기, 떡국 먹기, 북한산 해맞이 외	02-388-7999
경기/인천	금강정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새해 소망 촛불 밝히기, 구름산 해맞이, 떡국 먹기 외	02-899-7366
	법륜사			반성의 편지쓰기 명상, 촛불 명상, 꿈등 달기, 새해 타종체험, 행선 수행, 스님과의 차담 외	010-6766-8700
	봉선사	새해맞이 봉선사 휴식형 템플스테이	누구나	휴식형 : 포행 외	031-527-9969
	봉인사	봉인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산행 외	031-574-5585
	신흥사(화성)	신흥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중학생 이상 일반인	해맞이 명상, 소원 쓰기, 108배, 촛불 발원, 새해 타종체험, 떡국 만들기 외	031-357-2695
	용문사(양평)	2016년 해맞이 프로그램	누구나	스님과의 대화, 명상, 나에게 쓰는 편지, 탑돌이, 108 염주 만들기, 은행잎 소원지 쓰기, 해맞이 외	010-5342-5797
	용주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고등학생 이상	박물관 관람, 편지 쓰기, 발우공양, 108배, 명상, 떡국 먹기, 숲길 명상, 차담 외	031-235-6886
	육지장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108염주 만들기, 쑥뜸체험, 소원등 만들기, 새해 타종체험, 포행명상, 스님과의 차담, 옥돌 체험, 떡국 먹기 외	031-871-0101
	전등사	전등사 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소원풍선 날리기, 새해 타종체험, 해돋이, 떡국 먹기, 스님과의 차담 외	032-937-0152
	화운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떡국 먹기, 명상 및 108배, 소금만다라 명상, 스님과의 대화 외	031-337-2576
	흥국사(고양)	2016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노고산 해맞이, 떡국 먹기	02-381-7980
	봉녕사	갈무리 템플스테이	누구나	편지 쓰기, 타종 체험, 걷기 명상, 요가 외	031-256-4127
충청	갑사	용품나(용을 품은 나)		삼보일배, 세족식, 명상, 108배, 발우공양, 포행 외	041-857-8921
	마곡사	마곡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108배, 염주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음악회, 새해 타종체험, 공감명상, 소원지 작성 외	041-841-6226
	반야사	MERRY 새해	누구나	새해 타종체험, 소원지 쓰기. 탑돌이, 주지스님과의 차담, 떡국 먹기 외	010-8243-7722
	부석사			노을 감상, 새해 타종체험, 도비산 해돋이, 연등 의식, 전통놀이, 고구마·가래떡 구워먹기 외	070-8801-3824
	서광사	서광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해맞이 일출보기, 소원등 만들기 외	041-664-2002
	석종사	2016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참선, 떡국 먹기, 경행 외	043-854-4505
	수덕사	2016 "행복해(年), 꼭 행복해!"	초등학생 이상	콘서트, 108배, 새해 타종체험, 만다라 그리기 외 *양띠(가는해), 원숭이띠(오는해) 참가비 무료	041-330-7789
	영국사	다복해요 템플스테이	누구나	떡국 먹기, 윷놀이, 스님과의 차담, 산행, 소원 풍등 날리기 외	043-743-8843
경상/부산	고운사	알콩달콩 가는해 오는해	누구나	108배, 새해 타종체험, 할미꽃 놀이, 스님과의 대화, 차담 외	054-833-6933
	골굴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108배, 새해 타종체험, 동해바다 해맞이 외	054-775-1689
	도리사			새해 타종체험, 염주 만들기, 일출 감상 외	054-474-3877
	문수암	2016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108배, 떡국 먹기, 펜던트 만들기, 명상, 발원문 쓰기, 스님과의 차담 외	055-973-5820
	보경사	동해바다 해맞이 프로그램	누구나	동해바다 해맞이, 폭포 걷기명상 외	054-262-1804
	심원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108배, 소원지 쓰기, 연꽃등 만들기, 윷놀이, 새해 타종체험, 일출명상, 떡국 먹기 외	054-931-6887
	쌍계사(하동)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소원등 탑돌이, 108배, 해돋이 명상, 떡국 먹기 외	010-6399-1901
	옥천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소원주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새해 타종체험, 명상, 떡국 먹기, 해돋이 외	055-672-6296
	용화사(통영)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떡국 먹기, 새해 타종체험, 원석염주 만들기 외	055-649-3060
	은해사	은해사 해맞이 템플스테이		소원지 만들기, 새해 타종체험 외	054-335-3308
	직지사	직지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해맞이, 떡국(주먹밥) 먹기, 스님과의 대화, 명상 외	054-429-1716
	해인사	해인사 겨울 특별 프로그램	누구나	해맞이 템플스테이(체험형), 신년 연휴 템플스테이(휴식형)	055-934-3110
	홍법사	홍법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중학생이상 누구나	명상, 108배, 새해 타종체험, 마음 나누기, 나의 컵 마주하기, 주지스님과의 차담 외	051-508-0345
강원	백담사	해넘이 해맞이 희망 템플스테이	초등생이상 누구나	차담, 탑돌이, 소원문 적기, 촛불 발원, 새해 타종체험, 떡국 먹기 외	033-462-5565
	신흥사(속초)	2016년 설악의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108배, 염주 만들기, 떡국 먹기, 스님과의 차담, 걷기 명상 외	033-636-8001
	월정사	비로봉, 희망찬 해맞이 템플스테이	초등생 이상 누구나, 미성년자는 보호자동반	박물관 관람, 스님과의 차담, 오대산 산행 및 해돋이 외	033-339-6606
제주	금룡사	2016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108배(명상), 해변 새해맞이 소원 빌기, 파도소리 명상, 떡국 먹기, 108염주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외	064-783-3663
세종시	영평사	영평사에서 해넘이 해돋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108배 염주 만들기, 연꽃차담, 소원지 쓰기, 해돋이, 숲속명상, 떡국 먹기 외	064-783-3663
전라	내소사			명상, 법문, 새해 타종체험, 스님과의 명상 및 차담	063-583-3035
	미황사	해넘이 해맞이	누구나(미성년 보호자 동반)	108배, 참선, 다도, 새해 타종체험, 달마산 산행, 떡국 먹기 외	061-533-3521
	백련사(강진)	백련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떡국 먹기, 강진만 해맞이 외	061-432-0837
	불갑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해맞이 일출보기, 떡국 먹기, 차담, 소원지 쓰기, 108염주 만들기 외	061-352-8097
	선운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윷놀이, 소원지 만들기, 새해 타종체험, 108배, 포행 외	063-561-1375
	송광사(순천)	2016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108배, 떡국 먹기, 해맞이 산행, 불일암 참배 외	061-755-5350
	쌍계사(진도)	진도쌍계사 새해 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미성년자는 보호자동반)	108배. 산행(해돋이), 떡국 먹기 외	061-542-1165
	쌍봉사	2016년 템플스테이	누구나	108배, 나에게 편지 쓰기, 떡국 먹기, 단청 체험, 해맞이 산행, 스님과의 차담, 새해 타종체험 외	061-372-3765
	천은사	2016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대학생 이상	지리산 산행, 스님과의 차담 외 –	061-781-4800
	화엄사	노고단 해맞이	외국인 포함한 누구나	해맞이, 스님과의 차담, 서원 세우기, 명상 외	061-782-7600
	대흥사	새해 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미성년자 보호자 동반)	스님과의 차담, 새해 타종체험, 떡국 먹기, 해돋이 외	061-535-5775
	금산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모악산 해맞이, 떡국 먹기, 소원지 쓰기, 명상, 스님과의 대화 외	063-542-0048

부처님의 생생한 말씀을 담은 경전은 새해 최고의 선물!!

깨달음의 언어로 이루어진 책은 삶의 나침반, 인생의 보배

불교경전 시리즈

● 불교경전총서는 당신의 불심을 일깨웁니다.



●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경전을 읽는 즐거움'은 곧 삶의 즐거움이 됩니다.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보경 지음_ 값 15,000원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일진 지음_ 값 15,000원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동봉 지음_ 값 23,000원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일감 지음_ 값 15,000원
법성게를 읽는 즐거움 ■법상 지음_ 근간

콘사이스 불교사전



– 불교 공부의 길잡이, 불교 공부를 하고 경전을 읽기 위해 꼭 필요한 책
– 한 권의 사전을 통해 불교의 거의 모든 지식을 섭렵할 수 있다.

■김승동 편저_ 값 45,000원

불교에 입문한 분들이 좋아하는 가장 품위 있는 선물

행복한 삶을 열어주는 민족사의 책 5



버리고 비우고 낮추기 – 무아·무심·하심의 행복론
■정승석 지음_ 값 10,800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알아가는 길. 버리고 비우고 낮추다 보면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된다.



마음의 비밀 – 아뢰야식의 발견
■요코야마 고이치 지음·김명우 옮김_ 값 10,800원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긍정적인 삶이 된다. 마음의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마음을 변혁시키는 방법과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책



붓다의 인생코칭 – 붓다에게 배우는 행복해지는 법
■우에니시 아키라 지음·유윤한 옮김_ 값 10,800원
직장에서 보람을 느낄 수 없다면 붓다의 코칭을 받아라! 붓다가 일러주는 직장인을 위한 자기계발의 필독서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 월호 스님의 참선 이야기와 냥의 수행일기
■월호 스님·배종훈_ 값 16,500원
참선과 카툰의 만남으로 의미에 재미를 더하다! 참선 이야기와 바른 삶을 추구하는 '냥'의 모습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준다.



빛나는 해피불 – 운명을 바꾸는 빛
■동휘 스님_ 값 16,200원
동휘 스님의 생명력 넘치는 글과 만다라! 그 힘찬 에너지가 우리의 삶, 운명을 새롭게 빛나게 할 것이다.

민족사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국내 최대 규모 템플스테이관 건립 '순항'

내원정사, 6일 상량식서 마룻대 올려

연면적 1800평, 소요예산 70억
사부대중 합심해 이뤄낸 불사
부산 불교 전통문화 알릴 명소
공사기간 44개월, 2016년 완공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상량식 모습

전법도량 내원정사(주지 정련)가 불교계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다. 국내 최대 규모의 '템플스테이관'을 건립하고 문화포교와 인재불사를 향한 원력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43년 전 천막 법당으로 불사를 시작한 내원정사는 복지 · 포교 · 교육을 화두로 전법활동을 펼치며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관 및 병원 운영에 이르기까지 큰 발전을 이룩했다.

내원정사는 12월 6일 '템플스테이 생활관'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주지 정련 스님과 불자들은 템플스테이관을 둘러보며 불교문화체험실에서 펼쳐질 앞으로의 모습을 상상했다. 또한 콘크리트 회색의 차가운 벽을 어루만지던 불자들은 "주변 자연환경과 함께 어울려 아름답게 장엄될 부처님의 공간을 생각을 하니 환희심으로 만감이 교차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량식은 △불사현황 보고 △내빈 축사 및 신도회장 인사말 △불사금 전달 △상량문 낭독 △주지 정련 스님의 상량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상량식에서는 내원정사 신도들이 1000일 기도를 회향하며 불사에 함께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상량식에서 대중들은 불사금 6억6천200만 원을 주지 정련 스님께 전달했다. 이법륜화 신도회장은 "신도님들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스님의 원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며 "오늘 다시 1000일 기도를 입재한다.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도록 내원정사 신도들은 다 같이 화합하고 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원정사 템플스테이관 주변에는 경관이 수려한 대신공원과 구덕문화공원이 있는 꽃마을, 구덕청소년모험시설 등이 위치해 수많은 등산객과 방문객이 몰리고 있다. 내원정사는 이번 템플스테이관 건립으로 국내 · 외 관광객들의 전통문화체험 명소와 전법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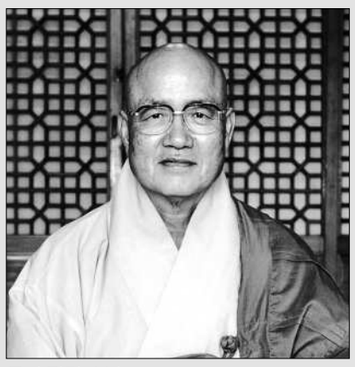
내원정사 템플스테이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면적 1,646㎡(498평), 연면적 6,037㎡(1,826평) 등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사경실 · 예경실 · 수련실 · 명상실 · 발우공양실로 구성된 불교문화체험실과 강의실, 회의실 등 일반 사무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용인원은 최대 250명. 2013년 4월 템플스테이 시설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그해 12월 착공식을 실시했다. 총 공사 기간만 44개월이며 2016년 11월 공사가 완료된다. 사업비는 국비 15억 원 · 지방비 19억 원, 내원정사 자부담 36억 원이 소요된다. 앞으로 내원정사는 생활관에 이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가족실과 다도실, 국제힐링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상량식에는 지우 스님, 현조 스님, 지일 스님, 사회복지법인 내원 이사 향록 스님,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장 선호 스님, 새누리당 유기준 국회의원, 박극제 서구청장 및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부처를 만들어 행복 나누겠다"

내원정사 주지 정련 스님


주지 정련 스님

"상량 나무에 불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것은 대선지식 대도인을 배출하는 도량으로써 부처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템플스테이 생활관을 체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정화되고 복과 지혜를 갖춰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 같이 템플스테이관 건립 목적을 밝힌 내원정사 주지 정련 스님은 상량 나무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서 있었다. 스님은 내원정사 템플스테이관을 '참 도인, 살아 있는 부처님의 도량'으로 천명했다. 그러면서 물질적 장소가 필요한 근본적 이유를 '행복을 나누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련 스님은 "43년 전 내원정사는 창건의 목적을 포교, 교육, 복지로 삼고 신도님들과 지금까지 정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원정사는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관 불사 또한 설명한 목표대로 노력을 기울여 선지식이 도량에 운집하는 수행도량으로 거듭나 후대 자손에게 100년, 200년 기억에 남는 장소가 되도록 할 것"이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님은 불사에 함께 마음을 모아준 신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43년간 내원정사 신도회였던 약사회를 원각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법륜화 보살님을 초대회장님으로 모셨는데, 신도회장님을 위시해 많은 불자들이 큰 원력을 세워 7억 원에 가까운 불사 성금을 내주셨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 정진하면서 한량없는 원력을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제6교구 신도회 창립

12월 6일 본사 마곡사서 안병권 신임회장 취임식도

조계종 제6교구 신도회가 12월 6일 6교구본사 마곡사 연화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묵 스님, 중앙신도회 이기흥 회장 등 사부대중 1백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신임회장 취임식 및 충청권역 교구신도회 간담회가 진행됐다. 신임 신도회장에는 안병권 前태고사신도회장이 선임됐다. 마곡사 측은 "안 회장은 지역의 불자 경제인으로서 모범적인 기업운영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왔다"면서 "6교구 신도회가 충청권 중심에서 교구와 지역을 아우르는 데 큰 버팀목이 될 것이다. 타 교구 신도회와 교류를 통해 지역 네트워크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제6교구 신도회가 12월 6일 6교구본사 마곡사 연화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명상 스승과 함께 새해 마음 수행을

내년 2월 25~28일 세계명상대전… 혜국 스님 · 아잔 브람 등 참석

3박 4일 간 전문가 과정부터
직장 · 가족 단위 프로그램 마련
주요 불교국 불자도 참석 예정

새해부터 유명 명상 스승들을 만나 마음수행을 통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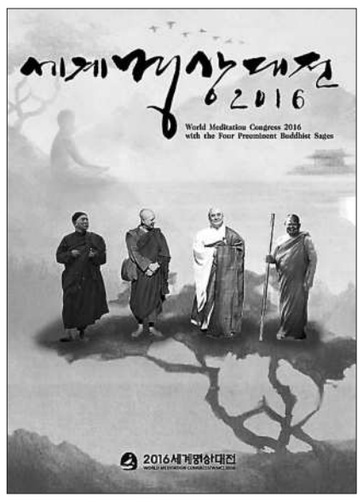
세계명상대전 조직위원회(위원장 각산)은 "지난해 메르스로 연기된 세계명상대전(World Meditation Congress 2016, WMC)이 내년 2월 25~28일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명상대전은 세계 최고의 명상 스승들을 초청해 명상을 통한 국민 행복과 현대인의 심적 트라우마를 치유를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본래 이번 행사는 지난 7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여파로 연기됐다.

이번 명상대전에는 세계 불교계 선지식 4명이 초청 법사로 나선다. 한국에서는 간화선의 대표 선승 혜국 스님이 나서며 태국에서 아라한의 칭호를 받은 아잔 간하, 캠브리지대 출신의 눈푸른 명상 스승 아잔 브람, 대만의 세계 통합불교 최고봉인 심도 선사 등이 참석한다.

또한 이번 명상대전은 명상 분야 전문가 위주의 3박4일 과정을 비롯해 가족 단위, 직장단위, 동호인 단위 일반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2박3일 일정과 1박2일 일정도 마련된다. 대회 조직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명상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행사 참가자 규모는 4일간 6,000명 수준이며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 명상 수행자들도 200여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회조직위는 "매일 초정 선지식들의 수행지도와 좌선, 걷기 명상 등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명상이 갖는 사회적 순기능을 조명하고 개인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며 "명상을 종교 행사가 아니라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을 치유하는 정신 힐링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행사 개최지인 하이원 리조트와 공동으로 일반인 참가자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 세계명상대전 포스터

현재 대회조직위 사무국은 국내외 참가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참여 인원 1000명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www.worldmeditation.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2)451-0203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샤카디타코리아, 송년의 밤 '샤밤샤밤' 열어

12월 18일 여성개발원서… 바자회 및 옥션 진행

샤카디타코리아(지부장 조은수, 이하 샤카디타)는 12월 18일 오후 5시 서울 수송동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송년의 밤 및 바자회-샤밤샤밤'을 개최한다. 바자회는 5~6시, 송년의 밤 행사는 6~9시 진행되며, 승소식권과 디저트, 핑거푸드, 무알콜 뱅쇼 등 제공한다.

올해 드레스 코드는 보라색이다. 신발, 염주, 목도리, 브로치, 양말, 장갑, 모자 등 보라색 복장이나 장신구를 착용하면 참석자 중 베스트 드레서를 선정, 경품을 증정한다.

아울러 바자회에서는 회원들의 기증품 중 10점을 선별해 경매를 실시한다. 경매 수익금은 샤카디타 코리아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증품은 12월 5일 오후 1~3시, 10일 오후 5~7시 여성개발원에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도 승가와 재가의 마니또 미션, 효석 스님의 웃음 요가, 어린이 국악 창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문의(02)443-8982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신년 맞이, 전등사서 해볼까

12월 31일 타종식 '만당홍소' 개최

강화 전등사(주지 범우)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타종식을 12월 31일 오후 11시 40분 개최한다. 타종식의 주제는 '만당홍소(滿堂哄笑)'. 전등사는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 보다 적극적인 마음과 웃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자는 의미에서 '만당홍소'를 주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타종식은 법고를 시작으로 촛불기원, 풍선에 새해소원 띄워 보내기, 타종 등으로 진행된다. 사전행사로 오후 9시 30분부터 가족영화제가 열리며 고구마 구워 먹기, 떡국 나눠 먹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타종식 후 새해 아침에는 전등사를 둘러싼 삼랑성을 돌며 해맞이 행사를 갖는다. 참가문의 (032) 937-0152

신성민 기자

東國大學校 佛教大學院
出家共同體 總東林 同門會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제11대.12대 회장 이취임식 및 任員 공고

■ 일시 : 2015년 12월 15일 오후 3시 / ■ 장소 : 동국대 상록원 3층

◆역대 회장단 : 1대, 2대 회장 성웅스님
3대회장 자용스님
4대회장 정진스님
5대회장 시몽스님
6대회장 지암스님
7대회장 선묵스님
8대회장 종후스님
9대회장 법만스님
10대회장 학명스님
11대회장 무문스님
◆고문 :
자용스님 / 법만스님 / 학명스님
◆자문위원 :경봉스님 / 진우스님
법경스님 / 덕인스님 / 혜진스님
◆이사장 : 무문스님
◆명예회장 : 무문스님
◆회장 : 무정 혜정 스님
◆수석부회장 : 도원 혜성 / 원행스님
◆부회장 : 혜인스님 / 승현스님
◆사무총장 : 지담스님
◆총무부장 : 종산스님
◆재무부장 : 하담스님
◆기획실장 : 지련스님
◆대변인 : 지선스님
◆수석감사 : 덕성스님
◆감사 : 성담스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 해천스님
◆학술분과위원장 : 설봉스님
◆기획분과위원장 : 법승스님
◆문화분과위원장 : 도성스님

■ 문의 : 사무총장 지담 010-2313-5671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1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5년 12월 중
◆개강일시 : 2015년 11월 23일
매주 (월, 수)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지역사회 숨은 일꾼들의 20년 '결실'

조계종자원봉사단 전국자원봉사자대회서 대통령 표창
1995년 창단 이후 전국 5만여 봉사자 자비의 손길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은 조계종자원봉사단이 그간의 봉사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부설 조계종자원봉사단(단장 보경)은 12월 4일 서울 강남구 컨벤션벨라지움에서 열린 '2015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에서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행정자치부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범국민적 행사로 올해 10회째를 맞았다.

대회에서 조계종자원봉사단은 20년 동안 각 지역 수해복구 활동 · 태안 원유 유출사고 봉사 ·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원 · 자연재해 피해국가 지원 등 다양한 공적이 인정됐다.

조계종자원봉사단은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불교계 자원봉사단체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해 하나의 단체로 힘을 모은 것이다. 현재 전국에서 5만 명에 달하는 봉사자들이 호스피스 · 무료급식 · 목욕 · 간병보조 · 쪽방촌 지원 ·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9개 지부 · 지회를 갖추고 있으며, 2600여 명으로 구성된 직할봉사단으로 61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 직할봉사단은 180여 곳의 지역사회 복지기관 및 병원 등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소외계층을 돕고 있다. 특히 조계종자원봉사단은 2009년 교계의 상 · 장례 봉사활동을 개발하고자 염불자원봉사단을 정식으로 발대했다.

조계종자원봉사단을 총괄하는 재단은 사찰 및 신행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을 돕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자원봉사교육을 펼치고, 〈불교사회복지연구〉를 발간하는 등 불교계 나눔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재난재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계 NGO단체들과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최종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무총장(오른쪽 네 번째)과 정종섭 행자부장관(오른쪽 다섯 번째), 조계종자원봉사단원 대표들이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계종자원봉사단은 앞으로 봉사분야와 조직을 확대해 불교복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에 널리 전할 계획이다.

자원봉사단장 보경 스님은 "이번 수상을 통해 우리 봉사단이 20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해온 활동을 알리는 한편, 불교자원봉사 활동의 우수성과 역량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동 지원을 통해 자비 실현의 가치를 구현하고,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사회 곳곳에 전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사찰 밥지으며 평생 모은 정재 기부

변금연 불자, 동국대 경주캠에 1억원

평생 사찰 공양주로 살아온 한 보살이 인재불사에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해 화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최근 "지난 8일 여든 두 살의 노보살과 자녀들이 찾아와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9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노 보살은 지난 11월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에 1000만원을 기부한 변금연(82세) 씨로 이번에 9000만원을 추가로 기부한 것이다.

독실한 불자인 변금연 씨는 평생을 사찰 공양주로 살았다. 전국 108사찰 순례를 다니며 기도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진행하는 인재불사 소식을 듣고 11월 3일 처음 학교를 찾아 1000만원을 기부했다.

변 씨는 다시 학교를 찾아 기부를 하게 된 데 대해 "스님이 되고 싶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평생을 절에서 기도하며 살아왔다"며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젊은 학생들도 불교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풀지 못한 공부에 대한 한을 불교인재 양성하는 인재불사로 회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자녀들도 참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학교를 다시 찾아 왔다"고 밝혔다.



오른쪽 세 번째가 변금연 씨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보살님이 평생에 걸쳐 세우신 인재불사의 큰 뜻을 받들어 불교종립대학인 우리 대학이 지혜와 자비 정신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총 1억 원의 장학기금을 변금연 씨의 법명인 정진인(正眞印)을 따 정진인장학회를 설립, 불교인재 양성에 사용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성북장애인福, '장애인먼저실천상' 수상

8일, 문턱 없는 마을로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은 12월 8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5 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 에서 우수실천상을 수상했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장애인먼저실천상은 장애 인식개선, 사회통합 등에 앞장선 개인 및 단체를 시상해 지속적인 나눔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식에서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성북구 무장애마을 만들기사업을 통해 장애 · 비장애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성북구 무장애마을 만들기사업을 통해 지역 내 80여개 상점에 출입구 편의시설인 경사로를 설치했다. 장애인들의 상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이 사업은 관내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 물리적 · 비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누구나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올해 후원 · 봉사자 감사합니다"

종로노인福 · 중림福 송년모임 각각 열어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12월 8일 서울극장에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위한 송년모임 '좋은인연' 을 개최했다.

이날 종로노인복지관은 한 해 동안 묵묵히 자원봉사에 참여한 봉사자와 후원자들에 대한 시상을 했다. 복지관에 따르면 올해 2000여 명의 봉사자들이 3만1000시간에 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후원자들은 2억80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과 후원금을 기부했다.

복지관은 시상식에서 2011년부터 5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한 '한국마사회 승인지점' , 22회의 무료한방진료를 한 '경희대 한방병원' , 매주 경로식당 봉사를 하는 'KT광화문지사 구매협력실' , 시니어 연극단 연출 및 연기지도와 2000만원 상당의 연극티켓을 후원한 '예술기획 팀플레이' 등을 우수 봉사 · 후원자로 선정해 표창했다. 시상식 후에는 서울노인영화제 2회 연속 대상을 수상한 종로노인복지관 변영희 어르신의 '밥상' 을 감상했다.

연간 봉사활동 425회에 참여해 종로구의장상을 수상한 김상미 어르신은 "자원봉사를 통해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무엇을 바라면서 한 일이 아닌데 상을 받아 부끄럽다"며 "이번 수상을 발판삼아 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이 우수 봉사자 및 후원자에게 시상을 하고 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곳곳에서 묵묵히 활동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과 후원자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으로 어르신들에게 온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다. 작지만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정세균 국회의원과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복동 종로구의장, 조계사 사회국장 승묵 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장 희유 스님, 신사종합사회복지관장 지완 스님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수경)도 같은 날 '감사의 밤' 을 열고, 꾸준한 봉사활동과 후원활동을 해온 개인 및 기업 · 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연간 활동을 담은 영상을 시청했다.

윤호섭 기자

"쪽방촌 주민들에게 온기를"

조계종복지재단-중앙승가대 연탄 봉사

지난달 아름다운동행이 겨울나기로 고심하고 있는 저소득가정에 연탄 수천 장을 지원한 데 이어 조계종사회복지재단도 연탄나눔에 동참하면서 불교계가 지역사회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과 중앙승가대 학인스님 등은 12월 6일 영등포 쪽방촌에서 연탄 2300장을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연탄나눔은 조계종자원봉사단 소속 집수리봉사팀을 주축으로 마련됐다. 지난 9월부터 취약계층의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온 집수리봉사팀은 영등포 쪽방촌에서 봉사를 하면서 저소득가정의 겨울나기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날 학인스님과 봉사자40여 명은 집집마다 연탄을 배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사용배 집수리봉사팀장은 "차가운 냉골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소외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자 봉사자들과 의기투합해 연탄나눔을 준비했다"고 봉사 동기를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연탄 한 장이 아니다. 우리 주변 소외이웃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승가대 학인스님을 비롯한 봉사자들이 12월 6일 영등포 쪽방촌에서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앞으로 쪽방촌을 비롯해 지역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영등포 쪽방촌은 조계종자원봉사단에 소속된 '쪽방도우미봉사회' 가 활동하는 곳이다. 봉사회는 이곳에서 매주 1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도 쪽방촌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달 김치 3000kg, 백미 500kg을 지원했다.

윤호섭 기자

선무도 화랑학교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원효스님의 마지막 혼이 깃든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48회)에 함께 하세요.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 명상과 선무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는 등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입니다.

■ 언 제 : 2015년 12월 27일 ~ 2016년 1월 23일
■ 모집인원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5시까지 입교. 토요일 12시 퇴교.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평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운영)
■ 수련회비 : 1주 35만원 / 2주 70만원 / 3주 90만원 / 4주 11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준 비 물 :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우산, 방한모, 방한장갑, 목도리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 예약 및 문의 : TEL 054-775-1689 / 054-744-1689
홈페이지 www.sunmudo.com
※수료식은 골굴사 선무도 대학에서 토요일 11시에 진행합니다.

※ 심신단련 및 호연지기 : 선명상,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승마, 국궁, 호신술
※ 심성정화 및 전통문화체험 : 불교강의, 108배, 운력, 다도, 민요
※ 영어캠프 : 선무도를 수행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영어캠프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 매주 색다른 생태순례 : 감포깍지길 걷기 / 경주남산답사
읍천항 / 주상절리길 걷기, 박물관 및 경주문화유산탐방
※ 겨울철 놀이 : 제기차기, 투호놀이, 팽이치기, 비석치기, 연날리기 등



종립 중앙승가강원 학인 모집 안내

종단의 중진 교역자 및 인재양성, 미래교육 불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종도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1 모집학과 및 전형

학 과	모집인원	교학과목	교학기간	수강시간	전형방법
대교과	00명	화엄경	1년(2학기)	매주(월,화)	서류심사
사교과	00명	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경 원각경	1년(2학기)	매주(수,목)	

2 전형 및 개강 일정

구 분	일 자	구비서류	비 고
원서교부 및 접수	2016년 2월중	①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총무원 교무부 교부, 접수 ※입학원서:종단홈페이지(다운로드)	사진 2매 (3×4㎝)
대교과 개강	2016년 3월중	매주 월, 화요일	
사교과 개강	2016년 3월중	매주 수, 목요일	

3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대교과	① 중앙승가강원, 선암사전통강원, 보덕사비구니강원 사교과정 이상 수료자 ② 선암사 전통강원에 준하는 승가대학 및 전통강원 사교과 이상 수료자 ③ 동방불교대학(승가, 불교) 졸업자로서 대덕법계 이상 수지자 ④ 정규불교대학원 불교(승가)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수여자

구 분	자 격
사교과	① 중앙승가강원, 선암사전통강원, 보덕사비구니강원 사집과정 이상 수료자 ② 선암사 전통강원에 준하는 승가대학 및 전통강원 사집과 이상 수료자 ③ 본종 입적 승려로서 동방불교대학 승가학과, 불교학과 졸업자 ④ 정규대학교 불교(승가)학과 학사학위 이상 수여자

4 특전사항
① 신심 및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
② 월 1회 초기불교 특강(사교/대교 공통)
③ 서예 지도 : 매주 수요일 저녁
④ 대교과 졸업자 – 차 상위 법계고시 응시 시 논문제출 면제

5 등록금 : 60만원 (1학기)

※ 문의처 : 총무원 교무부 02-739-3450~4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고지 예정입니다.

중 앙 승 가 강 원 장 혜 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도 산

“말 많으면 나를 돌아볼 여유 잃는다”

불교TV 무상사 일요초청법회

파계사 주지 허운 스님

우리나라 속담에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는 표현이 있다. 말로는 그럴듯하나 실상은 좋지 못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말’ 을 두고 공자는 ‘삼사일언(三思一言)’ 을, 노자는 ‘지자불언 언자불지(知者弗言 言者弗知)’ 를 강조했다. 〈탈무드〉에서도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며 문제가 될 만한 말을 경계했다. 그럼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부처님은 “수행자는 법(法)에 대해서만 말하라” 고 당부했다. 대구 파계사 주지 허운 스님은 11월 27일 방영된 불교TV 무상사 일요초청법회에서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하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침묵은 단순히 고요함이 아닌 가장 사랑스러운 말을 하기 위한 긴장의 시간이자 바른 주장을 하기 위한 성실함” 이라고 설명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허운 스님은… 1972년 일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8년 고산 스님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7년 범어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하고, 1988~2002년 보림사 주지, 2002~2006년 대구 은적사 주지, 2005년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2006~2010년 동화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대구 파계사 주지를 맡고 있다.

〈사진=불교TV 캡처〉

속도로 번 성찰의 시간은 없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게다가 그 사람의 그릇, 또는 그 사람의 운명에 따라서 만남의 대상은 천차만별로 바뀌기도 하죠. 그러다보니 어떤 만남은 바람처럼 가볍기도, 바다처럼 깊기도 합니다. 만남에 대한 경험은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남은 그런 거죠. 아무리 상대방에게 요구해도 시원치 않고, 또 아무리 내 것을 주어도 후련하지 않은 것.

그래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 혹은 ‘어떤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까?’ 와 같은 물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의 인연이든 부모자식간의 인연이든, 아니면 스승과 상좌의 인연이든 우리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연에 매달려 자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는 자기 환경의 골격의 전모를 인식하기 어려운 데서 오는 상실감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계는 너무 열려 있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는 데 필요한 닫힘의 구조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닫힘이란 필요하지 않은 정보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사회를 두고 흔히 정보사회라고 말하죠. 여기에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정보를 접하다보니 스스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정작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별로 아는 게 없다는 걸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속도가 갖다 준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라는 것은 시간을 절약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속도가 만들어준 시간의 절약, 나를 돌아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저는 오늘 대구에서 서울을 올라왔습니다. 요즘 고속철을 이용하면 2시간도 안 걸려요. 정말 빨라졌죠. 그렇다면 과거 교통이 발달하기 이전에 걸어서 이동했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통이 발달해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지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늘어났습니까? 오히려 빨리 온 만큼 빨리 돌아가야 하지는 않았나요? 분명 시간을 아꼈는데 나에게 저축된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꼈다고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세요.

성스런 침묵으로 자신 돌아보라

〈아함경〉에 보면 출가한 스님들이 모여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대목이 있습니다. 불자님들도 법당에 오시면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죠? 그래서 법당 예절과 관련해 지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잡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서 전화통화를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럴 때 보면 ‘법당에 부처님이 계신다’ 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부처님이 있는 것 같아 왔을 텐데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죠. 부처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신다면 그 시간에 전화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만나 뵙고 싶은 부처님이 앞에 계신데 말이에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자기 골격의 전모를 보면서 여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옛 스님의 글 중에 ‘신심동조(神心洞照)에는 성묵위종(聖默爲宗)이다’ 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신령스러운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스러운 침묵이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요란하고 시비를 해서는 마음을 볼 수도 없고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도 어느 날 비구들이 모여 있는 처소를 지나가시면서 비구들의 잡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구들은 각자 출가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경책하셨습니다.

“수행자는 어떤 경우에도 법(法, 진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

이것은 곧 할 말만 하라는 겁니다. 진리에 관한 것만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침묵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밥을 지으면 뜸이 들어야 되고, 장을 담글 때도 심혈을 기울여 발효시켜야 장맛이 나잖아요. 참 침묵은 바로 가장 사랑스러운 말을 고르기 위한 긴장의 시간입니다. 단순한 고요함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바른 주장을 하기 위해 더듬고 있는 성실함이고요.화려하게 말을 잘 하는 건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조금 느리고 더디더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게 더욱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참 침묵이야말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도 생전에 우리에게 침묵을 당부하셨던 겁니다.

필요치 않은 정보로부터 멀어져
조용히 자아 성찰 시간 가지며
잡담 아닌 진리에 대해 말하고
욕심으로 인한 애달픔 버려라

만남에 필요한 예의 갖추자

요즘은 말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말이라는 것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만큼 달라지긴 하지만 세상에는 말로 인한 탈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껏 별 생각 없이 내뱉었던 자신의 말이 어땠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스스로도 더 좋은 말을 하기 위해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곧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몇 번의 특별한 만남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사람과의 만남, 둘째는 시대와의 만남, 셋째는 사상과의 만남, 넷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의 만남입니다. 이 중에서도 넷째 세상과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만나지 않는다면 통일을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고, 노동이나 개혁을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고,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만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 얘기를 하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만남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남을 충실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사 일요초청법회에서 가장 많은 불자님들이 법문을 듣고 싶어 하는 스님이 아마도 종범 스님일 겁니다. 저는 제 은사스님과 종범 스님을 오래 전부터 모시고 공부할 수 있었기에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종범 스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의 열쇠는 다른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범 스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장소에 나갈 때도 예의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랫사람을 만날 때는 10분 늦게 가거라. 윗사람을 만날 때는 10분 먼저 가거라.”

종범 스님은 약속시간은 꼭 지키는 것이 맞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아랫사람이 늦는다면 그 미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기에 윗사람으로서는 조금 여유 있게 약속장소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아랫사람은 조금 일찍 나와 윗사람을 맞이하는 예의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고요.

세월은 부드러운 회초리

세월은 참 거침없이 흐르기 마련이죠. 한때 마음속으로 품었던 ‘저 사람 좀 안 볼 수 없을까?’ 아니면 ‘저 사람 좀 안 나오면 안 될까?’ 와 같은 생각도 세월이 지나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먼저 바뀔 수도, 혹은 나 스스로 먼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가져다주는 일종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물론 모든 불자님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젊었을 때 소중히 여겼던 신념、가치、소신、야망 등등. 모두 갖고 계십니까? 이제와 돌아보니 다 덧없었던 것이잖아요.

요즘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는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다. 오로지 난 사랑만 있으면 된다” 고 반항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럴 때 부모로서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잔말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호통을 치거나 자식 때문에 복장 터져 죽겠다고 하소연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젊어서 안 그러셨나요? 사랑 말고는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다고 외쳤던 그 젊은 시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나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월이야말로, 시간이야말로 부드러운 채찍이고 회초리입니다. 단박에 어떤 깨달음을 주진 못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도록 부드럽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세계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또는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영혼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등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보류하셨습니다. 현재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해서 고통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보신 겁니다.

독화살의 비유에서도 부처님은 세상이 무한하거나 유한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독화살을 맞았음에도 이를 뽑지 않고 누가 쐈는지, 화살의 재질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독이 퍼져 죽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행이 곧 공불(供佛)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냥개비 하나, 이쑤시개 하나도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냥 생긴 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도 어마어마하게 큰일을 하려고 사람 몸을 받고, 부처님 법을 만난 겁니다. 늘 법당을 찾아와 기도를 올리는 불자님들을 볼 때면 많은 복을 짓고, 서원한 일을 이루시길 바라곤 합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사람 몸 받기를 원했는가’ 를 잊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 본원을 망각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게 없다고 애달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없는 것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본래 없는 걸로 애달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본래 있는 걸 찾도록 노력하세요. 충만한 마음을 찾아 자비 가득한 삶을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꽃이 지고난 뒤에야 봄이었음을 알고, 사람을 보내고 난 뒤에야 사랑이었음을 알고, 볼 수 없게 된 뒤에야 그리움에 한숨짓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인연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행을 게을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효행의 공덕을 강조한 〈대승본생심지관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세간에 무엇이 가장 부(副)하며 무엇이 가장 빈(貧)한가. 부모가 집에 있는 것이 부요, 부모가 있지 않은 것이 빈이다. 부모 있을 때가 한낮이요, 부모가 죽었을 때 해가 진 것이며, 부모 있을 때가 달빛이 밝은 것이고, 부모가 죽었을 때가 어두운 밤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부지런히 효행을 닦아서 부모를 효도로써 받들어 모시면 공불(供佛)하는 것과 복이 같을 것이니 이와 같이 부모의 은혜를 갚으라.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부자입니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오래된 앰프를『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大出力 믹싱앰프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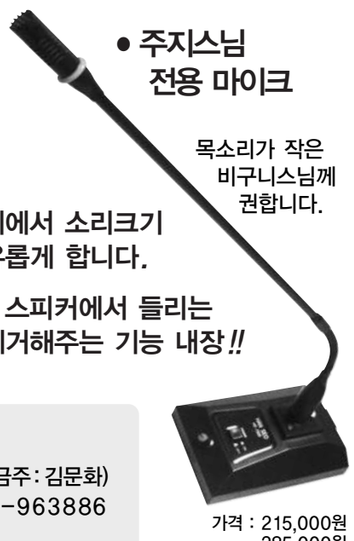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호흡 하나만 잘해도 삼매에 들 수 있어”

불교학연구회 ‘불교 수행전통과 호흡’ 추계학술대회

시대별 불교 속 호흡법 살펴
호흡수행 유래와 방법 공개


이필원 김치온 안성두 김영덕 김재성

불교학연구회는 12월 5일 동국대 경영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불교의 수행전통과 호흡’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100여 청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세미나에서는 총 5명의 전문가들이 나서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와 밀교에 이르기까지 호흡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필원 동국대 교수가 ‘초기불교의 호흡수행법’ △김치온 진각대 교수가 ‘유가사지론 성문지에서의 입출식관’, △이기운 동국대 교수가 ‘천태지관법문에서 호흡법의 수행체계와 수증’ △김영덕 위덕대 교수가 ‘진언과 호흡’ △김재성 능인불교대 교수가 ‘테라와다불교의 호흡수행’ 등을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로 나선 이필원 교수는 〈입출식념경〉을 중심으로, 응용명상프로그램인 MBSR, MBCT와 같은 프로그램과의 관련성을 고찰했다.

이 교수는 기존 호흡관련 연구와는 달리, 초기경전 속에 나타난 호흡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호흡수행의 유래와 방법, 수행론적 특징, 호흡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 그리고 심리치료적 효과로 내용을 분류하고 그동안 간과되어 온 호흡수행의 다층적이며 다양한 위상을 확인했다.

두 번째 발표로 나선 김치온 진각대학원 교수는 〈유가사지론〉 중 ‘성문지’의 입출식관의 내용과 5종 수습에 대해 고찰했다. 특히 ‘성문지’ 제2유가처에서 소연을 설명하는 4종 소연 중 두번째에 해당하는 정행소연의 5가지 관법에 주목했다. 정행소연이란 수행자의 나쁜 소행인 탐 · 진 · 치를 개선하기 위해 쓰이는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는 5종의 소연인 부정소연, 자민소연, 연생연기소연, 계차별소연, 출입식념소연 등을 논했다.

이에 대해 논평을 맡은 안성두 서울대 교수와 김재권 능인불교대 교수는 성문지 입출식관의 5종 수습이 수행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인 논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기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는 ‘천태지관법문에서 호흡법의 수행체계와 수증’에서 초기불교부터 대승까지 이르는 호흡수행법을 천태대사가 차제, 원돈, 부정의 체계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시켰음을 예를 들었다.

네 번째 발제자인 김영덕 위덕대 교수는 ‘진언과 호흡’을 통해 진언의 효과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진언에는 언어적 기능과 함께 호흡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 두 기능의 조절에 의해 수행의 체계를 잡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진언은 진언이 지니는 언어적 기능을 떠났을 때에 진언이 목표로 하는 궁극에 도달한다. 호흡마저 잊어버리고 파동에 일치할 때에 일체 분별을 초월해서 자재의 경지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 과정에서 호흡과 관련된 진언의 염송방법이 필요하며, 〈대일경소〉에서 이와 관련된 체계화된 차제적 수행을 살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재성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는 ‘테라와다 불교의 호흡수행’에서 테라와다불교는 〈입출식념경〉〈대념처경〉 등 초기경전과 청정도론에 의거하여 실천되고 있음을 말했다. 김 교수는 “마하시 전통은 호흡에 의한 복부의 움직임과 감각을 관찰하고 순룬 전통은 호흡이 닿는 곳의 감각과 온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순수 위빠사나로 실천된다. 레디 사야도 계통의 고엔까 수행에서는 근접삼매를 통한 위빠사나를 닦는 방법 실천된다. 파욱전통에서는 4선을 위한 사마타 수행법으로 호흡수행이 실천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인덕원과 인재양성 MOU


(왼쪽부터) 동국대 불교대학장 종호스님과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스님이 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국대(총장 보광)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사장 성운)이 인재양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종호)은 12월 9일 동국대 대각전에서 인덕원과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불교를 기반으로 한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 수여, 인턴십 및 사회복지 현장실습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장 종호스님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국대와 인덕원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도모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인덕원 이사장 성운스님은 “교육 및 사업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됐다”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불교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운스님은 속리산 법주사에 동진출가해 해인사, 화엄사 등 선원에서 수행했다. 1994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창립하는 등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 만해대상, 포교대상 등을 수훈했다.

인덕원은 1994년 삼천사 주지 성운스님이 지역복지에 대한 원력을 품고 세운 법인체다. 진관외동의 노인전문요양원을 근간으로 법인직영기관 20개, 위탁 운영기관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연구원, 제1차 불교특별강좌 개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태승)은 불자들의 교양 증진 및 폭넓은 불교이해 진작을 위해 2016년도 제1차 불교특별강좌를 서울 종로 돈화문로 한국불교연구원 강의실에서 실시한다.

이태승 한국불교연구원장(위덕대 교수)의 ‘인도철학과 불교’가 1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 8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9시에 열리며 원영상 한국불교연구원 연구위원(원광대 교수)의 ‘일본불교의 구조적 이해’가 1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8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에 각각 진행된다. 수강료는 교재비를 포함해 각 강좌당 10만원이며, 한국불교연구원 산하 구도회 소속 회원에게는 수강료 50%가 할인된다. (02)762-5624 **노덕현 기자**

도선사, 성보문화재 중심 사지 발간

옛 기록 및 청담대종사 관련 유물 집대성



서울 도선사(주지 도서)의 성보문화재를 중심으로 다룬 학술보고서 형식의 사지가 발간됐다.

지난 7월 도선사가 불교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해 5개월간 제작한 〈삼각산 도선사〉는 사찰관련 기록을 비롯해 성보문화재의 디지털 고화질 촬영 및 3D스캔, 중요문화재에 대한 학술논고 작업 등을 거쳤다. 또한 청담기념관에 수장하고 있는 청담대종사 관련 유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소장유물의 정확한 수량 및 보존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했다.

더불어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청담기념관 유품 전수조사 과정 중 발견 · 수습한 ‘관음보살좌상’과 복장물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연구소는 함께 수습한 조성발원문을 통해 관음보살좌상이 1670년에 조각승 승호 · 상륜 · 자운 · 응진 · 탁매에 의해 조성된 것을 확인했다. 이 스님들은 주로 호남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작품이 서울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도선사와 연구소는 향후 지정문화재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선사는 이번 사지 발간을 위해 여러 사찰의 사지를 비교 · 분석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지로써 계승할 부분은 담아내고, 현대적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성보물과 인연이 있는 불사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다.

책은 △삼각산 도선사 △도선사의 중요문화재 △도선사와 청담 스님 △도선사의 기록자료 △참고문헌으로 구성돼 있다.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은 “사찰의 기록을 남기는 일은 어떠한 불사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삼각산 도선사〉 발간이라는 대작불사를 통해 도선사 천 년의 역사와 성보문화재, 자비무적 정신이 후대에 올바로 전달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원효암 목조관음좌상, 삼존불 복원 가능”

12월 10일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학술대회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복장 유물은 조선시대 전통복장 방식을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범어사(주지 수불)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복장유물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12월 10일 부산 동아대 부민 캠퍼스 국제관 다우홀에서 개최됐다.

학술대회에서 동아대 석당박물관 정은우 관장은 기조발표에서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의 특징에 대해 고찰했다.

정 관장은 “목조관음보살상좌상의 복장 유물은 1674년 제작 이후 처음 개봉 된 것이다. 보관이 완벽하며 조선 시대 복장유물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면이 있다”며 “특히 불상 시주자, 보관 시주자, 좌대 시주자 까지 일일이 적혀 있다. 이것은 시주의 중요성을 강조한 불교의 정신을 추측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관장은 “복장 발원문을 분석하면 목조관음보살상은 1674년 함양 영은사에서 제작됐다. 원래 아미타삼존불로써 본존불은 함양 백운암에 계신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라며 “나머지 협시보살상 1구 역시 어느 사찰에 봉안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 이희정 문화재감정사는 ‘목조관음보살좌상연구’을 통해 원효암 목조보살좌상이 1674년 조각승 성조가 제작한 불상임을 설명했다.

이어 윤상기 동의대 교수의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복장전적’, 이수예 사찰문화재연구소 이사장의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의 과학조사와 보존처리 방안’ 등이 발표됐다.

특히 이수예 이사장은 방사선 촬영, 3D 정밀 스캔을 이용한 제작기법 복원, 수종분석을 통한 재질 파악, 성분 분석을 통해 목조관음보살좌상의 향후 보존처리방안을 제안했다.

하성미 기자

제5회 반야학술상 시상, 윤종갑 · 윤소희 박사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에서 수여하는 제5회 반야학술상 시상식

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에서 수여하는 제5회 반야학술상 시상식이 12월 6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개최됐다. 이번 해 수상자는 윤소희 박사와 윤종갑 부산대 교수다.

저역상(著譯賞)을 받은 윤소희 박사는 〈동아시아 불교의식과 음악〉이란 논문 제목으로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음악적 뿌리는 종교음악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논리로 한국 전통음악의 뿌리와 불교음악의 관계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윤종갑 교수는 〈반야중관 경론에서의 번뇌론〉이란 제목으로 논문상을 받았다. 국내 최초로 반야중관의 번뇌론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 중요성을 인정 받았다.

윤소희 박사의 〈동아시아 불교의식과 음악〉은 심사 대상에 오른 총 6편의 논문 가운데 선정 됐으며 윤종갑교수의 〈반야중관 경론에서의 번뇌론〉은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지인 〈동아시아불교문화〉 20~23집에 실린 논문 10편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지안스님은 “사찰은 수행과 신앙의 중심공간을 넘어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지식인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불교의 선법이 전달되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성인들의 역할이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개인지도 및 단체명상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광주불교산우회 회장 이취임식·송년회

제3대 회장에 김동수 씨 취임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 행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임원들.

광주지역 신행단체인 광주불교산우회(회장 오정의)는 12월 6일 광주수자타에서 '제3대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보응 스님, 부루나법사회 무등 스님, 혜공 스님, 아도 스님, 박혜자 국회의원,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해 회원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제3대 회장에 취임한 김등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회장님이 어려운 여건에서 단체를 만들고 이끌어 오셨다"며 "전임 회장님의 뜻을 이어 산우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정의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산우회의 발전을 위해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치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전임 회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전임 임원진에 대한 공로상품 증정, 1년간 활동한 회원들에 대한 개근상 수여(남 11명, 여 12명)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김등수 신임회장과 함께 할 임원단도 첫 선을 보였다.

고문진에는 오정의, 박정주, 유병권 회원을 위촉하고, 수석부회장에 김흥철, 부회장에 채승현, 한순오, 박행숙, 김효환, 양현호, 이재형, 노기욱, 김유진 등이 각각 임명됐다.

또한 정운천 총무팀장, 류윤숙 총무1팀장, 이경화 총무2팀장, 문영희 총무3팀장, 최경순 재무팀장, 정원기 산행이사, 김인석 산행1팀장, 김병택 산행2팀, 정인석 산행3팀, 김광석 감사, 윤한종 감사가 단체를 이끌게 됐다.

이어 산우회는 2015년 공양미 판매수익금 99만4000원을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 상임이사 혜공)에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 초대 신도회장에 이범식 씨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초대 신도회장에 이범식 前 광주불교교육원 이사장을 추대했다"고 12월 7일 밝혔다.

이범식 신도회장〈사진〉은 1992~2008년까지 광주불교교육원 공동설립 및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빛과숲포럼 사무총장, (주)장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범식 회장은 "광주불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광주지역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지역불교 활성화와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준비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이범식 신도회장 임명과 관련해 "이범식 신임회장은 지난 30여 년간 광주지역 불교단체를 묵묵히 후원해 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광주지역 불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꼭 필요한 분이라 선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는 내년 1월 9일 성도재일 연합법회에서 신도회장 취임행사를 갖고, 1월 중 지역 불교단체와 연대회의, 임원진 구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사회복지시설, 장수 만만세 잔치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은 12월 8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장수 만만세 잔치를 진행했다.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새기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사창경로당 성동호(92세) 어르신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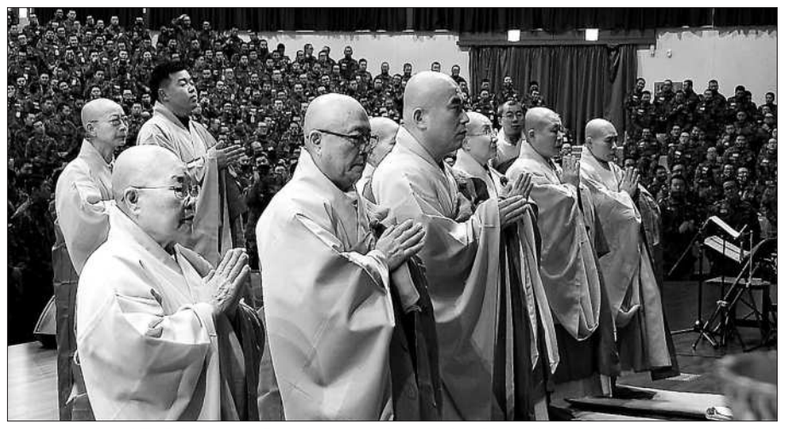
고창지역 경로당 활성화사업 17개 경로당 어르신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행사는 경로당 영상 상영에 이어 장수 만만세 축하 떡케이크 커팅, 만수무강 차 전달, 은빛복운구름중창단 공연, 초대가수 선민아 공연, 각설이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대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언제부턴가 웃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며 "어르신은 공경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경륜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고 어르신을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팔순잔치 대신 군장병 수계법회 후원

군산 흥천사 지환 스님 논산 호국연무사에서


논산 호국연무사를 후원한 군산 흥천사 회주 지환 스님(왼쪽 첫 번째)과 前 조계종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스님들이 12월 5일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상좌·신도와 함께 행사 지원
3500 장병 위해 발 벗고 나서
먹거리·단주 등 선물 마련해

평생을 수행과 전법에 매진해온 노스님이 팔순을 맞아 군 불자들의 수계법회를 후원해 지역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 팔순을 맞은 군산 흥천사 회주 지환 스님은 자신의 팔순잔치 대신 논산 호국연무사 수계법회를 지원했다. 대한불교보문종 종회의장 소임도 맡고 있는 지환 스님은 흥천사 신도들과 상좌스님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생신상 대신 논산훈련소 장병들을 위해 먹거리와 단주 등을 선물하며 군장병 수계법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흥천사는 12월 5일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법당에서 前 조계종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을 계사로 3500여 명의 훈련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광 스님은 삼귀의계와 오계를 설하고 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몸 건강하게 군 복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호국연무사는 수계법회에서 장병들을 위해 방문한 지환 스님에게 특별히 생일케이크을 선물하고 수계장병들과 함께 생일축하 노래를 합창하면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마다하고 수계법회를 후원한 지환 스님의 팔순을 축하했다.

지환 스님은 "생일은 혼자만의 것이지만 기쁨은 누구나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 신도들과 호국연무사를 찾게 됐다"면서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손자뻘 장병들이 늘 마음에 걸렸다. 항상 고맙고 잘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흥천사 주지 법희 스님, 삼보사 주지 법송 스님, 반야유치원장 법견 스님 등 지환 스님의 상좌스님들과 흥천사 불자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 후에는 퓨전 국악단 '락음국악단'의 공연이 펼쳐져 국가수호 임무에 지친 장병들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했다.

지환 스님은 1947년 12살의 나이로 전주 정혜사에서 혜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세등선원, 내원사, 삼선암, 윤필암등 제방 선원에서 안거하고 1959년 흥천사를 창건했다. 1987년에는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반야유치원을 건립했다. 지난해에는 라오스에 지환 던룸초등학교를 건립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이 빛고을나눔나무에 쌀과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소원정사, '자비의 쌀' 6200kg 전달

신도 십시일반, 연탄 2000장도

빛고을 광주에서 12년째 자비나눔을 이어온 작은 사찰이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는 지난 5일 경내에서 '제12회 연꽃향기 자비나눔 및 연꽃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연한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도계 스님, 최영호 남구청장, 임영진 신도회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전달한 '자비의 쌀'은 총 6200kg이다. 남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지역 차상위계층 세대에 3400kg,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에 2000kg와 연탄 2000장, 서구지역 결손가정에 600kg, 곡성 성륜사에 200kg을 나눠 전달했다. 또한 1년간 경전 사경 및 자비나눔에 대한 시상식에서 대상은 김정희, 최우수상 손미정, 우수상 김미성, 장려상 최수연·김은숙, 봉사상 강민우 불자 등이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황애숙 작가의 반야심경 글씨와 금일봉이 수여됐다.

도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늘 부처님과 같은 나눔의 마음을 갖고 주변 이웃들과 함께한다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실천하는 것"이라며 "오늘은 관세음보살, 내일 지장보살, 다음날은 대세지보살과 같은 마음으로 늘 살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원정사는 주지 도계 스님이 전국 180여 개의 사찰을 직간접적으로 후원을 하며, 어려운 스님과 사찰에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붓다로살자' 실천도량 소외이웃 지원

사랑의 연탄·김장나눔 등

전라북도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인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과 군산 상주사(주지 도연), 전북불교네트워크(공동대표 유지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김치와 연탄을 전달했다.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 불자들과 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 청소년들은 12월 5일 자연음식문화원 실습실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12월 3일부터 진행된 이번 김장김치 나눔행사에는 도연 스님을 비롯해 전북불교네트워크 자원봉사자, 금선암 신도회, 금선암 십선회, 청소년 생명평화 실천단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로 마련된 약 750kg의 김장김치는 지역의 홀몸어르신과 조손가정 등의 소외계층과 사회단체에 전달됐다.

또한 전주 금선암 신도회(회장 김영돈)는 같은 날 전주시 삼천동 지역에서 연탄으로 겨울을 보내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3곳을 방문해 15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금선암 신도회 불자들이 직접 배달에 나선 연탄배달 행사는 신도회에서 별도로 기금을 마련해 진행했다.

김영돈 회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동참해준 불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음식문화원과 자연음식동아리 '더함다함' 회원들은 소외계층을 위한 밑반찬 나눔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금선암, 군산 상주사, 전북불교네트워크는 12월 5일 자연음식문화원 실습실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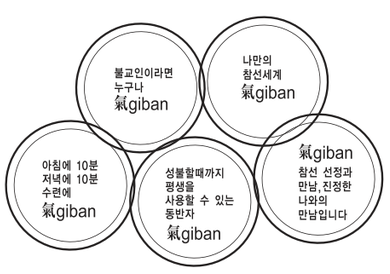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와 함께 하는 한해의 마무리”

부산불교연합회, 12월 9일 ‘2015 송구영신한마당’

동지는 불교를 대표하는 문화 중 하나로 작은 설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지를 지내는 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동지의 전통문화를 되살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불교문화축제가 열린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는 12월 22~31일 부산시민공원 내 거울연못 일대에서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5 부산송구영신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연말마다 부산시민을 위한 송구영신 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사가 열리는 부산시민공원 지역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에도 하야리아 부대라고 불리며 미군이 주둔했던 곳이다. 1995년에 즈음하여 캠프 하야리아 이전 및 부지 반환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단체가 결성되면서 2006년 부지를 폐쇄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의 역사를 대표하는 곳 가운데 하나다.

넓은 평지로 구성되어 있어 행사 진행이 용이하며 부산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편리하다.

행사는 12월 22일 동지를 맞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동지 팥죽 나누기를 시작으로 거울연못 일대에서 12간지를 상징하는 대형등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등, 초롱등, 유등 전시가 진행된다. 아울러 12간지를 이용한 개인 소원지 붙이기, 다양한 포토존, 마술, 노래, 다양한 레퍼토리를 이용한 공연도 진행된다.

부산시민공원서 22~31일 개최
전통등 전시 등 다양한 행사 진행
“동지 문화 살리는 불교행사로”


송구영신 한마당에 설치 될 12간지등. 전통등 전시와 함께 다양한 나눔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거울연못에서는 연꽃등을 물위에 띄우고 연꽃밭을 장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산의 도시브랜드 강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를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도 마련된다. 또 자비의 동전 모으기 행사도 진행된다. 행사 중 모금된 성금은 사회나눔활동에 사용된다.

부산등축제조직위원회과 부산시설공단은 “일 년 중 가장 밤이긴 동지에 등을 밝혀 주위를 환하게 하고자 한다”며 “부산시민 모두가 연말 각자의 액운을 떨치며, 이웃에게 온정을 베푸는 따뜻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부산등축제조직위(위원장 이윤희)와 부산시설공단(이사장 박호국)은 12월 9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양 단체는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함께 공유하고 상호협력한다.

부산등축제조직위는 부산시민공원에서 송구영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전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종교를 넘어 평화를 기원합니다”

공동선 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기도 · 음악회 개최


6대 종교지도자들이 함께 화합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6대 종교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세계 평화와 종교 화합을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동선 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정여)는 12월 7일 부산 이기대 성당에서 ‘제21회 생명존중과 평화정착을 위한 기도회 및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21년 전 아프가니스탄 난민 돕기를 시작으로 매년 열리고 있는 ‘기도회 및 음악회’에는 정여, 월강, 성담, 정오, 보혜 스님 등 스님들과 김계춘, 김승주 신부 및 황성민 목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정여 스님의 인사말과 김승주 신부의 환영사, 기도회가 이어졌다. 이어 2부 음악회에서는 이기대 성가대의 오르간 독주로 시작해 두나미스 앙상블, 청공 중창단, 쁠레나 앙상블 등의 무대가 펼쳐졌다.

회장 정여 스님은 “종교를 초월한 사랑과 자비의 이 음악회는 음악을 통해 종교간의 영적 교감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오늘 기도회 및 음악회에서 함께한 인연을 계기로 자신의 신앙에 더욱 충실하고 이웃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도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종교인이 되자”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평생 웃는 모습 떠올리며 중생살림에 회향”

영천 은해사 12월 3일 동곡당 일타 스님 16주기 다례재 거행


일타 스님 다례재에는 은해사 조실 혜인 스님,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12월 3일 경내 템플스테이 수련관 육화원에서 동곡당 일타 스님 16주기 추모다례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일타 스님 부도탑에서 반야심경 봉독, 조사전 참배 등이 진행됐으며 다례재에서는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의 일타 스님 행장소개와 종사영반과 헌다 헌화가 진행됐다.

추모다례재에는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조계종 어산장 동주 스님,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 제주 선림사 진학 스님, 옥천사 지성 스님과 은해사 조실 혜인 스님, 회주 법타 스님 등 500여 대중이 참여했다.

다례재에서는 은해사 조실 혜인 스님이 “평생 웃는 모습으로 살아가신 일타 스님을 생각하며 포교와 중생살림에 수행을 회향하자”고 당부했다.

설정 스님도 “일타 스님은 계율의 참실천이란 가르침을 주시고 상이 없는 모습으로 평생 사신 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타 스님은 1942년 통도사 고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조계종 전계화상과 원로의원을 지내며 후학양성에 힘쓰다 지난 1999년 세수71세, 법랍58세로 열반에 들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구평사, 자비나눔 실천 릴레이 ‘눈길’



부산 구평사 나누우리 봉사단이 ‘자비나눔 실천도량 4080 복지 릴레이’에 동참했다.

‘자비나눔 실천도량 4080 복지 릴레이’는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이 주축으로 전국의 나누우리 봉사단이 함께 펼치고 있는 복지 사업이다. 나누우리는 대구 혜인정사, 전주 분원 실상사, 인천분원 월천사 등 총5회에 걸쳐 자비나눔실천 4080 릴레이 연탄 및 백미나눔을 진행하고 있다.

구평사 나누우리 봉사단은 12월 9일 부산 사하구 구평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연탄 4080장을 10가구에 전달하고 백미 2080kg를 208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 릴레이는 주식회사 복성산업개발의 박금태 회장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하성미 기자

부산 홍법사, 깐따모레 정기연주회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깐따모레 정기연주회가 12월 8일 부산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깐따모레는 홍법사에서 100세 시대를 맞아 계층 포교를 위해 2011년에 창단된 합창단으로 부부, 친구, 가족들이 함께 동참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혼성 합창단이다.

정기연주회는 ‘좋은인연’, ‘훨훨 날아요’, ‘항해’, ‘한계령’ 등 귀에 익숙한 가곡과 찬불가 등 공연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조안나의 바이올린과 이하룡, 박린가의 플룻 특별공연이 이어졌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합창을 통한 포교는 감동과 함께 많은 대중을 이끄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며 많은 동참을 독려했다. 깐따모레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홍법사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다. 하성미 기자

연화조계종 11월 21일 창종법회



사단법인 대한불교연화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영천 정람사(주지 혜법)는 11월 21일 창종법회를 봉행했다.

은해사 영천포교당 묘청 스님 등 300여 대중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종정 보명 스님의 진산식과 총무원장 혜법 스님의 취임식 등이 진행됐다.

종정 보명 스님은 “늙음과 수명은 막을 수 없고 명예와 재물은 아침이슬 같으니. 부지련히 정진하여 부처되어 중생제도에 전념하자”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혜법 스님은 “어두운데 있는 보배는 등불이 아니면 볼 수가 없고, 불법이란 남을 위해 설하지 않으면 슬기있는 사람이라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강서 경찰서 경승실, 점안 법회

부산강서구불교연합회(회장 운암)는 부산 강서 경찰서 경승실에 12월 7일 석가모니 부처님 복장 봉안과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점안법회에는 강서구불교연합회장 운암 스님, 강서경찰서 경승실장 자인 스님, 박도영 강서경찰서장 및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운암 스님은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가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셨다”며 “경찰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활동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도영 강서경찰서장도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부처님을 모시게 되어 뜻 깊다. 부처님의 가피로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업무에 충실 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보련기획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 월 등



공 단 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2016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308㎜)
29호 12절 13매 (257×263㎜)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감각 벗어나 그대로의 실재를 보라

붓다의 눈으로 본 세계

실재와 개념 ㊤



위오기
공주대 교수

실재는 무엇이며 단지 개념은 무엇인가? 또는 어떤 것이 실재하는가? 이러한 오랫동안 회자되는 질문들을 우리와 상관없는 철학자들의 사색꺼리들로 치부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들은 우리 삶의 매순간들과 관련 있는 것들이다. 2,500여 년 전 붓다는 이들 질문들에 대해 명확히 깨달았고 한없는 인내와 정열로 그와 같은 지혜들을 개발하는 방법을 설하셨다. 우리는 그의 완벽한 가르침들이 그대로 남아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아주 특별한 행운을 누리고 있다.

본고는 비구니 수진 보리한와나케(Sujin Boriharnwanaket) 스님이 저술한 빠라마타 담마 연구(A Survey of Paramattha Dhammas)의 일부분으로 니나 반 고로콤(Nina van Gorkom)에 의해 〈REALITIES AND CONCEPTS-The Buddha's explanation of the world〉란 제목으로 영역된 책의 핵심적 내용만을 추려 요약한 것이다. Sujin Boriharnwanaket는 50년간 아비담마와 위빠사나에 대해 강연해 오고 있다. 그녀의 강연은 태국의 20여개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되어 비구, 비구니와 재가자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있다.

우리는 포도, 망고 같은 과일들의 그림을 볼 수도 있고 실재 포도나 망고를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개념인가? 산이나 바다 또는 나무 등의 그림을 볼 때 그것이 그림이라는 것을 안다. 우리가 실재 산이나 나무를 볼 때 이것들이 개념이 아니고 실재라고 믿을까? 이름은 명백히 개념이다. 왜냐면 현상의 의미나 특징들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물을 아직 명명하지 않았거나 이름이 없다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전체 또는 덩어리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비록 그것의 의미를 표현할 어떤 용어들이나 언어들을 모른다해도 그것이 나타날 때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명명하지 않고도 그것이 나타날 때 무엇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개념으로 아는 것이다. 과일의 그림만 볼 때나 실재 과일을 볼 때 그림과 실재 과일 둘 다 개념이다. 개념(빤 띠)은 궁극적 실재(빠라맛타 담마)가 아니다. 우리가 보아 온 바와 같이 개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그것은 전체 혹은 덩어리라는 생각일 수 있고 그것이 실재이든 아니든 어떤 것에 대한 용어이거나 이름일 수가 있다. 이 같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두 종류의 개념이 있다.

1. 명칭개념(나마 빤 띠)은 알게 하는 것 즉, 사물의 의미를 알게 만드는 것이다. 대상에 주어진 이름들.

2. 사물개념(앗타 빤 띠)은 알게 되어진 것 즉, 명칭 또는 개념으로 알려진 대상들.

실재 과일과 과일의 그림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보는 동안 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존재나 사람 또는 다양한 사물들이 아니다. 포도의 그림을 보든 실재 포도를 보든 간에 눈을 통해서 단지 색깔만 나타난다. 나타나는 그림과 실재 포도 모두 마음의 문의 인식과정의 마음에 의해 경험되는 개념인 대상들일 뿐이다.

"우리가 알아차림을 개발할 때 실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니 계속해서 지혜를 개발해야 한다"

궁극적 실재는 궁극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각각 고유한 성품들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음(-빠), 마음부수(쩨따시까)와 물질(루빠)이 있다. 그것들은 조건 때문에 생기고 다시 빠르게 사라져 버린다.

-빠는 대상을 지각하는 찰나의 마음이다. 예를 들면 눈의 의식은 색을 경험한다. 한 번에 하나의 마음이 있으며, 여기에 각각 고유한 기능을 하는 여러 개의 마음의 성질인 정신적 요소들인 마음부수들이 함께 동반된다.

루빠는 물질적 현상(물성, 물질)으로 인식대상이 될 뿐 인식능력이 없어 아무 것도 알지를 못한다. 만약 연이어서 재빨리 생멸하는 궁극적 실재인 마음, 마음부수와 물질의 성품들을 모른다면, 단지 관습적 실재인 개념만 알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연이어서 생기고 멸하는 마음과 물질을 항상 존재하는 것들로 여긴다.

색, 소리, 냄새, 맛은 각각 눈, 귀, 코, 혀의 감성의 대상물질이며 감촉대상물질인 추위, 열기, 부드러움, 단단함, 움직임, 지탱 등은 몸의 감성에 의존하여 일어나는 마음들의 대상이 되는 실재인 물질이다.

감성의 문 과정과 마음의 문 과정 사이에 생명연속성(바왕가) 마음(이것은 오감성의 문과 마음의 문에 충돌하는 대상을 경험하지 않고 생의 최초 마음인 재생의식과 같은 동일한 대상을 인식한다)들이 있고 난 후, 감촉대상을 경험하는 마음의 문 인식과정의 마음들이 있다. 이렇게 다섯 종류의 감성대상들은 각각 상응하는 감성의 문과 마음의 문을 통해 경험된다. 그들은 육 문인 안문, 이문, 비문, 설문, 신문, 그리고 마음의 문을 통해 경험된다.

또 다른 종류의 대상들, 소위 정신적 대상이라는 것이 있다. 이 종류의 대상들은 마음의 문을 통해 경험될 수 있다. 6가지 종류의 정신적 대상들이 있다. 오감성 물질(감성들), 16 미세한 물질(수쿠마 루빠) 마음, 마음부수, 닙바나, 그리고 개념이다. 앞의 다섯 가지 종류의 정신적 대상들, 즉 감성물질들, 미세한 물질들, 마음, 마음부수, 닙바나는 궁극적 실재(빠라맛따 담마)이다. 마지막 다른 하나는 개념으로 궁극적 실재가 아니다.

감각의 문의 인식과정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이에 몇 개의 생명연속성 마음들이 있고 난 후 마음의 문의 인식과정의 마음들이 있게 된다. 감각의 문의 인식과정 후에 일어나는 마음의 문의 첫 번째 일련의 인식과정의 마음들은 막 사라진 대상만을 경험하지 개념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일련의 마음의 문의 인식과정의 마음들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인식과정 마음들로 구분된다.



보리수선원에서 위빠사나 지도를 받는 재가 수행자들. 우리는 수행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실재들을 알아야 한다.

한 찰나의 마음의 문에 충돌하는 마음과 일곱 찰나의 자와나 마음들과 두 찰나의 등록 마음들이다. '자와나'는 문자적으로 '속으로 뛰어듬', 충돌을 뜻한다. 자와나 마음들은 감성의 문 인식과정에서 발생하며 그들은 "대상 속으로 뛰어든다. "마음들의 한 과정에서 일곱 개의 자와나 마음들이 보통 발생하며 아라한이 아닌 자들의 경우 선한 마음이거나 불선한 마음이다. 아라한은 선한 마음이나 불선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그들은 작용만 하는 마음을 가진다.

첫 번째 마음의 문의 인식과정의 일련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이에 몇 번의 생명연속성마음이 있고 나서 다른 일련의 마음의 문의 인식과정마음들이 있는데 이들은 감각대상물질 대신에 개념, 예를 들면 모양과 형상 또는 어떤 것의 "전체"로써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가질 수 있다.

이 일련의 의문 인식과정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나서 그 사이 생명연속성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몇 차례의 마음의 문의 인식과정의 마음들이 뒤따른다. 그들이 사물의 의미를 알고 그들이 용어들과 이름들을 안다. 상이한 일련의 마음들의 사이에 생명연속성 마음들이 있다. 우리가 사람 또는 다른 것들을 볼 때 마음은 물성이라는 궁극적 실재가 아닌 개념을 경험한다. 눈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 실재인 대상은 다양한 색깔뿐이다. 마음의 문의 인식과정의 마음들이 존재,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물들을 알 때, 마음들은 대상으로서 개념들을 가진 것이다. 그들은 특정 물건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마음이 궁극적 실재를 대상으로 가질 때는 거기에는 존재들도 사람도 사물도 없고 자아도 없다. 이 순간에 실재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연이어 차례차례로 너무 빨리 이어지므로 마치 우리가 선풍기와 같은 사물을 본다고 여긴다. 팬이 돌아가고 그것을 우리는 물질의 움직임을 본다고 여긴다. 개념을 대상으로 가진 많은 일련의 마음의 문의 인식과정의 마음들이 있어난다. 이와 같이 궁극적 실재의 특성들은 숨어 버린다.

무명은 매우 뿌리를 깊게 박고 있어 매우 견고하여 이것이 우리를 관습적 진리에 집착하게 하여 실재들을 사물, 존재 그리고 사람으로 여기게 한다. 재생의식 순간부터 생기고 사라지는 정신적 현상과 물질적 현상이 일생 내내 연이어 계속된다.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떠나서 이 세상에 나오면 육문을 통해 감각대상들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보고 그리고 몸의 감각을 통해 차가움과 더움을 경험한다. 실재들은 나타나고 사라지며 내내 연이어 계속되어지나 그것들은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 '어떤 것'으로 오인된다. 우리는 사물들을 덩어리로 뭉쳐지거나 전체로 보는 개념에 집착한다. 심지어 사물의 관습적 용어들을 아직 모를 때부터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 아직 말을 못하고 언어로 표현되는 사물의 의미들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들과 동물들까지도 '전체'로의 개념들을 안다. 아이가 크게 되면 개념들을 나타내는 언어로 사용되는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배운다. 이와 같이 아이들은 관습적 진리에 익숙하게 된다.

남성과 여성의 전체적 외관에 집착할 때는 그 대상은 실재가 아니다. 남자 또는 여자를 본다는 것을 안다할 때 눈을 통해 나타나는 실재를 알고 있지 않고 단지 눈을 통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개념인 상(니미따)을 가지는 것이다. 남자 또는 여자의 전체상은 오염의 근원이 된다. 우리는 의도(찬다 라가)의 힘을 통해 그 이미지를 매력적인 것으로 여긴다. 벨트 같은 개념을 좋아할 때 그 벨트는 매력적인 상으로 나타난다.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욕망에 의해 지배되게 된다. 만약 그 벨트가 아름답지 않다면, 그것이 매력적인 상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눈을 통해 나타나는 색상 때문에 매력적이고 매력적이지 않은 다른 상들이 있게 된다. 세부상도 번뇌가 나타나는 조건이다. 어떤 이가 벨트를 좋아할 때 그는 전체상인 이미지, 그리고 세부상들을 좋아한다. 만약 모든 벨트들이 같고 다양성들이 없다면 세부상들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종류들의 벨트들이 있고 그들은 세부상들에서 다르다. 그 세부적인 것들이 다른 종류의 번뇌를 일으키는 조건이 된다.

눈을 통해 나타난 것은 사라지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나는 마음의 인식과정의 마음들이 개념을 안다. 지혜는 있는 그대로의 실재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눈의 문을 통해 나타나는 안식의 대상물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한다. 그것은 대상물성을 경험하는 것은 마음이 개념을 아는 순간과 다른 순간임을 알아야 한다. 이 같이 우리는 나타나는 안식대상이 존재, 사람 또는 사물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집착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여기에 남자, 여자, 존재, 또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알 때 그 대상은 마음의 문을 통해 알게 된 상 또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가 바로 알아차림(사띠빠따나)를 개발할 때 우리는 마음과 물질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깨닫기 위해 실재들의 성질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대로 알아야만 한다. 실재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눈, 코, 귀, 혀, 몸의 감성과 마음을 통해 실재들이 나타날 때 계속해서 지혜를 개발해야만 한다.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의장 석무공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부산 제2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2총무원 혜광사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차별 없는 경지’, 詩로 노래한 문장가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⑨ 연천 홍석주

연천 홍석주(淵泉 洪奭周, 1774~1842)은 주자학에 밝았던 조선 후기의 명망 있는 권문세가이다. 그의 아버지는 홍인모(洪仁模)와 어머니 영수합 서씨(令壽閤 徐氏)는 모두 문장에 뛰어났다. 그의 아우 홍길주(洪吉周1786~1841)는 사마천에 견줄 만한 문장가라 칭송된 인물이었고 홍현주 또한 시문에 능한 문장가로, 정조의 둘째 딸인 숙선옹주와 혼인하여 영명위(永明尉)로 봉해졌으니 그의 집안에 문벌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원래 그는 노론, 낙론 계열인 김창협과 김원행의 학문을 이었으며 연경을 다녀온 후 청초(淸初)의 고증학자 고염무(顧炎武, 1613~1682)의 학문에 깊이 매료된다.

정주학(程朱學)에 기초를 둔 유학자였던 그는 노장사상에도 관심을 두어 〈정노(訂老)〉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이뿐 아니라 그의 천재성은 이미 약관의 나이도 되기 전에 대학자로서의 기틀을 갖춘 인물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내력과 학문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승려들과도 폭 넓게 교유한 흔적은 그의 시문을 통해 드러나는데 아우 홍현주와 교유했던 초의 스님뿐 아니라 도갑사 승려인 견유(見留)와 대둔사(현 대흥사) 승려 융신(戎身)과 지헌(指軒), 그리고 승제(勝濟) 스님 등과도 깊이 교유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도갑사와 대둔사, 송광사 같은 사찰을 유람하면서 남긴 수편의 시문이 전해진다. 그러므로 그는 정주학에 매진한 선비였지만 노장학이나 공사상뿐 아니라 불교의 교리에도 깊이 천착했던 유학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박학다식하여 그가 읽었던 장서만도 1,600권이나 되었다고 하고 그가 읽은 방대한 양의 책들을 분류하여 〈홍씨독서록(洪氏讀書錄)〉이라 명명했다고 하니 이는 그의 학문적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특히 〈홍씨독서록(洪氏讀書錄)〉의 서문에 “내가 일찍이 읽어 감명을 받은 것과 대개 읽고 싶었으나 읽지 못한 책을 골라 그 제목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개요를 기록했다”고 하였고, 동생 헌중(憲中)이 자신처럼 책을 읽어 요령을 얻지 못할까 염려해서 이 책을 지었다는 명분도 또렷이 하였다.

한편 그의 불교에 대한 이해는 월출산과 대둔사를 방문했을 때 지은 시문을 통해 드러난다. 특히 그가 월출산 산정(山頂의 상견성암(上見性庵)에 올라 희작(戱作)한 시에는 그의 불교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출은 부처의 마음이고(月出爲印心)
높은 산봉우리는 곧 견성이라(峰高名見性)
어찌하여 견성인가(如何是見性)
몸이 무상등에 있어서라네(身在無上等)
일체의 모든 고해의 상이(一切諸苦相)
울타리를 잡고 다시 돌다리로 이어졌네(攀蘿復緣)
점차 발꿈치를 가두지 않는다면(稍不牢脚)
천 길의 함정으로 실추되리라(失墮千尋穽)
이미 만들어진 후에는(及其旣造後)
절로 차별 없는 경지를 이루네(亦自無別境)

만약 차별의 경지를 구한다면(若更求別境)
이는 대승의 경지라 말할 수가 없네(是不名上乘)
즐겁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無喜故無怖)
동(動)을 잊었기에 정(靜) 또한 잊었네(忘動亦忘靜)
구름이 걸친 숲은 보리가 아니며(雲林非菩提)
바다에 뜬 달도 밝은 거울이 아니라(海月非明鏡)
코끼리 털에 파리를 불자로 터니(象毛蠅拂子)
유리구슬이 이마를 뚫네(琉璃珠貫頂)
나의 법안으로 보니(我以法眼觀)
모든 경계가 공하네(空諸所有景)
어찌 그릇된 생각으로 꾸미리오(何 妄身)
금벽이 서로 비치네(金碧交輝映)
함께 해탈하는 것만 못하니(不如俱解脫)
다만 맑고 고요한 물에 있을 뿐이라(æQ存水淸淨)

연천이 앞에 인용한 시를 지은 것은 두륜산과 송광사를 유람할 무렵인 듯하다. 당시 그는 이곳을 유람한 후 ‘두륜산유기(頭輪遊記)’와 ‘송광유기(松廣遊記)’를 짓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의 유람시기의 선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암의 월출산에 올라 지은 것이 분명하다. 월출산 산정에서 지은 시에는 “월출산 산정에는 암자가 있는데 이름이 상견성이다. 무심이 게어(偈語)를 짓는다(月出山頂有庵 名曰上見

정주학 유학자로 노장에도 관심
대흥사 융신·지헌 등과 깊이 교류
장서 1600권 소장… 불교에 박식
송광사·도갑사 등 유람한 시 남겨

戱作偈語)”라고 하였으니 상견성암의 승려들과 선을 주제로 담소했으리라 짐작된다.

이에 앞서 그는 ‘밤에 월출산 도갑사에서 묵으며(夜宿月出山道岬寺)’라는 시를 지었는데 이 시에 “관등 하나가 항하를 비치니(夜宿月出山道岬寺)/ 산사의 차가운 종은 소리 내어 답 하네(山寺寒鍾答鼓 ”라고 하였다. 따라서 앞에 인용한 시는 그가 도갑사에 묵은 후 월출산을 올랐거나 아니면 월출산에 오른 후 도갑사에서 하루 밤을 머물렀을 것이다.

아무튼 그가 ‘심인(心印)’이나 ‘견성(見性)’, ‘법안(法眼)’, ‘보리’ 같은 불교 용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는 점이다. 특히 초구(初句)에 월출(月出)은 그가 오른 산 이름으로 해인(海印), 심인(心印)에 배대했다는 점에서도 그의 불교에 대한 이해는 그 심연이 깊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물론 그의 박학다식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이미 1600여 권을 넘는 방대한 독서량을 보였던 그이기에 해박한 불교의 이해는 조선 후기 불교를 만난 유학자들의 공통된 정서이기도 하다.

한편 그가 도갑사를 떠날 때에는 비가 내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갑사를 떠나야만 했던 전후 사정이 알 수는 없지만 “앞길엔 기이한 볼거리가 있으니(前行有奇觀)/내 수레 더 머물 수가 없네(未可淹吾駕)”라고 말한 연천의 여유는 조선 선비의 기품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가 도갑사를 출발하며 산승 견유에게 답한(冒雨出道岬 答山僧見留者) 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보 제144호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구정봉의 서북쪽 암벽을 깊게 파서 불상이 들어 앉을 자리를 만들고, 그 안에 높이 8.6m의 거대한 불상을 만들었다. 홍석주는 월출산 등을 유람하며 불교에 관한 시 몇 수를 남겼다.


불교에 심취했던 홍석주는 정주학을 기초한 유학자였다. 그의 저술 〈학해(사진 왼쪽)〉과 친필 글씨.(사진 오른쪽, 한국학 중앙연구원 소장)

묵은 구름이 산으로 돌아가지 않아도(宿雲不歸山)
맑은 샘물이 끝없이 흐른다네(石泉澄餘瀉)
산승이 봄나물을 잘라다가(山僧剪春蔬)
비바람 부는 밤, 나를 위로하였네(慰我風雨夜)
아득한 진흙길, 실로 건너기 어려운데(脩塗信難涉)
후한 뜻에 거듭하여 감사하네(厚意重堪謝)
앞길엔 기이한 볼거리가 있어서(前行有奇觀)
내 수레 더 머물 수가 없네(未可淹吾駕)

도갑사 산승은 봄나물을 잘라다가 정갈한 공양을 준비했을 터이다. 비바람 몰아치는 저녁, 따뜻한 소찬은 속객(俗客)을 위로하기에 충분한 공양물이다. 더구나 산승의 신실한 성의는 연천의 심신을 흡족하게 했으리라. 그러기에 그는 “후한 뜻에 거듭하여 감사하네(厚意重堪謝)”라고 말한 것이다. 시의 묘미는 이처럼 함축적이다. 따라서 그는 사람의 마음을 거쳐 드러나는 것이 시라고 말한 바가 있다.

이런 그의 견해는 ‘답김평중논문서(金平仲論文書)’에 “대저 시란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氣)에서 나온다. 어디에서 발하는가. 정에서 나온다. 기는 하늘에서 나오고 정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하늘과 사람의 오묘한 느낌 중에 (시) 이것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없다(夫詩奚出乎 出于氣 奚發乎 發于情 氣出於天 情出於人 天人之妙感 莫是先焉)”라고 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여기에서 천(天)은 이(理)나 도(道)를 말한다.

“기는 하늘에서 나오는 것”라 하였다. 결국 시란 도에서 흘러나와 사람의 마음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가 “마음 밖에 문이 없고 도 밖에 마음이 없다(心外無文 道外無心)”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의 시작론(詩作論)이기도 하다.

한편 불교의 공(空)에 대한 또렷한 그의 인식은 대둔사의 융신과 지헌 두 스님에게 써준 시에 나타난다. 당시 그는 대둔사의 두 스님과 선을 담론했을 터다. 그러기에 마침 도갑사에서 지은 게어(偈語)를 고쳐 두 수를 지었다고 했고, 또 이별할 때에 네 게어(偈語)를 지어 두 스님에게 주었다(留宿大芚寺 與戎身指軒兩老宿談禪 遂就道岬所作偈語 曏秖成兩首 又別作四偈以贈之)고 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공에 대한 인식은 대둔사 승려 융신과 지헌 스님과의 담론에서 그 규모를 드러낸 셈이다. 두 스님에게 지어 준 시 중에 두 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밥을 다 먹고 나서(飯食旣畢已)
발우를 닦은 후 미타를 염불하네(撲鉢念彌陀)
빈산엔 사람의 자취마저 끊어졌는데(空山不見人)
물 흐르고 무심히 꽃이 피었네(流水與閒花)
겨울에도 보리수는 푸르고(冬靑菩提樹)
바다에 뜬 달, 명경대로다(海月明鏡臺)
본래 일물도 없는 것인데(本自無一物)
어찌 먼지를 닦으려 애쓰리오(何勞拭塵埃)
물을 색이라 말한다면(若道水是色)
잡아도 자취가 없고(執之不見跡)
만약 물을 공하다 말한다면(若道水是空)
보면 곧 색이라(視之卽有色)
색도 아니고 또 공도 아니라(非色亦非空)
어찌 분별이 일어날까(何更起別見)
서강의 강물을 다 마셨으리니(吸盡西江水)
그대는 한 바퀴 돌려주시길(請君下一轉)

연천의 불교의 정곡을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본래 일물도 없는 것인데(本自無一物)/어찌 먼지를 닦으려 애쓰리오(何勞拭塵埃)”라고 말한 것이다. 더구나 그의 시에는 혜능선사의 게송인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도 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본래에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서 티끌이 일어나리오(菩提本無樹 明鏡亦非臺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라고 한 것과 상통한다. 따라서 이는 연천의 불교에 대한 박학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인 셈이다. 실로 연천은 불교의 정수를 익히 알고 있었던 유학자라 하겠다. 그의 초명은 호기이며 자는 성백(成伯), 호는 연천(淵泉)이다. 1795년 문과에 급제한 후 직장, 검열 등을 역임하는 등 그의 환로(宦路)는 비교적 순탄하여 이조 판서, 양관대제학, 좌의정에 오르기도 하였다. 세손(世孫)의 사부(師傅)로, 헌종과 인연을 맺은 후 세도정치에 참여했다. 1836년 남응중의 모반에 연루되어 탄핵을 받고 삭탈관직(削奪官職) 되었다가 1839년에 다시 복권되어 영중추부사에 올랐다. 그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연천집(淵泉集)〉, 〈학해(學海)〉, 〈영가삼이집(永嘉三怡集)〉, 〈동사세가(東史世家)〉, 〈학강산필(鶴岡散筆)〉, 〈상서보전(尙書補傳)〉 등이 있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마감재
방열판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www.jjunheating.co.kr
서울 : 010-5097-8291
부평 : 010-2310-0404
의정부 : 010-5759-8804
남양주 : 010-9183-9729
광명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올바른 길 등진 삼매의 힘은 오히려 경계해야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㉙ 삼매진화에 고전하는 손오공



그림 · 최주현

속세의 정을 어이 끊을까. 그 질긴 미련은 어디로 보낼까. 저팔계 애틋한 마음을 뒤로 하고 다시 인도를 향한 머나먼 길 떠나네. 길목에서 오소선서(烏巢禪師) 만나 반야심경을 받고, 앞일도 점지 받고 허위허위 도달한 곳, 황풍령이라네.

이름도 수상하다, 누런 바람 부는 고개라? 손오공 바람 꼬리를 붙잡아 냄새를 맡아보니 비린내가 풍기는 것이 요괴 소굴이 분명하다.

아니나 다를까. 황풍동이란 요괴 소굴이 있어 현장법사가 납치되는 고난을 겪는다. 요괴 두목 재주가 비상하여 세상을 뒤엎는 바람을 일으키는데 이름하여 삼매신풍(三昧神風)이라. 태상노군의 화로 속에서도 버틴 손오공도 눈을 다쳐 못 뜰 지경이라 요괴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영길 보살님 모셔서 요괴를 잡아낸다.

이런 정도의 재난이야 앞으로 수도 없이 겪을 일~ 다시 길을 떠나 도착한 곳~폭이 팔백 리나 되는 강. 거위 털도 뜨지 못하고 갈대꽃도 가라앉는 유사하(流沙河)라네. 이 강을 어찌 건널까 근심스런 일행 앞에 갑자기 물결이 산처럼 치솟고 험상궂은 요괴 한 마리 등장한다.

목에 아홉 개의 해골 걸치고 무시무시한 보물 지팡이 휘두르며 달려든다. 저팔계가 맞상대하고 손오공이 슬쩍 틈타 거드니 달려들었던 기세가 부끄럽구나. 물 속 소굴로 달아나버린다. 모든 게 가라앉는 이 강도 문제지만 우선은 이 요괴 퇴치가 급한 일이구나. 손오공과 저팔계 힘을 합치고 온갖 꾀를 내어보지만 이 요괴 잡히지 않네. 급하면 물속 소굴로 달아나니 손오공 기막힌 재주도 물속에선 힘을 제대로 못 쓴다.

급하면 결국 보살님 찾는 게 묘수. 손오공 근두운 불러 타고 관세음보살님 찾아뵙는다. 관세음보살님 야단을 치신다. 그 요괴는 하늘의 권렴대장이 유배된 존재라 내가 이미 너희들 돕도록 안배해 두었는데 서천에 경 가지러 가는 일행이란 말을 왜 아니하였느냐!

제자 혜안을 손오공과 함께 보내어 바로 요괴를 항복받아 일행에 합류시키니 이름하여 사오정! 말귀 어두운 사오정? 이제야 그 이름도 유명한 손오공 삼총사, 그 팀을 온전히 꾸렸구나!

용마가 좀 섭섭하다 투덜거린다. 나도 끼워서 사총사 하자구? 아무튼 이젠 무서울 것 없구나. 앞길에 나타날 요괴들 납작 엎드리거라!

저팔계, 앞으로 속깨나 썩일 저팔계, 그렇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쓰는 저팔계…. 이제 일행으로 합류했네요. 그런데 그 저팔계가 떠나는 대목에 참 재미있는 묘사들이 있어요. 저팔계가 하는 말을 들어 볼까요?

"장인어른, 제 마누라 잘 돌봐주세요. 만약 우리가 불경 구하지 못하면 바로 환속해서 예전처럼 사위노릇 해 드릴게요."

그래서 손오공이 헛소리 말라고 꾸짖자 저팔계가 항변을 하지요.

"형님, 헛소리가 아니요. 어쩌다가 일이 잘못되어 중도 못 되고 마누라도 없게 되면, 그때는 정말 어쩌란 말이요!"

바로 우리 일반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네요. 구도의 마음이야 없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속세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는 그 망설임! 거기다 구도의 길로 나서도 꼭 이루어지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 절대 깨달음의 길로 나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정말 큰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보리심을 낸다'는 것이겠지요.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낸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무조건 그 마음을 내야 한다고 해서 내 지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지요. 삼쾌선생은 여기서 좀 다른 각도

고도의 집중이자 힘인 '삼매'
"이를 악용하는 이들 있어"
'계' 바탕한 정이 혜를 만들어

로 생각을 돌려 봅니다. 우선은 보리심을 내서 수행을 해 나가는 길과 우리의 삶을 딱 갈라서 두기로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나날이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는 길,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길, 그 길이 바로 부처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쪽을 딱 끊고 저쪽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어려움이 몇 배로 더해지지요. 아예 갈 마음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길을 그렇게 딱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그렇게 보는 것이야말로 불교적인 생각이 아니지 않을까요? 생사(生死)가 바로 열반이라는 말도 있고, 또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우리의 삶과 깨달음의 길을 하나로 보려고 애쓰면 안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둘로 딱 갈라놓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로 하려고 하지 않지만 둘로 보지도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유마경에서 말한 '둘이 아닌 진리의 문'(不二法門)이 아닐까요?

이크! 좀 너무 나갔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요. 너무 따지진 마세요. 아무튼 저팔계의 그 미련을 뒤에 남기고 우리 현장법사 일행은 앞으로 앞으로 갑니다. 가는 길목에서 오소선사란 분을 만나네요. 까마귀 둥지처럼 높은 나무 위에 둥우리를 만들고 사시는 스님이지요. 흠~ 나칠계님. 고개를 외로 꼬시는 게 좀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군요. 왜 편안한 땅 두고 위태롭게 까마귀둥지 같은 곳에 사느냐구요? 허긴 이상하기는 이상하군요. 그렇지만 나칠계님, 님께서 편안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편안한 땅인가요?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로운지 생각해 보셨어요? 무어 하나 확실한 것 있나요? 언제나 사라질 수 있는 무상함을 딛고 계시면서도 편안하다 착각하시는 것 아니예요?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땅 위에 계시지 않나요? 그에 비하면 오소선사는 오히려 편안하실 지도 모르지요. 깨달음의 편안한 땅에 머무르고 계신 것 같으니, 나칠계님보다는 훨씬 편안하실 거란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멍한 표정이군요. 하하, 제가 수준을 너무 높였나 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지요. 오소선사께서는 원숭이와 돼지가 앞길을 헤치고 가니 물속에서 요괴가 나타나리라는 예언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손오공 속을 뒤집어 놓지요. 물 속 요괴란 것은 아마도 사오정을 가리키는 말일 것 같지만, 손오공이 그거까지 알 수야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떠난 길, 황풍령(黃風嶺)이란 험준한 고개에 도달하지요. 그리고 그 산 속에 황풍동이란 요괴 소굴이 있고, 그 속에 황풍대왕이란 요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괴 밑에 호랑이 선봉대장이라는 부하가 있는데, 이 호랑이 선봉대장에게 삼장법사가 납치되는 재난을 겪습니다. 실력으로야 호랑이 요괴에게 당할 리가 없지만, 그냥 도망치다가 둔갑술 써서 자기 거짓 형상을 만들어 놓고 슬쩍 뒤돌아와 현장법사를 납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굴로 쳐들어가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두목 요괴가 보통이 아닙니다. 특히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 이름이 삼매신풍(三昧神風)입니다. 뜻을 풀어보면 삼매에서 일어나는 신묘한 바람이지요. 또 삼매란 정신의 올곧은 집중을 말하는 것이니, 정신의 집중을 통해 얻어진 신통한 바람이란 말이 되겠네요. 이 바람이 어찌나 센지 손오공도 눈을 못 뜨고, 결국 눈을 다치게 됩니다. 손오공 눈이 어떤 눈입니까? 전에 하늘 세상 어지럽힐 때 태상노군의 단약 만드는 화로에 갇혀서 그 매운 연기도 버텨낸 눈이 아닙니까? 삼매의 신통한 바람은 그 눈까지도 다치게 하는군요. 그러니까 삼매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삼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이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불교의 삼학 계, 정, 혜 가운데 하나인 정이 바로 삼매이고, 그 때는 올바른 삼매를 말하는 것이지만, 고도의 정신 집중은 정사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사를 가리지 않고 힘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영화나 소설 속에서, 악당 가운데도 초능력을 쓰는 자들 많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도 삼매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길을 걷느냐 아니냐 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길을 걸으면서 삼매의 힘을 얻게 되면 그야말로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재앙인 것이지요. 앞으로 한참 더 나가서 등장하는 요괴 가운데 홍해아라는 요괴가 있습니다. 이 요괴도 삼매진화라는, 삼매에서 이룩된 불기운을 씁니다. 그리고 그 요괴에게 당해 손오공이 눈이 머는 사태가 일어나지요. 무시무시한 삼매의 힘! 거기서도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등진 삼매의 힘은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해 둡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삿된 길로 가면서 삼매의 힘을 얻는 이들이 종종 있는데, 문제는 이 삼매의 힘을 자신이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증표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혹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과연 올곧은 길을 가고 있는가를! 그런 힘을 통해 혹세무민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불교 문중에도 그런 분들 종종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바입니다. 전생을 본다는 둥, 미래를 예지한다는 둥, 재앙을 예견하고 막아줄 수 있다는 둥…. 대개 사기꾼들입니다. 혹시 어떤 분이 전생을 봤다 하면, 바로 달려들어 물어 보세요. 나도 봤는데 당신이 본 것과 다르다! 어떤 게 맞는 것이냐고요.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을, 이상한 권위를 내세우면서, 도력입네 법력입네 공갈치는 무리들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런 짓들은 삿된 짓입니다. 부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신 삿된 짓입니다. 그런 짓을 하는 이들이 올바른 이들일 수 없겠지요?

애고, 속세고 불문이고 어수선한 일들이 많다보니, 삼쾌선생 노파심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주제 넘다고 욕하지 마시구요. 나는 그럴 일 없다고 당당하게 외쳐주세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아무튼 삼매의 신통한 바람 때문에 물러난 손오공이 우회전법을 쓰네요. 벌레로 변신하여 요괴 동굴을 염탐하여 요괴를 물리칠 수 있는 존재를 알아내지요. "영길보살(靈吉菩薩)만이 날 물리칠 수 있다"는 요괴의 말! 나와서 영길보살님의 거처를 수소문해서 알아냅니다. 태백금성(太白金星)이라는 신선이 슬쩍 귀띔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영길보살 모셔오니, 상황 끝! 원래 영길보살님은 이 요괴의 행패를 막는 전담자였더라네요. 삼매신풍을 막아내는 비장의 무기를 지니고 계시니 정말 요괴로선 어쩔 수가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니 자기의 약점은 꿈속에서라도 함부로 발설하는 법이 아니라구요. 하하. 이렇게 황풍요괴 물리치고, 다시 앞으로! 이제 드디어 삼총사의 막내 사오정 만나러 가야 하겠지요? 다음 시간에 뵈어요.

과천토지 3.3㎡ 25~35만원 특별 분양

제2의 강남,과천 선바위역 800m 거리의 도시지역 토지



(주)경기토지개발에서는 과천에서 명품주거 단지인 안골에 있는 제1종 주거지역에 접한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를 3.3㎡당 35~25만원에 분양한다.

"과천을 강남벨트로 만들겠다"는 과천시장의 구상에 따라 지하철 신분당선 또는 양재C역 또는3호선 양재역을 연결추진 중이며 과천동 글로벌비즈니스타운(복합관광단지) 조성계획,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추진(51만평) 등 과천의 그린벨트가 속속히 풀려 개발되고 있다.

이번에 분양중인 토지의 가장 큰 장점은 분양지는 서초구 사당동 과 양재동을 접하고있는 토지라 투자성이 매우 높다. 지금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서 싸게 구입이 가능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시 상당한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국토부의 계획이 따라 현재 주민 실태조사 중으로 주민생활관련 제도 개선안 마련계획이어서 강남생활권인 과천의 입지성을 감안, 과천일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답사는 신청자에 한하여 직접 안내받을 수 있다.

• 분양 문의 : 02-2058-0132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신행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B1(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5분거리) Tel: 02)953-7181

탐·진·치 三毒心, 연기법으로 파악해야



박래원 교수의
貪·瞋·癡 철학적 읽기〈10〉

분노는 탐욕과 맞물려 있는 일종의 부정충동이다. 모든 욕구가 해로운 것은 아닌 것처럼, 모든 부정충동이 해로운 것은 아니다. 무지와 탐욕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부정반응은 진리에 눈뜨게 하여 깨달음의 토대가 된다.

탐욕은 그것을 발생시키는 조건들에 의거하여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탐 · 진 · 치 맥락에서의 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 발생조건을 주목해야 한다. 분노를 발생시키는 핵심조건의 하나는, '불변의 독자적 자아를 확립하려는 노력과 신념에 대한 위협' 이다. 분노는, 불변자아에 대한 기대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고, 두려움이며, 그 위협과 장애들을 배제 · 부정하려는 충동이다.

달리 말해, 탐욕 추구가 방해받는 것에 대한 반발이 분노이다. 공격, 폭력, 화, 시기, 질투, 증오, 원한, 한탄, 절망감 등 다양하게 모습으로 표현되는 분노는, '탐욕 충족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한 부정반응' 이다.

분노는 탐욕의 장애물에 대한 부정반응이므로, 분노가 발생하는 계기도 '감관쾌락 · 소유 · 비교' 라고 할 수 있다. 감관쾌락의 강도를 높이고 지속시키고자 하는 쾌락탐욕이 좌절되거나 방해받을 때, 인간은 속 깊은 분노를 느낀다.

어떤 감관쾌락에 대한 욕망이 방해받거나 좌절될 때, 인간은 지속적이고 자아의식적인 '개념적 자아감에 대한 위협이나 훼손' 을 경험하게 되어 강하게 반발한다.

소유를 통해 불변자아에 대한 환상을 충족시켜 보려는 소유탐욕의 충족과정에서도 어김없이 분노가 발생한다. 자신의 소유탐욕을 방해하거나 좌절시키는 대상을 만날 때 분노가 솟구친다.

비교의 우월자아감을 통해 불변자아에 대한 헛된 기대를 채워보려는 비교탐욕의 충족과정도 분노가 장악한다. 그 분노는 시기, 질투, 음해, 우월의 교만과 추월의 두려움, 열등의 적개심과 자학 등으로 나타난다. 우열을 다투는 경쟁에서는 팔꿈치로 밀어내는 '배제의 분노' 가 경쟁과정을 지배한다. 우월적 지위를 차지한 자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심, 억울함과 복수심이, 하위로 밀려난 자들의 마음을 채운다. '박탈의 분노' 이다.

또한 우위를 차지한 사람들은 보복기회를 노리는 하위 사람들을 향해 적대감을 품는다. '우월의 분노' 이다. 이 우월의 분노는, 하열자들을 경멸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교만과 공포의 적개심이다.

4. 마무리

붓다의 깨달음이 연기법이기에, 붓다는 자신의 모든 언어를 '연기적' 으로 펼친다. 따라서 붓다와 대화하려는 사람들도 그의 모든 언어를 '연기적' 으로 읽어야 한다.

붓다는 탐욕 · 분노 · 무지에 대해서도 그 발생과 소멸의 조건을 밝히는 '탐 · 진 · 치 연기 설법' 을 설하고 있다. 세 가지 느낌이 탐 · 진 · 치의 잠재성향을 발생시키는 조건이며, '아름다운 표상' · '적의의 표상' · '표상을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둠' (不如理作意)이 탐욕과 분노의 발생 및 증폭이 조건이고,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둠' (不如理作意)이 무지의 발생 · 증폭 조건으로 설해진다.

붓다의 깨달음 근본은 연기법
다양한 층위의 연기적 이해로
탐·진·치 생성·소멸 알 수 있어

또한 멸(滅)연기 · 명(明)연기를 구현하는 다채로운 교설과 수행법이 탐 · 진 · 치의 소멸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붓다의 탐 · 진 · 치 연기교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층위와 좌표에서의 '연기적 이해' 가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삶에 새겨진 탐 · 진 · 치의 결(理)과 무늬(彩)를 철학적 시선에서 음미해 보았다. '지금 여기' 의 관심으로 탐 · 진 · 치를 '연기적' 으로 읽어보려는 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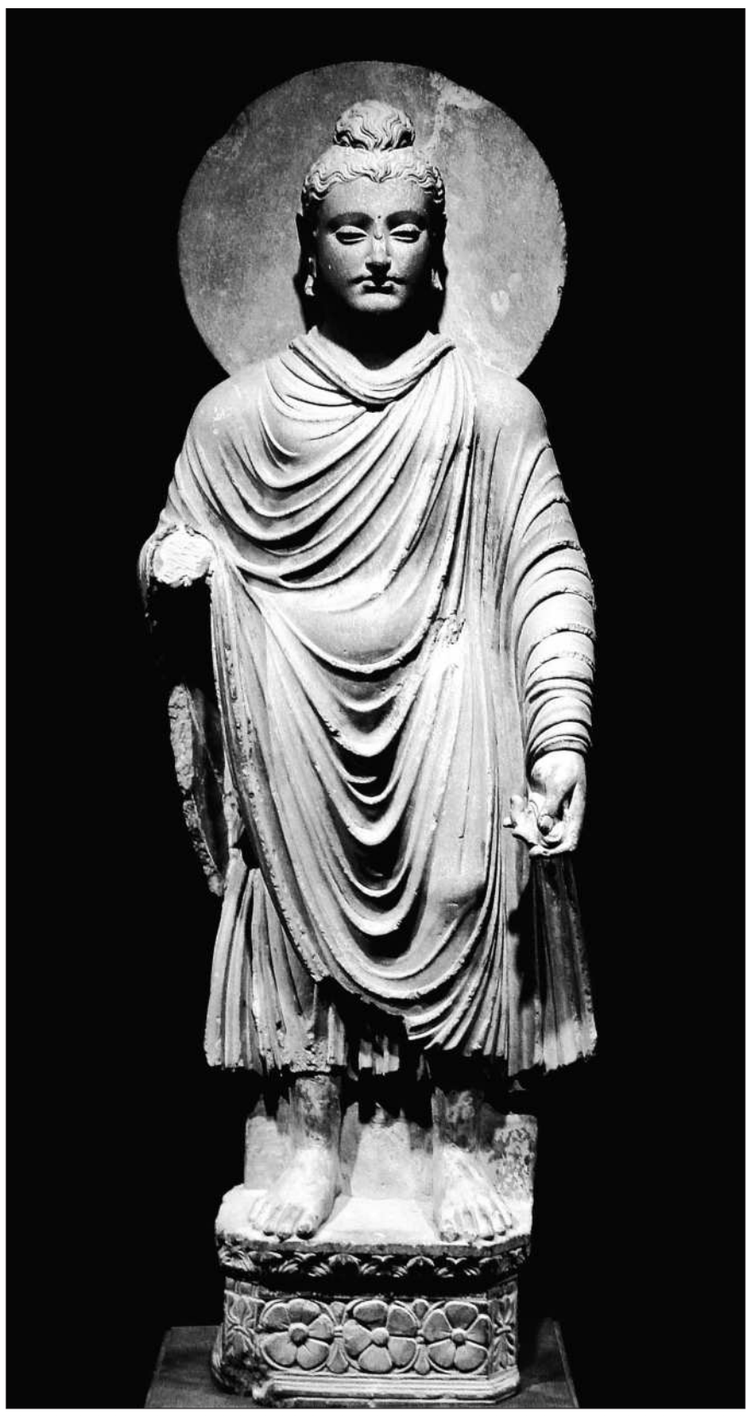
구체적으로는 붓다 진리관의 두 가지 철학적 기초를 '두 층의 경험주의' 와 '실존 실용주의' 로 압축시켜 탐 · 진 · 치 문제와의 연관을 읽어보는 동시에, 불변자아의 환각과 탐 · 진 · 치 현상의 연기적 관계를 읽어 보았다.

붓다의 실존 실용주의는 '탐욕 · 분노 · 무지를 축으로 삼는 삶의 실존적 오염과 왜곡을 치유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태도' , 다시 말해 탐욕 · 분노 · 무지를 조건으로 수립된 삶의 실존상황에 적용하여 탐욕 · 분노 · 무지의 문제를 경험적으로 해결하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에만 진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태도이다.

또한 경험 가능한 것, 그리고 경험을 통해 진실 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것만을, 진리 탐구의 범주로 설정하겠다는 것이 붓다의 경험주의이다. 붓다의 경험주의는 두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층은, 진리 주장은 '경험할 수 있는 것' 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층은, 진리 주장은 '온전한 경험' 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 혹은 경험 가능한 것들은 '온전한 것과 왜곡된 것' 의 두 유형이 있으며, 진리와 하나 됨은 '온전한 경험' 으로써 구현된다는 것이, 붓다 경험주의의 궁극적 지향이다.

그리고 탐 · 진 · 치는 근원적으로 자아환각의 보존충동과 연관시켜 읽을 수 있다. 〈끝〉



간다라 양식의 불상. 부처님의 깨달음은 연기에 기반하고 있다. 연기를 통해 탐진치 삼독심의 생성과 소멸을 이해해야 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사람이 신(神)이다

사람이 사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다. 종교의 존재는 신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신앙은 그러므로 사닥다리 오르듯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마음이 열려야 한다.

예전부터 사람의 필요에 의해 신과 길은 만들어졌다. 사람의 욕구와 필요성에 의해 다양한 신이 만들어졌고, 신의 이름이 지어졌으며, 신의 형상이 그림이나 조각품으로 만들어 졌던 것이다. 가까운 예로, 아파트 문화가 있기 이전 마을의 주민들이 머무는 집엔 땔감으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떡을 솥에서 쪄내야한다.

그러다보니 땔감의 질량에 의해 밥이 죽이 되고, 떡이 설어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있게 되었든 것이다. 하여, 막연하게 부엌의 신을 만들게 된다. 이름하여 조왕신이다. 새해 설날 무렵 또는 가정마다 다르긴 하나, 음력 초하루 날엔 촛불을 밝혀 조왕님께 치성 드리는 일도 있게 된다.

그러나 아파트 문화와 조리기구의 발달로 인해 땔감이 아닌 가스로 음식을 조리하게 되고 떡은 떡집에서 만들게 되었다.

비어있을수록 개운하고 편안하다
집착 벗어나면 떳떳하고 당당하다

이젠 조왕신은 자취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름마저 잊혀져 국어사전에서나 조왕신이 박혀있다. 화장실을 예전엔 칙간이라 불렀는데 이곳을 관장하는 신도 사람들이 만들게 된다. 이름하여 '변소 측(?)' 에다가 '귀신(神)' 을 붙여 '측신(?神)' 이라 하였다.

부엌문화가 바뀌듯 화장실도 거실에, 문하나 사이로 붙어 있다. 수세식은 물론 비데문화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당연히 측신은 졸아들어 누구 한사람 찾지 않는 죽은 신이 된지 오래이다.

이란의 예언자였던 조로아스터교는 그 세력이 유럽은 물론 아시아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나 이제는 겨우 유적만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페르시아인 마니가 창시한 마니교도 이름만 남긴 채 사라졌다. 참고로 자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터의 영어 명임을 밝혀둔다.

자. 이쯤해서 사람이 사는 이유 행복에 대해 렌즈의 프리즘을 당겨보자.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인데 그 느끼는 감정 변화는 가치기준만큼 사람마다 다양할 터이다.

다만, 행복이 느낌으로 왔다가 느낌으로 사라질 터인데 머무는 기간은 훈련된 병사의 채질만큼이나 길고 짧음이 다를 수 있다.

불교에서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보시(布施)와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로 설명한다.

또한 팔정도(八正道)라 하여 바른 관찰(正見), 바른 생각(正思), 바른 말(正語),바른 행위(正業), 바른 생활(正命), 바른 노력(正精進), 바른 명상(正念), 바른 지혜(正定)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실행에 옮기기란 벅차고 힘겨울 것이 뻔한 일이다. 다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열린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긍정적인 착각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할 터이다.

사랑에도 정답이 없듯 행복에도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법이다. 눈높이에 따라 가치기준이 다를 수 있고 사닥다리의 높낮이에 따라 시야가 트일 수도 막혀 있을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불제자라면 누구나 달달달 외우고 있는 반야심경의 첫 구절에 담긴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까지는 경의 이름이니 제쳐두자.

'관자재보살이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 정진을 할 때, 오온(色, 受, 想, 行, 識)이 다 아 비어있음을 관조하여 일체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느니라' 로 반야심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오온(五蘊)은 물질(色)과 받아들임(受), 분별 망상(想), 온갖 행위(行), 관습의 의식화(識)로 중생들의 일상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이 오온(五蘊)에 집착함 없이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는 해탈자이자 자유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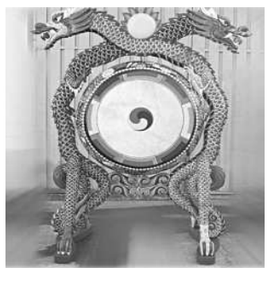
깨달음을 완성한 행복을 누리는 승리자이다. 신앙인들이 날이 갈수록 졸아들거나 섬기는 신이 그 둘레를 넓혀간다면 그는 정신이탈의 몽유병 환자처럼 어둠속에서 윤회를 거듭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될 터이다.

부정적인 착각보다는 긍정적인 착각으로 머물고 집착하는 소유욕에서 벗어나며 살일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여 가고, 끝내는 사라지는 존재들이다. 비어있음이 개운할수록 비어있으면 편안하다.

집착을 벗어 버리면 떳떳하고 당당하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신이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부처이다. 모시고 섬기는 신이 많아 머저리 병신으로 살지 말일이다.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中, '사이비 승려' 구별 위해 DB 구축

차이나데일리, 12월 8일 중국 공산당 방침 '주목'

중국 정부가 진짜 생불(生佛) 가리기에 나선다. 최근 너나할 것 없이 자신이 '생불'이라 주장하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라마(Lama)' 혹은 '툴쿠스(Tulkus)'라 불리는 '생불'은 정치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위에서도 막강한 힘을 갖는다.

중국 일간지 '차이나데일리(China Daily)'는 12월 8일 "중국 정부가 최근 공인된 '생불 데이터'를 구축해 온라인으로 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명 '사이비 승려'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종교인의 탈을 쓰고 불법 자금을 운영하는 등 악의적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중국 공산당은 "'좋은' 생불과 '가짜' 생불을 구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것은 생불의 진위여부를 판단치 못하는 일반인들이 일부 가짜 '생불'들에 매도되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티베트 불교의 확산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결단은 최근 중국의 유명 배우 장톄린(Zhang Tielin)과 그를 생불로 임명한 바이마 아오써(Baima Aose)가 모두 거짓이었단 사실이 드러나며 발단이 됐다. 티베트 불교는 생불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시 어린 아이로 환생한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현재 39세인 바이마 아오써는 자신이 2012년에 쓰촨성 간쯔 티베트족 자치구에 위치한 카투오(Katuo) 수도원에서 생불로 인정받았다는 어불성설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카투오 수도원은 12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바이마 아오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그가 소지한 티베트어 문서도 관련 없는 내용이다. 그는 티베트어를 모르는 불자들을 현혹시켰을 뿐 아니라 수도원 명성에 누를 끼쳤다"고 비난했다.

생불, 중국서 영향력 막강
'가짜' 속출하며 불법 자행도
장톄린 사건 후 수면 위 떠올라
"티베트 불교 경계 목적도"

또한 주웨이췬(朱維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민족종교위원회장은 최근 중국 중앙TV(CCTV)에 출연해 바이마 아오써가 장톄린을 생불로 임명하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 영상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주웨이췬 회장은 "가짜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속여 재산을 뺏는 등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톄린(Zhang Tielin · 사진왼쪽)과 바이마 아오써(Baima Aose · 사진중앙). 사진출처=신화통신

비난 여론이 일자 바이마 아오써와 장톄린은 모든 종교직을 사임하고 사과를 표명한 상태다. 중국 언론 'ECNS'가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장톄린은 티베트 불교사원에서 생불로서 증명을 철회 당한 후 모든 종교 소임으로부터 물러났다. 또한 바이마 아오써도 8일 자신의 SNS 계정에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수행과 신행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신을 '생불'이 아닌 '요가 수행자'로 칭했다.

그러면서 바이마 아오써는 "내 근원 및 환생과 관련한 모든 논란들이 모든 불교도들과 여론의 분노와 의심을 야기했다"면서 "오해가 오해를 낳고 있다. 나는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나 그는 주웨이췬 회장이 공개한 영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영상 속 장톄린은 승복 차림을 하고 있지만 생불로 임명하는 의식을 치르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두고 티베트 암도(Amdo) 지역의 '생불' 두오스 린포체는 "변두리에 있는 수도원에서 '생불 증명서'를 돈으로 사고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며 "정부 차원의 '생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사이비 승려 논란'도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티베트 아바(阿坝) 지역 '생불' 샤바 린포체(지방생불협회 이사)는 "데이터베이스가 속히 만들어져 대중에 공개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진짜 종교인을 만날 기회마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현장 스님 기록 따라… 바드나가르 절터 발굴 착수

인도고고학조사국, 고대 불교사원 터 정밀 조사 들어가


인도고고학조사국(ASI)이 2014년 바드나가르 지표 조사를 실시하며 발견한 불교 유적.

인도 국무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의 고향이자 중국 주석 시진핑의 첫 인도 방문지로 주목받았던 구자라트주의 바드나가르(Vadnagar)에서 고대 불교 사원 터를 찾는 발굴 조사가 시작된다.

'ZNEWS'는 12월 8일 "인도고고학조사국(이하 ASI)이 바드나가르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를 허가 받았다"며 "인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이번 발굴 조사는 이 지역의 고대 불교 사원 터를 찾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바드나가르 지역에 대한 지표 조사를 실시한 ASI는 해당 지역에서 교역로와 이를 잇는 마을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발굴 조사에 들어가면 고대 불교 유적도 찾을 수 있다는 게 ASI의 전망이다.

"바드나가르 지역은 인도와 유럽을 연결했던 교역로라는 게 인도 고고학계의 정설"이라고 강조한 ASI 측은 "현장(Hiuen Tsang) 스님이 이 지역에 대해 남긴 기록에 따르면, 바드나가르 지역에는 적어도 10여 개의 불교 사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도 고고학계는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기념비적인 불교 유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인도 첫 방문을 준비하며, SNS를 통해 자신의 고향 구자라트주 바드나가르의 고대 불교계가 인도와 중국의 소통과 교류에 큰 몫을 담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에 화답하듯 2014년 9월 구자라트주 바드나가르를 인도 첫 방문지로 삼고, 불교에 근거했던 고대 양국의 긴밀한 관계에 주목했다. 이에 더해 동시대 양국의 우호적 관계에 힘을 실어 이 지역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한편 'ZNEWS'는 "구자라트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인도 정부의 관심이 높다"며 "이번 발굴 조사가 바드나가르 지역의 불교와 교역을 중심으로 한 6~8세기 고대사가 새롭게 밝혀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고물상에서 산 관음상 1690만원에 낙찰

18세기 티베트 '마두관음' 英 연금옥션에서 가치 '재조명'

영국에서 단돈 4파운드(한화 약 7,200원)에 구입된 밀교 관음상이 '연금 옥션'에서 9,500파운드(한화 약 1,690만원)에 거래됐다. 특히 판매자가 연금수급자인 여성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The Argus'는 12월 8일 "영국 잉글랜드 웨스트서식스에 있는 타운, 미들허스트의 연금수급자인 한 여성의 밀교 관음상이 연금 옥션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관음상은 경쟁적으로 호가되며 9,500파운드에 판매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행운의 여성'이 연금 옥션에 내놓은 밀교 관음상은 18세기 초 티베트에서 제작된 높이 16.6cm의 '진품 청동 마두관음상'으로 밝혀졌다. '연금 옥션' 측은 당초 500~700파운드(한화 약 89~125만 원) 선에서 낙찰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매 결과는 예상을 초월했다.

연금 옥션 측에 따르면 이번에 낙찰된 밀교 관음상은 '마두관음'의 일종인 '히야그리바(Hayagriva)'로 머리에 말머리를 이고 있다. 육관음 중 하나인 마두관음은 티베트에서 '난치 피부병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한때 크게 유행했다. 또 프랑스의 기메국립아시아미술관에 소장된 히야그리바와 비슷한 조상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경매에 나온 18세기 티베트 마두관음상.

한편 'The Argus'는 히야그리바 감정을 맡았던 존 니콜슨(John Nicholson) 박사의 말을 인용하고 "이번 경매 결과는 아시아 종교미술에 대한 영국 경매계의 관심을 가늠하게 한다"며 "몇 백 년 전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신상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지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영국 미술애호가들의 아시아 종교미술에 대한 식지 않는 사랑에 주목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모스크 지으려면 불교 사찰도 지어라"

ITU학생들, 종교 자유 외치며 '불교 사원 건축' 주장

이슬람의 나라, 터키의 대학생들이 캠퍼스에 사찰을 짓자며 시위에 나섰다.

'Daily News'는 12월 10일 "이스탄불 기술대학(이하 ITU) 재학생들이 캠퍼스에 이슬람교 사원인 '모스크'를 건설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며 "그들은 이를 비판하며 '불교 사원을 건설하자'는 다소 풍자적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4학년 엘리프 사팍 우루쿠 씨는 "우리는 자유로운 예배와 균형 있는 가치관을 원한다"며 "ITU 재학생들은 종교 자유를 막는 정부와 대학 당국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리프 사팍 우루크 씨는 ITU 캠퍼스에서 모스크 건설이 시작되자마자 '종교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등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을 반대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인터넷 청원을 진행했다. 이에 2만5000여 명의 재학생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 ITU 메흐메트 카라카(Mehmet Karaca) 총장은 "18만5,000여 지역 주민들이 캠퍼스 내 모스크 건설을 요청하고 있다"며 "ITU 캠퍼스의 주거용 부지에 모스크 터를 마련하고 건축하는 것은 주민들의 바람과 학생들의 청원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터키 이스탄불기술대학(ITU) 캠퍼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스크 건축 현장.

공교육의 정점인 대학 캠퍼스에 모스크 건설이 진행되는 배경에는 지난 2014년 4월 19일 메흐메트 고메즈(Mehmet Gormez) 터키 종교장관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당시 고메즈 종교장관은 "터키의 2000만 젊은이들이 이슬람 종교지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길 바란다"며 "캠퍼스 내 모스크 건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모스크와 대학은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Daily News'는 지난 11월 총선에 승리해 독립 정부를 꾸린 정의개발당의 주류가 수니파인 점에 주목, "터키에서 수니파의 종교 교육 철학에 힘이 실릴 전망"이라며 "현재 50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스크 건설 역시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실외 양초 공양집

신제품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일본 직수입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 m.btn.co.kr

2015년 11월 2일 부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가을대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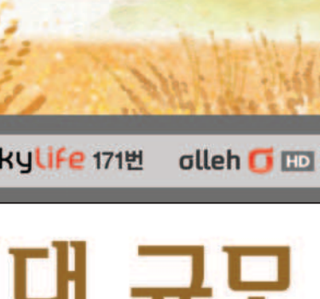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이 변화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공익을 실천하겠습니다.



월 오전11:20 수 밤11:00/ 목 오후3:50/ 일 오후6:50



수 오전11:20 목 밤11:00/ 토 오전8:30



화 오전11:20 토 오후1:50/ 일 밤9:50



화 오후7:30 수,토 오후1:20/ 금 오전6:20/ 일 오전8:50



화 오후2:50 목 밤8:00/ 일 오전11:20



수 오후1:50 금 밤22:00/ 일 오전4:00

BTN 은 모든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71번 olleh HD 233번 tv HD 555번 TV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

성종사 대만최대 규모 범종 제작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규모인 8,800관(33 ton) 범종을 제작 수출하였다. 높이 4.82m, 직경 2.89m 중량 33ton(8800관)의 이 초대형 범종은 대만 타이중에 위치한 명선사 (明善寺)라는 사찰로부터 2013년 주문 받은 것으로 기존 대만 최대 범종인 25.5ton의 불광산사 범종보다 무려 7.5ton이 무거우며 높이도 50cm나 더 크다.

본 범종의 제작기간은 약 1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종 표면에는 12,129자의 경전과 명선사의 역대 祖師 70명이 정교하게 빼곡히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聖鐘社
전시관 : 서울시 종로고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돈황의 찬란함, 불심으로 재현합니다”

서용 돈황전문작가,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초대전


서용 作 ‘천상언어’

서용 작가는 돈황 벽화에 나타난 내용을 기초로 작품을 창작 응용하며 발전시켜왔다. 이번에 출품하는 작품은 그간의 작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돈황벽화와 변상도에서 나타나는 불교의 도상적 특성을 차용하고 도자기 법을 융합한 현대적 표현이 돋보이는 것들이다.

부산 갤러리 ‘예가’에서 개최

벽화와 도자기 제작법 결합

신심 돋보이는 13점 출품

돈황학 박사 1기 식견 드러나

“벽화는 영원히 살아 숨쉬는 예술입니다. 돈황 벽화를 객관적으로 모사하는 시간은 저에게 천여 년 전의 화공들과 직접 교감하는 시간이었으며 벽화는 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천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감수성을 담은 새로운 표현을 시도했습니다.”

서용 돈황 전문작가는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부산 갤러리 예가에서 불교미술작품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100호부터 30호 석굴의 다양한 크기의 작품 13점을 출품한다.

돈황 전문가로 꼽히는 서용 작가는 1997년부터 7년 간 실크로드 돈황에서 생활하며 돈황 벽화를 모사하고 재해석해왔다. 2004년 서울에서 최초로 작품을 선보이며 한국 학계와 미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작가의 깊은 불심에 학문적 이론과 작가적 창의성을 더한 작품은 1500년 전 막고굴을 처음 만든 낙준 선사의 종교적 신심과 현대의 미감이 만나 탄생했다.

돈황의 막고굴 벽화는 4세기 중반부터 원나라 때인 14세기까지 1000년간 조성된 것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있다. 특히 둔황 석굴에 그려진 4500㎡에 달하는 벽화와 3000여 좌의 불상으로 그 명성이 더해졌다.

서용 작가는 서울대 미술대학을 졸업 후 1992년 중국북경중앙미술학원에서 유학하며 수인판화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벽화과를 석사 졸업했다. 막고굴 벽화를 연구하며 외국인 최초 중국난주대학교 돈황학 박사과정 1기를 졸업했다.

가나 화랑에서 열었던 귀국전을 시작으로 양산통도사성보박물관 특별 초대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스위스 취리히, 시카고 등 해외 아트페어에 참가했다. 2006년 중국에서 공헌한 12명의 외국인 중 문화계 대표로 수상했으며 중국 천진 TV, KBS, MBC 등 국내외 방송국 다큐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 돈황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서용 작가는 돈황학 박사로 국내 돈황관련 전문가로 꼽힌다.


12월 19일 예술의 전당에서는 JK 챔버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 권혁주의 협주가 진행된다. 사진은 JK 챔버오케스트라의 공연모습.

선율로 함께하는 기도와 명상의 시간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12월 19일 바흐 협주곡 연주

“음악은 세계의 공통어이며 번역이 필요치 않다. 거기에서는 영혼이 영혼에게 말하기 때문이다.”(요한 세바스찬 바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19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IBK홀서 명상을 주제로 바흐와 만나는 이색 음악회가 열린다. 지휘자 김의명이 이끄는 JK 챔버오케스트라와 세계적인 솔리스트인 권혁주(악장 및 바이올린), 바이올린 함지민, 바이올린 양경아, 소프라노 최세정과 함께 겨울문턱서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과 힐링의 음악을 연주한다.

라틴어로 메디타티오(meditatio)라는 명상, 묵상(meditation)을 통해 더욱 가슴을 울리는 영혼의 음악 바흐와 JK 챔버 오케스트라가 만난다.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를 이끄는 젊은 솔리스트들로 구성된 JK 챔버 오케스트라는 이미 다양한 활동과 연주회를 통해 윤기 있는 음색과 치밀한 앙상블을 선보인 바 있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바흐를 조명해 명상에 어울리는 레퍼토리를 감상할 수 있다.

바흐 음악은 심리 안정에 치료효과가 있고 투명한 경건함으로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힘이 있다. 한편 회화적이어서 많은 영화음악이나 재즈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그런가하면 애절하고 간절함도 느껴진다. 이런 다양한 매력이 클래식 감상의 고수들 중에 바흐 매니아층이 두터운 이유다. 여러 레퍼토리 중 권혁주 연주로 들어볼 바이올린 협주곡 BWV 1042는 아름다운 선율로 특히 유명하다. 2악장 저음부를 그리는 현악앙상블과 독주 바이올린의 연주는 먼 산 넘어 해가 동틀 때 안개가 자욱한 듯한 아련함을 그려낸다. 바흐의 명상적인 면을 권혁주는 하이페츠나 힐러리 한에 대비해 어떤 연주를 만들어 낼지 기대된다. 또한 더블바이올린 연주도 놓칠 수 없는 레퍼토리다. 광고나 드라마의 삽입곡으로 많이 쓰일만큼 유명한 곡으로 바이올리니스트 함지민과 양경아의 환상적인 하모니를 들어볼 좋은 기회이다. 앙상블의 전달력이 돋보이는 IBK홀서 관객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스트링앙상블로 들어보는 바흐는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더욱 친근히 다가가며 자신을 돌아보고 명상과 힐링 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강현진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단장은 “소프라노 최세정의 아베마리아는 불교 노래는 아니지만 여러 갈등으로 테러와 인권이 박탈되는 안타까운 뉴스가 우리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때에 나와 남,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경건히 음악을 감상하며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02)2157-0778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김영옥 作 ‘날아오른 평화의 새’

세상 아픔 치유하는 평화의 노래

김영옥 개인전 ‘날아오른 평화의 새’… 23~29일 ‘갤러리1819’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랑의 가정 가꾸기’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김영옥 작가가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갤러리1819 제2전시관에서 ‘날아오른 평화의새’ 전을 개최한다.

김영옥 작가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치유가 되고 자신을 완성시키는 그림이 있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만다라이다. 김 작가는 만다라는 자신의 불안전한 상태를 이끌어 완전하게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옥 작가의 작품을 보면 무의식의 상징을 수천 개의 작은 전각 돌에 새기는 것부터 시작해, 화선지에 수백 번 반복적으로 찍어내 기본 뼈대를 갖추고 무수히 많은 붓 터치로 내·외적 통합을 이룰 때까지 화폭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작품에 쓰인 동양적인 서예재료들, 석채, 분채, 금분, 은분, 아교 등으로 깊이를 더한 만다라의 색들은 이제까지 볼 수 없는 신비로움을 자아내기도 한다.

김영옥 작가는 고난도의 내적수련의 시간을 거쳐 최근 만다라심리입문을 비롯해 수십 권의 만다라치유워크북, 마그마힐링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보급해왔다. 그동안 숙제로 끌어안고 있었던 것을 8회 작업을 통해서 내적 창작들을 1차로 출산한 것으로 김영옥은 최근 많이 홀가분하다고 한다. 그렇기에 김영옥 작가는 이번 개인전을 끝으로 더 이상 자신을 투신하는 힘든 작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옥 작가는 “내 마음의 평화를 원했고, 세상의 평화를 원했고 너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했다. 8회째 맞이하는 작품에서 이 원대한 뜻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모토로 한 작품성 돋보여

성흥영 시인, 제18회 실상문학상 대상 수상

前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문학인들을 위해 제정한 실상문학상의 18번째 시상식이 열린다.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조헌호)는 12월 18일 오후 6시 부산일보 대강당 10층에서 제18회 실상문학상 시상식을 갖는다.

실상문학상 본상은 성흥영 시인, 작가상은 정훈교, 박서현, 최순해 시인과 안경덕, 유희자 수필가, 작품상은 이영애 시인과 최병섭 수필가, 신인상은 이대숙, 남명순 수필가와 김류은 시인이 받는다.

조헌호 부산불교문인협회장은 “협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오늘에 이르까지 물심양면으로 베풀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모두 축제의 한마당인 실상문학상 시상식에 참여해 자리를 더욱 빛내 달라”고 초청했다.

김창식 실상문학상 심사위원장은 본상 수상자인 성흥영 시인에 대해 “불교를 모토로 하여 시를 엮어낸 시인의 작품성은 매우 이례적이고 뛰어났다”고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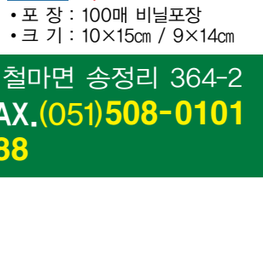
실상문학상 운영위원회 이사장 혜총 스님은 “현대에 와서 부처님의 진리를 아름답고 감동적인 문학의 언어로 새롭게 표현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문학작품이야말로 하나의 훌륭한 포교사”라며 “문학가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상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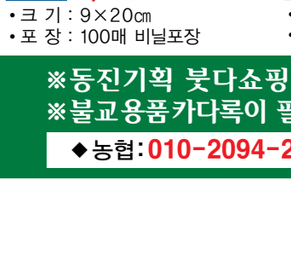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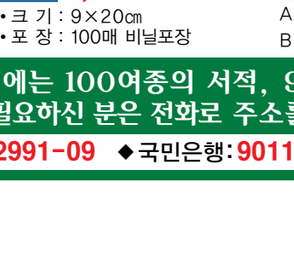

• 공단등(6㎝) @2,500원
• 공단등(8㎝) @3,000원
• 바림등(8㎝) @3,000원
• 황금등(8㎝) @3,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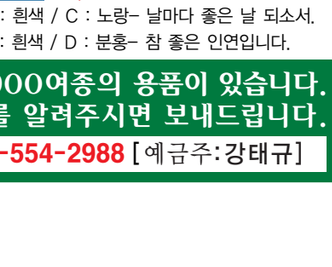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국산 LED전구(50개) 90,000원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 (50구) @65,000
• 23㎝ (50구) @65,000
• 25㎝ (50구) @65,000
• 30㎝ (50구) @65,000
• 35㎝ (50구) @70,000
• 40㎝ (50구) @73,000
• 50㎝ (50구) @75,000
• 1 m (50구) @90,000
• 2 m (25구) @80,000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100개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음양오행 만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입춘대길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7.5×30㎝

입춘대길(大/小)
판매가 3,000원 / 2,500원
• 포장 : 100매 비닐포장
• 크기 : 大 7.5×28.5㎝ (흰색/노랑)
小 5×19.5㎝ (노랑)

금지경면 종합부
판매가 800원 (개당)
• 크 기 : 60×7㎝ (빨강/노랑)
• 포 장 : 개별 봉투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 / 9×14㎝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한지 세뱃돈봉투
판매가 10,000원 (100매 포장)
A : 흰색 / C : 노랑–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B : 흰색 / D : 분홍– 참 좋은 인연입니다.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10-2094-2991-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BTN 드라마 '붓다'

"두가지 극단의 길에 치우치지 말라"

지난 줄거리

싯다르타는 드디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정각을 이룬다. 부처님이 된 싯다르타는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등의 가르침을 다섯 비구에게 전한다. 이어 길을 떠난 이들 일행은 고통받는 수많은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극단의 길이 있는데, 수행자는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두 가지 극단의 길이란, 하나는 육체의 요구에 자신을 내맡겨버리는 향락의 길이요, 또 하나는 육체를 지나치게 학대하는 고행의 길이다. 수행자는 양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배워야 한다."



빔비사라왕이 불가에 귀의하다. 빔비사라왕은 부처님께 귀의한 후 죽림정사를 보시한다. 부처님은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전법행에 나선다.


공양을 얻지 못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부처님


죽은 자식을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여인에게 설법하고 있다.


마침내 샤카국으로 돌아와 숫도다나왕을 만난 부처님

마지막 정진에 들기 전 빔비사라왕이 싯다르타에게 만약 깨달음을 얻는다면 자신을 제자로 받아 줄 것을 당부한 대목을 기억할 것이다. 부처님은 빔비사라왕을 찾아간다.

"대왕이 선업을 지으면 시간은 세세생생 대왕의 삶에 전과는 차원이 다른 흐름을 갖고 올 것입니다. 성불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쌓아온 모든 업의 고리를 끊고 궁극적 진리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일행은 마가다국에서 전법에 나선다. 하루는 제자들이 탁발공양에 나섰을 때의 일이었다.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을 욕했다.

"일도 하지 않고 공짜로 숙식을 하다니 부끄럽지 않은가."

제자들은 부처님을 찾아와 다른 곳으로 옮기자며 이런 말을 한다. 부처님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한다.

빔비사라왕 귀의 후 죽림정사 기거
죽은 아이로 고통받는 여성에게 설법
중도의 가르침과 자비를 설해

"만약 그들이 꽃을 들고 자네들을 환영한다면 기분이 좋았겠지. 이는 나의 마음을 남에게 내줬다는 의미네. 외적 요인이 마음을 기쁘게도 불안하게도 하는 것이라네."

제자들은 외적 요인으로 인한 마음의 변화를 직시하고 다시금 정진에 들 것을 서원한다. 부처님은 "우리는 그동안의 사람들의 믿음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네. 혹여 폭력적이거나 모욕적인 것이 있더라도 인내해야 한다네"라고 말했다.

부처님은 빔비사라왕이 제공한 어떠한 편의도 거부하고 제자들과 함께 대중 속으로 걸어간다. 이후 부처님 일행은 죽은 아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난다.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제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아들을 살려줄 수 있다네. 그럴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어떤 집에도 가서 겨자씨를 한 줌 얻어 오게나. 한 가지 명심하게, 겨자씨를 죽음이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집에서 가져와야 하네."

이 여인은 집집마다 다니며 묻는다. "혹시 돌아가신 분이 있으신가요." 죽음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집은 없었다. 이 여인은 깨닫는다.

슬픔에 빠져 다시 돌아온 여인에게 부처님은 설법한다.

"태어난 자는 죽기 마련이라네. 이게 자연의 이치라네. 모두가 죽음을 맞이한다네. 만약 전에 이런 말을 했다면 믿었겠는가. 자네 아들도 살아 있네. 자네 가슴에 살아 있다네. 마음이 진정돼서 이해하는 것이라네. 궁극의 진리는 만물이 존재하는 한 괴로움이 그림자처럼 따른다네. 이 괴로움의 근원이 사람을 물질에 묶어두고 있다네.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을 안다면서도 말이네. 자유를 원한다면 감각을 깨워야 한다네. 고통이던 아니던 양 극단 사이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길에서 괴로움의 족쇄가 풀리고 궁극의 지혜를 얻는다네. 그 이후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이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이런 설법을 옆에서보고 감명받은 빔비사라왕은 귀의 후 불교 최초의 정사인 죽림을 보시한다. 그 때까지 부처님은 숲속의 묘에서 설법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후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 아래로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신분의 승가가 형성된다. 빔비사라왕은 아들인 아사세 태자와의 갈등이 심해진다. 빔비사라왕 대신 빨리 왕위를 물려받고 싶은 욕망을 부처님 출현 이후 위기의식을 느꼈던 브라만들이 부추겼던 것이다.

아사세 태자는 빔비사라왕에게 결국 자객을 보낸다. 마가다국에서는 부자지간의 갈등이 더욱 높아진다.

이런 와중에 부처님은 샤카국으로 드디어 향한다. 금의환향이었다. 부왕인 숫도다나왕이 영접에 나서고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샤카국에 도착한다. 야소다라와 라훌라를 만난 부처님은 이들을 잊지 않았음을 말한다. 이어 수십년을 기다린 야소다라와 부처님이 단 둘이 만나게 되며 40회는 끝을 맺는다.

BTN Buddhist True Network
본방 매주 수 · 목 저녁 9시
재방 일요일 새벽 1시 · 오후 3시(각각 2회 방영)
월~목 새벽 1시/ 화 · 수 오전 9시

리뷰 – 법현 스님이 본 드라마 '붓다'

전법교화와 신비현상

붓다는 가만히 보면 고비스런 현상이나 절대자에게 복을 비는 따위의 일은 하지 않은 것으로 경전에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묘한 일을 겪지 않거나 붓다에게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우선 꿈 이야기를 해보자. 붓다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 몇 가지 꿈을 꾸었다고 한다. 하나는 산 위 하늘 구름 위에 누워있는 꿈이다. 이는 붓다가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이들 위에 있으며 모든 이들과 통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둘은 트리야나라는 나무가 배꼽에서 자라나서 구름 위까지 자라나는 꿈이다. 셋은 모든 사람들이 붓다의 발아래에 모이는 꿈이다. 이는 사해(四海)다의 중생들이 신앙의 전통에 관계없이 모두 붓다에게 귀의한다는 것을 예지한다. 넷은 네 가지 색을 가진 비둘기가 모두 흰색으로 변하는 꿈이다. 인도, 불교에서 흰색은 성스러운 것을 상징하고 뒤에 대승불교에서는 연각,성문,보살의 셋이 하나인 일불승(一佛乘)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품기도 한다. 다섯은 진흙상과 지하감옥을 지나는 꿈을 꾼다. 그런데 아무런 흙이 묻지 않았다. 이는 구제를 위해 더러운 중생세간에 머물지라도 그들에게 물들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한다.

꿈은 아니지만 스스로 체험해보는 신비로운 이야기도 있다. 자신의 수행이 깨달음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다면 흐르는 물 위에 발우를 띄워놓았을 때 물의 흐름을 따라 흘러내려가지 않고 거꾸로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실제로 그런 현상을 여러 사람과 함께 목격한다.

그러나 붓다 자신은 신비스런 현상과 관련하여 강조하거나 기적적인 효과를 위해 비는 행위를 권장하지 않았다. 불교에서는 어떤 일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창조주나 주재주를 인정하지 않지만 신통력 등 일정한 신비는 현상으로 긍정한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원인을 제공해야 합리적인 결과(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도를 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거나, 되지 않을 일이 되는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붓다는 말한다. "연못 속에 바위가 빠졌으면 건져내야 한다. 연못 물 위에 기름이 쏟아졌으면 건져내야 한다.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가라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것은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제일인 제자가 사리뿟다(사리불)의 친구인 목갈라나(목련)이다. 그의 집중력이 신통으로 발현하는 힘은 놀라워서 붓다를 만나서 지도를 받자 사리뿟다는 14일만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목갈라나는 7일만에 얻었다고 기록은 전한다. 그는 긴 장대 끝에 달려있는 발우를 날아서 내려오기도 하고 샤카족의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신통력으로 구하겠다는 제의를 하기도 하지만 붓다께서는 인연따라 해야 한다며 말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후대의 불자들은 신비현상인 신통력을 기대하는 마음이 강하다. 신통력은 위대한 이들이 가진 능력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의 3명(明)에다가 잘 달리는 신족통, 잘 듣는 천이통, 남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타심통의 3통(通)을 더해서 3명6통 또는 6신통이라고 한다.

요즘 스님이나 불자들도 좋아하는 기도(祈禱)라는 말보다는 정진(精進)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보다 붓다의 가르침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지만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도 중생계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다만, 정진이라는 말은 빠알리어 위리야(viriya)에서 온 말로 정정진, 정근(正勤)이라고도 한다. 정진은 본뜻은 열반(涅槃)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이미 생겼으면 더 자라게 하고 생기지 않은 것은 생기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이미 생긴 것은 잘라 없애버리고, 아직 생기지 않은 것은 생기지 못하도록 누르는 것을 말한다.그런 정진을 잘하신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의 명호를 지극하게 부름으로써 따라가는 것은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정근(진)이라고 하는 것이다. 붓다의 전법교화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자체가 당시의 시대상황으로서는 기적이나 신비로운 현상으로 비쳤던 것이지 실제로 붓다께서 신비를 강조하거나 체험하게 하지 않았다.



법현 스님(열린선원장 · BTN 자문위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 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실전교육

퇴마술, 최면술, 기공술
교육 이수후 자격증 부여

● 실전교육 퇴마사 현오스님 직강
● 부산 구포역센터 (월 · 화)
● 총무원 성봉사 (수·목·금·토·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196-1
● 방문시 예약필수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 퇴마 · 최면 연합회 본부
☎ 1899-8108 / 010-9229-3801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4권의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대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값 15,000원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각권 12,000원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2.3~2015.12.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야단법석-법륜스님의 지구촌 즉문즉설	법륜지음	정토
2	법명해설사전	조계종포교원	(주)조계종출판사
3	무아윤회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4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5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6	조용헌의 휴휴명당	조용헌	불광출판사
7	가피-제2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편집부엮음	모과나무
8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9	이야기를담은사찰밥상	이경애	아름다운인연
10	신심명(몰록깨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찰진 필력의 큰 울림… 불교적 사유 밑바탕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먼 산에 달이 오르네

김대원 지음
에세이문학출판부 펴냄
1만 3천원

2004년 봄 달마문예대학서 맹난자 작가를 스승으로 만나 수학하며 지금까지 수필과 시작에 정진하는 불자 수필가 김대원 작가〈오른쪽 사진〉가 최근 수필집과 시집을 잇달아 펴내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 책 제목은 수필집 〈먼산에 달이 오르네〉와 시집 〈놀이〉이다.

〈먼산에 달이 오르네〉는 2011년 출간한 〈백학산의 가을〉 이후 4년만의 신작으로 두 번째 수필집이다. 책은 DMZ 인근 경기도 장단이 고향인 저자가 애써 꾸미지 않고 담담하게 풀어낸 44편의 에세이로 구성돼 있다. 각 편마다 찰진 오곡밥처럼 꽉찬 필력의 울림이 때론 잔잔히 때론 커다랗게 전해진다. 대상의 내면을 깊은 시선으로 들여다보고 공감의 언어로 한 땀 한 땀을 손바느질하듯 이은 저자의 튼실한 문장은 수필문학으로 형상화된 삶의 조각이 들어있는 300쪽 마지막 페이지까지 비움과 겸허의 자세로 읽게끔 만들어 준다.

저자는 "절을 찾을 때, 그냥 그 절을 보지 말고 그 당시 어떤 마음으로 절을 지었고 어떤 간절함에 부처님을 모셨는지,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란다"며 "야간 산행 때 마당바위에 앉아 보던 휘영청 밝고 둥근달이 생각난다. 마치 비움, 하심, 용서를 바탕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물을 관조하며 글쓰기를 하라는 듯, 그 달은 내 안에 가득 차올라 성찰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앞으로 내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그때 가진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 한다."고 피력했다.

문학평론가 김우종 선생은 김대원 수필가의 수필 세계를 "일몰 풍경 또는 석양 길을 걷는 나그네의 서정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평가한 바가 있다. 그래서일까? 〈먼 산에 달이 오르네〉는 읽은 책들 중 유독 가슴 밑바닥에 부딪혀 오는 울림이 크다. 실향의 아픔이 눅진하지만 작가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산문적 언어의 바탕을 이루는 문장 호흡이 나직나직하면서 담백하다고 김우종 평론가는 밝힌다.



4년만의 신작 두 번째 수필집
문장호흡 나직하면서 담백해

실제로 〈참새〉를 읽어보면 더욱 잔잔한 울림을 주는 것을 느낀다. "시골 야트막한 언덕배기에 황토집 하나 짓게 된다면, 지붕은 참새들이 깃들어 살 수 있게 초가지붕으로 하련다. 뒤울안에는 큰 감나무를 서너 그루 심어 되도록 홍시를 많이 남겨두어야지. 그리고 김칫독 묻어둘 광도 만들어 두텁게 볏짚을 둘러치면 참새들의 쉼터도 될 수 있겠지. 바깥마당 채마밭엔 무와 배추, 아욱이며 쑥갓 그리고 파와 상추까지 골고루 심을 것이다. 벌레가 생기면 저들의 맛있는 먹이가 되도록."

계절의 변화를 노래한 〈먼 산에 달이 오르네〉는 자신을 반추하게 만든다. "굴참나무며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등 많은 활엽수들이 곧 잎을 떨굴 준비를 하고 있다. (…) 나도 지금 그쯤 되는 여정(旅程)의 길을 가고 있다. 오늘 산행은 턱에 숨이 차도록 서두름도 없이 또 멀리까지 가는 무리한 산행도 아니었다. 예전 같았으면 땀을 뻘뻘 흘리며 산 정상을 향해 앞만 보고 내처 달려가던 산행이었다. 젊은 시절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산행하는 모습도 바뀌어간다. 이제는 천천히 숲 속을 둘러보며 그 안에 나를 던져 내가 풀과 나무도 되고, 자그만 박새와 산비둘기도 되어본다."

시각이 선천적으로 따뜻했을 작가로 타고 났다는 것이 책갈피마다 느껴질 정도다. 전국전통사찰을 순례하며 심도 있는 혜안으로 재해석하고 역발상하는 재주가 놀랍다. 그려낸 풍경마다 애잔하면서 공감이 가는 것은 오랜 시간 글쓰기에 매진한 작가의 문장가적 기질때문일 것 같다.



놀이

김대원 지음
비가람 펴냄
1만원

이 책에 등장시는 단시는 모두 142편이다. 왜 저자는 단시집이라고 못 박았을까? 수록된 시 대부분이 불과 2행 위주의 단시형들이고, 3행과 4행을 헤아리거나 어쩌다가 10행이 넘는 파격시는 거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그처럼 단시형에 푹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본래부터 단시를 선호한 나머지 그 밖의 시엔 거의 손을 안 대온게 아닐까? 그렇다면 그는 아주 특이한 개성적 존재로 평가받아야 마땅할줄로 안다. 자기 나름의 뚜렷한 단시관이 서 있을게 분명하다.

시인에겐 반드시 투철한 시의식과 더불어 시 일반에 대한 비평 감각이 첨예화돼 있기 마련이다.

김대원 시인은 2행시가 주특기다. 1행시나 2행시나 그 근원의 차이는 없다. 대개는 한 줄로 엮어도 되는 것을 2행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세계적으로 널리 영향을 떨치고 있는 일본의 단시, 하이쿠가 전형적인 1행시로서도 될 수 있듯이 말이다. 특히 박희진 시인은 작고전 서문에서 "김대원 시인의 2행시는 얼핏 보아 일본의 하이쿠를 연상케 한다. 그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 있다."며 "두 시인의 시의 핵심이 지닌 파장의 넓이와 깊이에 있어서 김대원 시인의 것은 규모와 범위가 제한된 느낌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희진 시인은 "김대원 단시와 하이쿠의 또 하나 유사성은 하이쿠에는 거의 필수인 자연적 감각이 김대원의 단시에도 빠짐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겠다"며 "모두 7장으로 구분된 그의 이번 시집은 목차만 보아도 그의 자연 편중을 이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시에는 자연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그의 자연시는 곧 인생시, 불교시라고 봐도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본령은 역시 구도적 불교시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의 인생관의 중심 기저를 이루는 것은 곧 불교적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책 말미에 실린 저자의 약력이 이를 잘 대변해준다. 대한불교산악인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재임한 9년 동안 산행과 명상수련을 했다.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전국 745개의 전통사찰기행을 마치기도 했다. 명상수련은 달리말하면 좌선을 통한 화두참구라 볼 수 있으므로 김대원 시인은 참선화두와 시의 화두가 하나로 된 시인인 것이다. 〈놀이〉 시집에는 그것들이 짧은 단시로 잘 투영돼 있다. 김주일 기자

단시 142편 소개… 2행시 특기
그의 자연시는 곧 불교적 詩

저자 **김대원 작가**는?

경기도 장단(長湍)서 태어나 서울 덕수중 ·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 경영학과에 입학, 2학년 수료후 입대해 월남전에 참전, 맹호사령부서 군 복무를 마쳤다.
제이시어패럴을 설립해 경영하고 있다.
문학 활동이력은 2004년 〈수필과비평〉 수필로 등단한 이후 2006년 〈에세이문학〉으로 수필가 추천을 완료했다. 또한 2007년에는 월간 〈신문예〉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수상 경력으로는 2008년 제13회 탐미문학상(수필), 2008년 제20회 허난설헌문학상(시), 2013년 제3회 월파문학상(수필)을 받았다. 저서로는 수필집으로 〈백학산의 가을〉(2011년), 〈먼 산에 달이 오르네〉(2015년), 단시집 〈놀이〉(2015년) 등이 있다.
현재는 (사)한국수필문학진흥회 부회장, 에세이문학작가회 및 달마문학회 회장, 한국문인협회 · 국제 펜 한국본부 · 수필과비평 · 송현수필문학회 · 신문예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세상의 변화 움직이는 이치와 법칙
〈주역〉 공부방법 상세히 안내

새벽에 혼자 읽는 주역인문학

김승호 지음 | 다산북스 펴냄 | 1만 5천원



주역은 오랫동안 최고의 경전으로 칭송되며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주역은 운세를 보는 책이라거나 읽기 어려운 한문으로 가득한 경전이라고 생각될 뿐이다. 하지만 공자는 '가죽 끈이 세 번 끊어지도록' 주역을 읽었으며, 노자 역시 주요한 사상을 주역에서 빌려왔다. 또한 다산 정약용은 힘든 유배 생활 중에도 수년에 걸쳐 주역에 대한 저서를 남겼다. 서양의 아인슈타인부터 융까지 최고의 지성들 역시 하나같이 '주역'에 심취했다. 왜 그들은 수많은 고전들 중에서 주역에 심취한 것일까?

지난 50년 동안 주역 연구에 매진하며 '주역과학'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정립한 주역학자 김승호에 따르면 주역은 세상과 변화와 세상이 움직이는 이치를 알려주는 지혜의 보고(寶庫)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역을 공부해야 한다. 그러나 한자와 괘상으로 가득한 주역은 쉽지 않다. 그래서 김승호 저자는 〈새벽에 혼자 읽는 주역인문학〉서 보통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역을 풀어낸다. 이 책은 가장 쉽고 명확하게 주역의 기본을 소개하고, 주역 속에 담긴 세상 만물의 변화 원리를 보여준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주역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주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주역은 신비의 학문이며 사서삼경(四書三經) 중 하나이다. 또한 주역이 점의 원리이며 우주의 원리를 설명한 이론이라든가, 귀신을 부르는 학문이라든가, 성인의 학문이라든가, 신선의 공부라는 사람도 있다. 한국최고의 주역학자 김승호 저자에 따르면 주역은 우주의 순행 원리와 대자연의 질서, 인간 세계의 도를 규명하는 학문으로, 최근에는 새로운 시대의 대안적 세계관으로 더더욱 각광받고 있다.

그런데 주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한다. 왜냐하면 주역은 한문으로, 그것도 중국인조차 알기 힘든 고대 한문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또한 괘상 역시 암호처럼 보여 더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주역에 대해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김승호 저자는 괘상을 한문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씩 풀어 이야기한다. 양효와 음효가 3개씩 만나 팔괘를 이루고, 또 팔괘가 2개씩 짝을 지어 대성괘를 이루는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팔괘는 글로 따지면 단어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상하로 배치하면 문장과 비슷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은 만물을 어떠한 상태라도 표현할 수 있다. 즉 주역은 '8개의 단어와 6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팔괘만 제대로 알면 주역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쉬운 주역을 우리는 왜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을까? 저자에 따르면 그 이유는 괘상을 직접 연구하지 않고 한문의 번역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 주역의 괘상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괘상만 알면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주역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즉, 괘상을 통해 세상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주역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저자의 주역공부 50년 내공 담겨
괘상 바로알면 주역 해석 쉬워져

주역은 의학, 음악, 과학, 심리학, 군사학 등 어느 곳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주역이 무수히 많은 교훈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역에서 최고의 지혜를 배우는 한편, 그것에서 얻어지는 교훈을 인생에 적급 도입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는 보람이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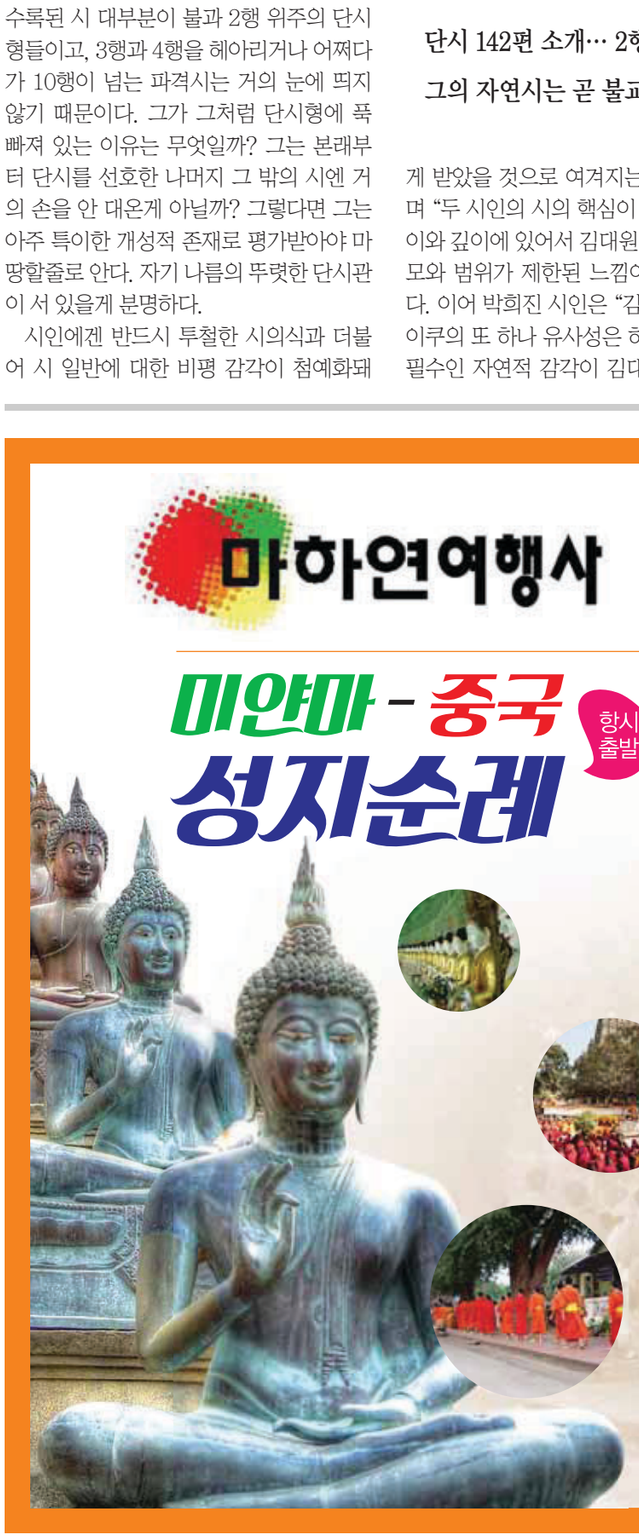
"내가 끝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주역을 모르고는 인생을 알 수 없다는 것뿐이다. 만물의 뜻을 모르고서 어찌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을 통해 주역을 만나보라. 주역공부를 통해 당신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몸과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며, 변화에 끌려다니기보다 변화를 주도하고, 만물의 뜻을 인생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 도 11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요금문의
미 얀 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항시 출발



Myanmar
천불 천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시–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의상 스님 구도역정 소설로 풀어낸 화엄 이야기”

법성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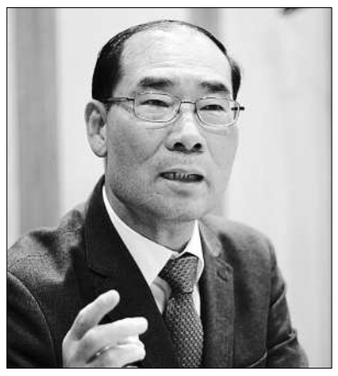
허장욱 지음 | 부다가야 펴냄 | 1만 4천원



원효대사와 함께 당나라에 진리를 구하러 간 의상대사는 ‘해동화엄초조(海東華嚴初祖)’, 즉 신라 화엄종의 시조라 불린다. 화엄종 근본 교의인 〈대방광불화엄경〉의 가르침에 따라 의상대사는 법성게를 지어 널리 알렸다.

법성게는 〈대방광불화엄경〉 진수를 210자 7언 30구의 시로 함축해 담아둔 것이다. 법성게의 그 뜻을 잘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성도 후 처음 부처님이 설파한 우주의 실상을 알 수 있다해서 화엄의 진수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법성게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의상대사의 법성게를 깊이 알고자 한다면 그 바탕에는 반드시 〈화엄경〉과 〈대승기신론〉등 다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전이 깊이 연구돼야 한다.

저자 허장욱<사진>은 공부하기 어려운 법성게를 대중에게 친숙히 접근해 설명을 하고자 했다. 그 방법으로 저자가 선택한 것은 소설이다. 어릴 적부터 문학에 심취한 저자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고위 공직자로 활동했지만 불교 공부와 문학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국세청 납세지원 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활동하면



2년에 걸쳐 의상 스님 관련 서적 연구
중국 직접 현장 답사하며 자료 수집
〈법성게〉 읽기 편하게 이야기식 구성

서 1990년에는 월간 문예사조에 단편소설 ‘재회’로 등단 한 작가이다. 또한 ‘시인과 뜸부기’라는 소설과 〈화엄예찬〉이라는 시집도 발간했다.

저자는 법성게라는 신묘한 시가 탄생한 배경을 찾아 의상대사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2010년 6월 명예퇴직한 저자는 불교에 더욱 심취해 의상 대사에 대한 국내 논문과 〈대승기신론〉 〈법화경〉 〈화엄경〉 〈송고승전〉등에 관한 자료를 비롯해 〈삼국유사〉 까지 2년에 걸쳐 빠짐 없이 검토 연구했다. 또한 중국에 직접 현장을 답사하며 자료를 수집했다. 저자는 불교에 대한 연구로 밤을 지새웠다고 했다. 공부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그는 이 보물과 같은 말씀을 어떻게든 전하고픈 원력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다. 그는 고심 중에 갖고 있는 재능 중 문학을 선택했다. 이 책은 의상대사의 구도 역정을 장편 소설로 담아 법성게를 쉽게 설명했다. 책은 의상대사가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구법 여행을 떠나는 순간부터 출발한다. 당나라 시대에 대한 묘사, 의상 대사에게 영향을 끼친 인연, 화엄경과의 만남 등 구체적인 설명과 대사로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 생생한 장면이 그려진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불교를 깊이 있게 이해한 저자의 구체적이고 친절한 설명이다. 불교 수행과 경험이 밑받침 된 저자의 글을 접하는 순간 스님들의 깊은 수행이 어떠한지 가늠케 만든다. 또한 수행의 깊은 맛 까지 함께 체험한 듯한 착각에 빠진다. 총 10부로 구성된 이 책 중 5부 ‘깨침의 새벽에 시를 쓰다’ 편은 법성게를 작성한 의상 대사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아울러 법성게를 읽기 편하게 이야기 구성에 맞춰 자세히 설명한 점도 큰 특징이다. 마지막 장 10부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라’에서 의상 대상의 열반을 덤덤한 필체로 담아 마무리 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화엄의 밝은 빛이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병폐로 신음하는 현대인에게 치료제가 되길 발원한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아무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머물 때 ‘자유’가 온다

禪으로 읽는 마하무드라의 노래

김태완 지음 | 침묵의 향기 펴냄 | 1만 3천원



무심선원 김태완 선원장의 〈禪으로 읽는 마하무드라의 노래〉는 〈禪으로 읽는 금강경〉에 이은 ‘김태완 선원장 설법 시리즈’의 다섯 번째 책이다.

‘마하무드라의 노래’는 대승불교 금강승인 티베트 불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탁월한 게송이다. 카규파의 창시자인 틸로빠가 지어 후계자인 나로빠에게 전해 준 이 게송은 늘 변함없는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모든 망상서 벗어나 이 진리를 깨닫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간결하고 아름다운 노래에 담고 있다. ‘마하무드라’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 즉 진여실상(眞如實相)을 가리킨다.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영원한 자유와 행복이다. 공부인들이 깨달음을 구하는 것도 결국은 이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이며, 이 길에 들어선 것은 다른 모든 길은 결국 미봉책에 불과함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세상서 배운 방식대로, 이 길에서도 역시 노력 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1천 년 전에 이 땅 위를 걷던 스승 틸로빠는 마하무드라의 노래 9절서 이렇게 말한다. “진언(眞言)과 육바라밀의 수행이나, 경전과 지침서의 가르침이나, 강의실과 교본(敎本)의 가르침이 타고난 진실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마음이 욕망에 차서 어떤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 마음은 스스로의 빛을 가릴 뿐이기 때문이다.”

모든 유위의 노력은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음의 욕망과 추구가 오히려 본래 있는 자신의 빛을 가려서 ‘타고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영원한 자유와 행복은 그런 상식적

티베트 불교서 중 가장 잘 알려진 게송
결코 변할 수 없는 ‘진여실상’ 지칭해
“대자유 위해서는 지금 이것 깨우쳐라”

인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통해야 한다고 틸로빠는 말한다.

“여전히 분별하고 있다면, 그는 깨달음의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다. 모든 활동을 멈추고, 모든 욕망을 버리고, 생각이 마치 바다의 물결처럼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내버려두어라.”

그렇게 아무 노력 없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에 머무를 때, 늘 이 자리에 있는 진실을 알아차릴 수 있으며, 그럴 때 질긴 굴레를 부수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눈앞을 가린 무명으로 인해 모르고 있을 뿐, 그래서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을 뿐, 사실은 본래 완전하며 본래 부처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노력도 없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머무르면, 우리가 무의법(無依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애를 쓰고 노력해서 자유롭다면 그것은 진정 자유로운 게 아니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얽매여 있는 것인데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애를 쓰고 노력해서 자유로운 것은 자유가 아니죠. 진정한 자유는 아무 일이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얽매이는 데도 없고, 머무는 데도 없고, 그냥 이것뿐이에요. (손가락을 세우며) 이 법 하나! 이것만 분명하면 아무 걸림이 없고 항상 이 일 하나뿐인 거죠. 남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조차도 없는데 남을 의식하고 할 게 없죠. 하여튼 이것 하나! 이것 하나뿐입니다. (손을 흔들며) 언제든지 그냥 이 법입니다. ‘이것!’ 하나만 분명하고 충실하면 됩니다.”

어디에도 걸림 없는 대자유를 위해서는 우리의 ‘타고난 진실’을,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을 깨쳐야 한다. 이 진실은 잘못된 방식으로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미 깨친 선지식의 바른 지도를 받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다. 〈禪으로 읽는 마하무드라의 노래〉는 수많은 방향서, 수많은 손가락으로 이 진실 하나를 가리키므로, 책을 읽는 동안 독자로 하여금 저절로 몰입돼 이 진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밝힐 수 있게 했다.

김주일 기자

‘반농반X족’ … 소박하지만 가치 있어

반농반X의 삶

시오미 나오키 지음 | 노경아 옮김 | 더 숲 펴냄 | 1만 4천원



자연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설계하려는 귀농 · 귀촌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다. 이것은 단지 노년의 삶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2010년 30대 귀농 · 귀촌 인구는 761명에서 2014년 7743명으로 10배가량 급증했다고 한다. 이는 성공신화에 빠져 있던 개인과 사회의 삶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귀농 · 귀촌은 농촌생활에의 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다. 이번에 출간된 〈반농반X의 삶〉은 이렇게 자연 속에서의 삶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반농반X(엑스)’란 농업을 통해 정말로 필요한 것만 채우는 작은 생활을 유지하는 동시에, 저술 · 예술 · 지역 활동 등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X)’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삶의 방식이다. 농업을 통해 식량을 지속가능하게 자급함으로써 대량생산 · 운송 · 소비 · 폐기를 멀리하는 ‘순환형 사회’를 추구하고, 자신의 타고난 재주를 세상을 위해 활용함으로써 인생은 물론,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대안적 삶을 말한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일본에서는 물론 중국 · 대만에까지 소개 · 확산됐고, 한국에서도 원서를 찾아보고 직접 저자를 찾아갈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영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 다양한 나라의 잡지와 인터넷 사이트에 반농반X가 소개됐다. 이런 전 세계적인 반응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 책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서 시작됐다. 저자는 어떤 것의 부속물이 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지키는 지혜와 하나의 일을 완수하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해야 먹고사는 것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삶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혜는 농사, 역량은 X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귀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베란다나 텃밭에 자신이 먹을 것을 조금씩 재배하면서 시작해도 좋다. X 역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보며 천천히 찾아가면 된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농반X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말이 생기는 것은 새로운 관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 관점이 생긴 것은 지금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책은 환경 · 식량 · 심리 · 교육 · 의료 · 복지 · 사회불안 등 현대 사회가 갖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농반X’를 꼽는다.

지금의 많은 문제는 인위적인 쏠림현상으로 일어난 것이며, 인적 · 물적 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한 ‘순환형 사회’를 만듦으로써 많은 부분이 해소된다. “X라는 문자에서 하나의 선은 자신의 길, 또 하나는 사회의 길이라면 그 접점은 자신과 사회가 조화된 지점을 나타낸다”라는 저자의 말서 알 수 있듯이 ‘반농반X’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대안이다. 저자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5년, ‘환경문제’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반농반X’라는 삶의 방식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후, 10년 간의 회사생활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고향에 돌아가 본격적으로 ‘반농반X’의 삶을 살아간다. 이 책에는 영화자막 번역가, 화가, 민박집 주인, 건강한 밥상요리교실 강사, 웹디자이너, 간병인, 심리치유사 등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소개되는데, 그들의 이야기서 알 수 있듯이 ‘반농반X’에는 현실적 삶과 대안이 담겼을 뿐 아니라 자신의 천직과 보람을 찾게 한다. 숨막히는 삶과 막다른 골목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미래적 방향성을 현실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들의 각각의 이야기 끝의 ‘덧붙이는 말’에는 몇 년의 세월이 지난 후의 이야

‘온전한 삶’을 위한 고민서 비롯돼
저자, “농사와 일 반반 섞어라” 주장

기가 실려 있는데, 이것을 통해 반농반X가 그저 허무맹랑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세상은 확실히 빨셈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20세기는 ‘만들기’ ‘늘리기’를 통한 덧셈의 시대고 그로 인해 군살이 붙은 사회와 개인들이 다양한 사회 병리 현상을 일으켰다. 이제는 그 군살을 빼서 지역, 가족, 개인 등 작은 공동체의 압축성과 세련성을 추구해야 한다. 규모의 이익(Scale Merit)에서 작은 것의 이점(Small Merit)으로 가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효율만 좇던 현대 사회에서 여러 사회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경제가 성장해야 삶과 사회가 풍요로워진다는 논리에 슬슬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제 성장이 전제되지 않아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성장은 한계에 이르고, 소유가치에서 이용가치로, 규모의 이익에서 작은 것의 이점으로, 독점에서 공유로 시대의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지금 ‘반농반X’라는 화두는 가장 시의적절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삶과 사회에 대한 따뜻한 통찰과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한 이 책은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많은 이들의 경험을 통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증명했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하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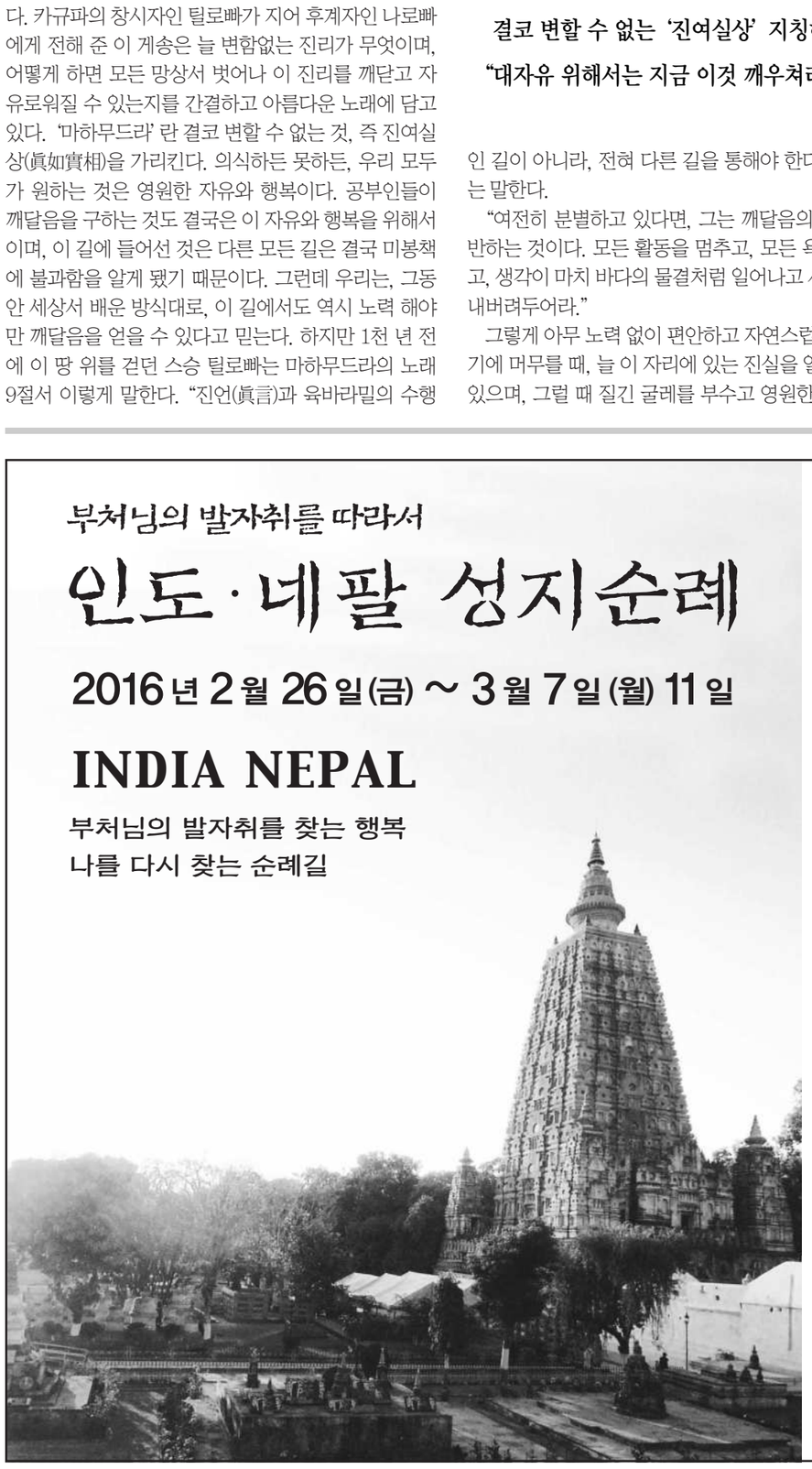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 네팔 성지순례

2016년 2월 26일(금) ~ 3월 7일(월) 11일

INDIA NEPAL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는 행복
나를 다시 찾는 순례길



순례지도법사 – 법현스님



• 활동사항
◇한국불교태고종 열린선원 원장
◇BTN 즉문즉설 출연 방송중
◇저서 〈추워도 향기를 팔지않는 매화처럼〉 외 다수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순례지도법사 – 효진스님



• 활동사항
◇대한불교조계종 광주 행복도량 광덕사 주지
◇마음치유 MOST 행복센터 평생교육원

인도 · 네팔 성지순례 특별 동행

힐링 명상 음악가 김태곤 가수, 보건학 박사



오감만족에만 그치지 않는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느끼는
음악을 통해 청정함과 참 자아 찾기
그리고 기계적이 아닌 자연진동에
저절로 흔들이는 참 생명력
• 히트곡 : 망부석, 송학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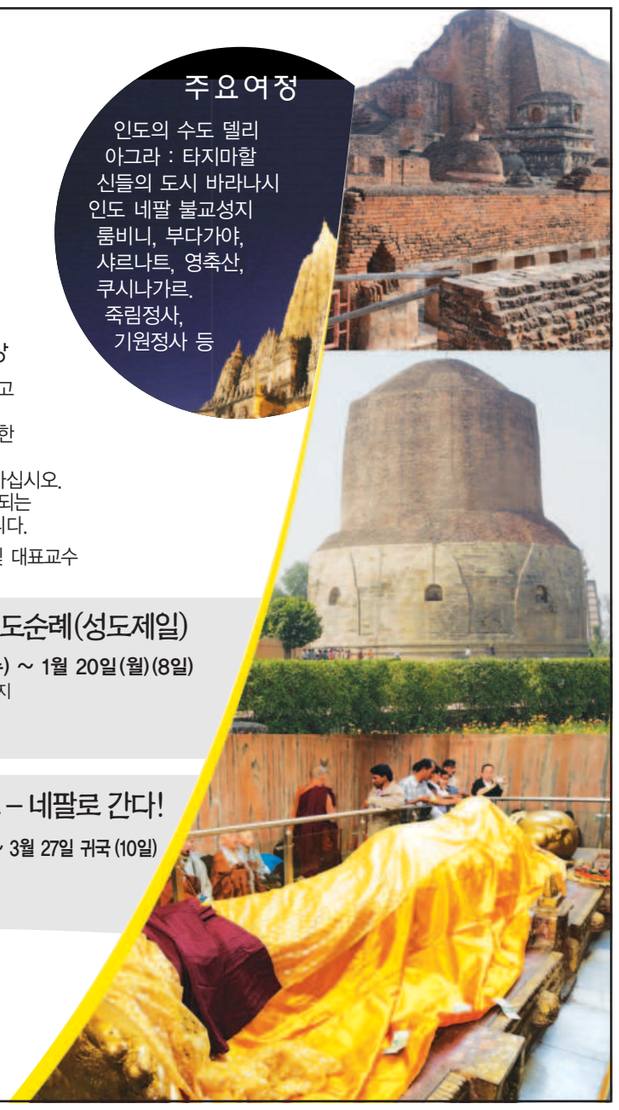
‘심신건강증진 음악으로 긍정에너지의 활기’를 느껴보세요!!

<동행> 마음 치유 명상 힐러 김기호 원장



당신은 지금 청춘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인생은 도전이 멈추지 않는 한
늙지 않습니다.
한해가 흘렀음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또 다른 청춘이 시작되는
새로운 나를 만나는 하루입니다.
• 아름다운 삶 교육원 원장 및 대표교수

주요여정
인도의 수도 델리
아그라 : 타지마할
신들의 도시 바라나시
인도 네팔 불교성지
룸비니, 부다가야,
샤르나트, 영축산,
쿠시나가르,
죽림정사,
기원정사 등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016년 2월 5일 (금) 까지
■ 동 참 금 : 275만원
■ 신 청 금 : 50만원
■ 1차 접수 : 265만원 (12월 30일까지)
2차 접수 : 275만원 (2월 5일까지)
■ 여권사본과 신청금을 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권사본 보내는 방법◁
팩스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 : fung101
■ 문의접수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412호
불타 여행사
TEL : 02) 733-9317 / FAX : 02) 732-9317
■ 문의하시면 자세한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드가야 대각 성도지 기도순례(성도제일)
■ 출발날짜 : 2016년 1월 13일(수) ~ 1월 20일(월)(8일)
■ 접수마감 : 2015년 12월 24일 까지
■ 지도법사 : 향림사 주지 경진스님
■ 순례비용 : 235만원



나는 붓다를 느끼려 인도 – 네팔로 간다!
■ 출발날짜 : 2016년 3월 18일(금) ~ 3월 27일 귀국 (10일)
■ 순례비용 : 239만원
■ 부처님 성지 – 아그라 – 델리

불타 BUDDHA BOHEMIAN 붓다 보헤미안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문정왕후 비호로 조선 불교 기사회생

21. 선교양종의 재건과 도약의 전조

16세기는 법제적 폐불이 단행되고 선교양종이 일시 재건되었다가 혁파된 격변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일어난 변동과 지속의 양상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 조선시대 불교를 이해하는 기본 틀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카하시 토오루는 〈이조불교〉에서 이 시기를 폐불기, 그리고 청허 휴정과 같은 고승이 일부 나와 명맥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결국 쇠퇴와 멸절의 길이 가속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일반적인 한국불교사 개설에서도 조선전기는 억불과 폐불을 특징으로 하며, 그 정점을 찍은 시기가 바로 16세기 전반의 연산군, 중종 때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에 비해 조선후기는 전기에 비해 불교가 활성화되었고 다양한 존립의 토대가 마련되었음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16세기 불교는 여전히 잿빛 장막 뒤에 감춰진 채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다. 최근 16세기에 불서 간행의 빈도와 양이 전에 비해 급증했고 유교사회가 정착됨에 따라 불교정책은 오히려 교화와 방임으로 전환되었다는 연구가 나와 이 시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연산군과 중종대를 거치면서 거의 폐불 위기까지 가면서 활로를 찾지 못했던 불교계는 16세기 중반의 명종대(1545~1567)에 기사회생의 전기를 맞이하였다. 어린 명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했던 문정왕후의 명에 의해 1550년(명종 5) 선종과 교종의 양종이 다시 세워진 것이다.

문정왕후는 영의정 상진에게 내린 '비망록' 에서 "승도의 수가 날로 늘고 군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승도를 다스리지 못하면 잡승을 금하기 어렵다. 조종의 〈경국대전〉에서 선종과 교종을 설립했던 것은 불도를 숭앙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승려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근래 이것이 혁파되면서 그 폐단을 장차 구제하기 어려우니 양종을 다시 세우고 〈경국대전〉의 승과와 도승조를 다시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시행의 취지를 밝혔다. 공식적으로 양종과 승과를 재개시켜 승도의 증가로 인한 폐단을 최소화하고 교단을 통제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 결국 언관과 유생 등의 격렬한 반대와 빗발치는 상소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된 것이 아니며 시세에 맞추어 국가의 폐단을 구제하려는 것' 임을 들어 단행하였다.

양종의 재건은 역을 피해 승려가 된 무도첩 승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방향에 의한 것으로, 이는 불교를 공인해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현실적 판단에서 기인하였다.

앞서 중종 후반기인 1530년대에 불법적 승도의 급증이 정치쟁점화 되었는데, 당시 조정의 논의를 보면 "지금 불교의 쇠퇴함이 가장 심하지만 승도의 수가 많은 것도 이전보다 매우 심하므로 제방을 쌓는 역사 등에 승도를 동원할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지금 사찰이 여전히 많고 승속이 섞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등 불교를 숭봉할 때보다 그 해로움이 더 하므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대규모 공역에 승도를 활용하고 대가로 호패를 지급하는 '역승급패' 의 방안이 일시 시행되었다. 양종이 복립되고 나서 1555년에 을묘왜변이 일어나자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승군이 조직되었는데 이 또한 승도를 국가정책상 활용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선교양종의 재건과 함께 연산군과 중종대 중단되었던 승과도 양종판사의 주관과 예조정랑의 참관 하에 다시 거행되었다. 즉 3년 식년에 해당하는 1552년 4월에 승과가 재개되어 선종 21명, 교종 12명이 최종 합격되었다. 승과를 통과한 승려들은 승직을 부여받고 내원당 등 왕실 관련 사찰의 주지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들 승과 출신이 불교계를 주도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처음 열린 승과 출신인 청허 휴정(1520~1604)은 1555년 교종판사에 이어 선종판사를 겸임하였고 선종본사 봉은사 주지를 맡았다. 사명 유정(1544~1610) 또한 1561년의 승과 급제 후 봉은사 주지로 천거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그런데 당시 승과는 교계를 주도하는 고위급 승려를 배출하는 원래의 목적 외에 도승을 위한 편법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부터 급증한 무도첩 승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미봉책이었는데, 양종이 재건된 다음 해인 1551년에 식년이 아님에도 선종의 시경 시험을 보았고 이때 406명이 합격하였다. 또 1552년 정식 식년시 때도 도별로 인원이 배정되어 총 2,600명의 시경승 수가 정해졌다.

이에 승과를 통해 도첩만 내줄 뿐 양종재건의 명분이었던 양역으로 배정되는 승려가 없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승과의 최종 합격자에게 승직을 주는 것과는 별도로 응시 승려 대다수에게 승려 자격을 인정해 주는 도승의 방안으로 시경이 활용되었던 것이다.

양종이 재건되면서 초대 선종판사로는 문정왕후의 신임을 받은 허응 보우가, 교종판사는 수진이 임명되었는데 각각 선종본사 봉은사와 교종본사 봉선사의 주지를 맡았다. 봉은사는 성종, 봉선사는 세조의 원찰이자 능침사찰이었는데, 이때 문정왕후에 의해 남편 중종의 능이 수복사로 지정된 봉은사 근처로 이장되었다. 성종의 선릉과 중종의 정릉을 합친 선정릉은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의 역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선종판사로서 당시 교단을 주도했던 허응 보우(?~1565)의 구체적 사승관계나 활동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는 선종인 조계종의 후예임을 표명하였다.

한편 보우의 제자 태균이 보우의 문집 〈허응당집〉과 〈나암잡저〉를 편찬하였는데, 〈나암잡저〉의 교정은 사명 유정이 맡아 보았다. 그런데 〈나암잡저〉를 통해 보우가 〈대승기신론〉, 〈화엄경〉 등 교학에 정통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선교 양종에 각각의 종론이 있고 교종판사 수진의 후임을 선종 승려가 맡아서 교종계의 반발을 샀다는 기록을 보면 선과 교의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우는 "교는 진제를 설하고 선은 속제를 설한다"고 하여 교종 우위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명종 5년 선·교 양종 다시 세워져
승과도 부활… 휴정·유정 등 배출
봉은사·봉선사, 선·교종 본사 담당
보우·수진, 각각 선·교종판사 맡아
문정왕후 서거 후 양종 모두 혁파돼

〈이조불교〉에서도 보우의 성향이 선종보다는 화엄 교종에 더 가깝다고 평하였는데, 선과 교를 융합해야 했던 상황에서 선승인 보우가 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양자의 조화를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교양종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은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형이 이끄는 소윤 세력이 정국을 주도했던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왕실과 일부 척신세력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파격적인 불교정책의 전환과 시행에는 그 이면에 왕실재정과 사원재정의 결탁이라는 경제적 배경이 개재되어 있었다.

양종 복립 후 왕실의 내원당에는 금표를 쳐서 관에 의한 과도한 승려 동원을 억제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내원당과 능침사 등 왕실관련 사찰의 운영은 왕실재정을 관할하는 내수사에서 실제 주관하였는데, 전세와 잡역을 면제하는 조치를 통해 내원당 사위전으로 민전의 투속을 유도하고 증가한 전지에서 나오는 전세와 수익을 왕실재정의 기반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당시 승과를 통해 배출된 이들이 왕실 관련 사찰의 주지나 지음으로 임명되었는데, 내원당 등 왕실 관련 사찰은 양종 재건 전에 99개소였던 것이 395개소로 급격히 늘어났고 이는 양종 재건과 왕실 재정 사이의 함수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선교양종은 문정왕후가 계속 존속시킬 것을 유언하고 세상을 뜬 후 바로 다음해인 1566년에 혁파되었다. 명종은 모후의 유훈을 들어 폐지를 거부하였지만 관료뿐 아니라 유생들이 성균관을 비우고 1천 건의 상소를 올리는 등 격렬하게 혁파를 요구한 끝에, 재건 16년 만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당시 배불 상소의 내용을 보면 양종뿐 아니라 왕실 내수사도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그 결과 양종 혁파와 함께 사찰의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수세지가 국가에 속공되었는데, 명종은 능침사와 내원당은 예외로 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내원당의 전답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때 속공된 전지가 다른 국가기관이 아닌 왕실 내수사로 이속된 것을 보면 사원의 토지가 왕실경제와 밀접히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처음 선종판사를 맡았던 허응 보우는 양종 복립의 주모자로 지목되었고 문정왕후 사후 바로 유자들의 성토의 주적이 되어 제주도로 유배된 후 제주목사 변협에 의해 장살 당했다. 이는 신라의 불교 공인을 위해 흰 피를 쏟으며 죽은 이차돈에 이어 유교국가 조선에서 불교 재흥을 위해 노력하다가 목숨을 잃은 일종의 순교였다.

선교양종의 판사직을 역임한 휴정도 양종 당시의 활동을 회고하며 '산승의 추악한 일' 로 자평하였는데, 이 또한 이러한 참담한 귀결을 목도하면서 나온 인식이었다. 휴정은 자신이 승과와 승직에 나간 것에 대해, "사람들의 청에 억지로 따랐다"고 고백하였고 스스로 판사직을 그만 둔 것은 "문득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해서였다"고 술회하였다.

양종의 일시적 재건은 조선시대 불교사의 전체 흐름 속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그 이유는 도승 및 승과의 재개를 통해 불교의 인적기반 확대 및 재생산, 교단의 조직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중종대에 단행된 법제적 폐불 및 정책상의 방임의 결과 제도권 밖에서 명맥을 잇던 불교계는 이 시기에 승려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성종대인 1470년대에 도첩 시행이 일시 중단되면서부터 '역승급패' 와 같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두 세대 이상에 걸쳐 도첩이 새로 발급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는 더 이상 공인된 승려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폐불의 위기였다. 그러한 시기에 공식적 승려 자격을 대규모로 허용한 것은 불교의 존립과 안정적 계승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승과를 통해 주지나 승직을 제수 받은 청허 휴정과 사명 유정과 같은 고승들이 부상하면서 이들이 양종 혁파 후에도 불교계를 주도하고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즉 16세기 후반의 불교계는 학습과 저술, 교육에 매진하였고 불서 간행 등 각종 불사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명종의 뒤를 이은 선조대(1567~1608)는 율곡 이이 등 다수의 명현들이 대거 등장하고 사림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면서 붕당정치가 시작되는 등 조선이 본격적인 유교사회로 접어든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선조는 "다스리는 도를 융성하게 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한다면 우리 도가 쇠하고 이단이 성할 것은 걱정할 것도 없다. 어찌 구구하게 강론하여 마치 위의 태무제가 사문을 죽이고 사찰을 헐어버린 것처럼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여 불교에 대한 억제가 아닌 방임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선조는 정업원 혁파 논의에 대해서도 "전후본말을 모르면서 하찮은 문제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답하였다. 당시의 명유이자 휴정과도 교류했던 남명 조식은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眞正)은 마음을 보존하는 것으로 천리에 통달하는 것에서는 유교나 불교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도 선조가 불도를 좋아한지 오래이므로 그 마음을 유학으로 옮길 것을 주청하였다. 〈선조실록〉을 쓴 사관 또한 "임금의 말이 선학(禪學)과 같아서 마음을 곧게 하고 몸을 닦는 도리가 부족하다"고 평하였다. 이처럼 유교의 정착에 따른 자신감의 반영으로, 그리고 선조의 불교에 대한 호의가 덧붙여져 선조대에는 불교를 더 이상 억압하지 않고 방임해 두는 정책 기조가 확고히 굳어졌다.



허응당 보우 스님의 진영. 문정왕후의 총애를 받던 허응당 보우 스님은 선교 양종이 일시적으로 재건되자 초대 선종판사를 맡고 선종 본사인 봉은사 주지로 활동했다. 하지만 문정왕후 사후에 제주도로 보내졌으며, 그곳에서 장살됐다.


봉은사 전경. 명종대에 일시적으로 선교 양종이 부활되고 선종 본사의 역할을 담당했다.


봉선사의 일주문. 선교양종이 부활되고 교종 본사의 역할을 했다. 당시 교종판사로는 수진 스님이 임명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푹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좋은인연 대출안내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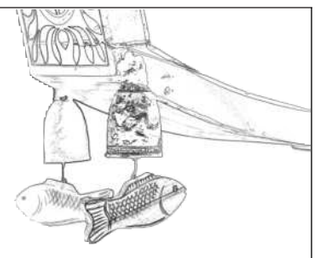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만약 너희들에게 두려움이 생기거든
나를 생각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리라.

- 증일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
천도재,사십구재(호적,
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자연산 상황버섯

면역력 증진
생명 연장력
뛰어난 항암력
(지리산 심마니)
010-8687-9003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운이 나쁜데 어디 운을 고칠 부적 없습니까? 여기로 오세요.

인터넷: "치우천왕 정담" 검색
치우천왕 부적 5만원
농협 351-0527-5845-43
내 마음의절
010-4500-8234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빙의퇴마,천병,
신병,우울증,병명없이 아
프고 우환 고생하시는분.
스님, 보살 상담환영
금강사 010-5152-1222

관 상 (손금)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얼굴 손금만 봐도 어떤 질병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암,질병,산소문제 재판,가족,교통사고 운을 알 수 있다
- 관상, 손금, 성명학, 타로, 사주 (개인지도, 단체)
- "관상과 손금 임상비법" 책 출간 (판매 중)

010-4014-8822

사찰 소임 원합니다

게송,법문,범패,불교의식
전문 / 함께 큰불사 이룰
수 있는 원력! / 땅이나 건
물 저렴하게 보시하실 분.
큰 인연 연락주세요.
곡차, 향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010-2553-8827

비구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7-206-0113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신심깊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8916-040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234-2198
010-8721-219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기도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 팔공산)
010-3825-318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0-5219-7021

스님에게만 전수하는

- 특수한 기도법
-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 032)664-0048 / 011-741-0867

빙의(퇴마) 전수해 드립니다 (최면)

- 빙의된 본인 입으로 어떤 영가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몸에서어떤 일을 했는지 등 명확하게 찾아 내어서 천도합니다. (몸이 아닌 집안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
- 이유없이 아픈 몸, 분노, 불안 등을 가진 분이나 멀쩡한 분들도 누구나 빙의 되어 있습니다.

절,포교당,점집 운영시 꼭 필요함(그외 다수 전수)
만경사 051)757-7925. 010-3156-6414 운유 합장

기문둔갑 강의안내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기문을 보면 부모, 형제, 부부, 자식 등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운명에 공직자,사업자,직장자가 정해져 있다. 공직 생활할 운명이 사업을 하면 실패하며, 사업자가 왜 실패를 하는가. 왜! 부도가 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며 학생이 왜 공부가 안되는지 어떤 장애로 인해 공부가 안되는지 본인과 잘 맞는 학과 선택을 잘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어떤 질병을 타고 났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게 기문이다. 명리를 모르는 초보자도 5개월이면 완성이 가능합니다. 아는게 힘이다. 성의껏 강의 해 드립니다.
(출장강의 가능, 스님직접 강의, 항상 문의 가능) 010-3544-9777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영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암기없이 바로 적용하는 '필살기'
네이버,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중국 귀장술, 일본 도궁술 단기 완성
문의전화 010-8558-2345

해남 황토 고구마

산지 직송
1BOX 10kg 25,000원
(택배비 포함)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43602-04-065595 예금주 : 황향숙

010-3349-8802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3개월 사주,관상 대모집 (월 10만)
원격상담문의 010-5801-2203 부천상동역

한국불교전체 종단 · 단체 법 인 연 대

사단법인 세계평화불교종단 연합회



- 종단법인 설립 사암등록 안내
- 민법 · 문화광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문의
- 종무행정

010-2500-0111 / 011-356-3427

사찰홍보동영상제작방송
연 합 불 교 방 송
010-2500-0111,010-5334-9008

이젠 풍수도 과학적이고 정통해야 한다

- ◆산세를 자연과학으로 풀어내고
- ◆장심통으로 땅속혈맥 읽어내며
- ◆발복현상으로 반드시 증명되고
- ◆백발백중 감정 및 점혈 할수있는

新 풍수원리 太極山水穴脈地理

※ 태극서린 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며 집안이 흥성한다!!
◆발복흥성 혈맥잡는 비술득통!!
◆명당은 땅속 혈맥 갖춰야 진터!!
음 · 양터가 길흉화복 좌우한다!
▶족집게 터감정 진혈점지 알선상담◀
(절터 사업장 주택지 묘지 납골 수목장 등)
※비술 전수자 모집
문의 010-4600-7399 / 041-338-5595
전국좋은터잡기선양본부 덕숭산 방술회
덕숭산인 지천공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은혜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덜어 널리 베풀어도
한 순간도 미련을 남겨 후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벗을 만나 피안에 이르러 즐거우리라.

- 증일아함경 -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법인 사찰 양도
- 목조법당, 목조요사채, 방사건물 등
- 안정된 도심지 사찰, 토지 1,200㎡
- 양도가 : 5억원(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부산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온천동
- 총부지 : 약 80평
- 건물 : 법당 22평, 요사채 25평, 산신각
- 뒤는 산, 남향 주차
- 가액 : 스님 사정상 몽땅 3억 5천 (몸만오시면 됩니다)
직통 010-2595-7752
▶ 바다 근처 예쁜 사찰들◀
- 위치 : 동해, 남해, 거제도 바닷가
- 총부지: 동해 약 600평, 남해 500평, 거제도 약 400평
- 건물 : 법당, 산신각, 용신각(용왕당), 요사채 등등
- 가 액 : 동해 2억 5천, 남해 2억 5천, 거제도 3억 5천
- 조망권 : 바닷가 200m이내의 선물 같은 아름다운 전망
- 전, 월세도 가능함(거지도)
직통 051-863-6622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 2로 17번길 1, 504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경기수도권 ◎ 위치: 경기
◎ 대지: 220평 ◎ 종교용지:1300평
◎ 법당: 50평 ◎ 법당: 40평, 요사: 100평
◎ 요사: 60평 ◎ 경관수려 및 차량진입
◎ 양도: 6억 5천 ◎ 양도: 17억 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단양 사찰 안내
- 법당 90㎡, 요사채180㎡, 토지 890㎡
- 조용한 마을 끝사찰
- 양도가 : 1억 3천만원(전세가능 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주 IC부근 사찰
- 토지 6,100㎡
- 목조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4억
- 마을뒷편산쪽 안정된사찰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사찰
- 임야, 토지 5,000㎡
- 목조법당, 목조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등
- 산속사찰임, 조용함
- 가액 : 10억(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찰최적지 전통한옥
(밀양 얼음골)
- 총부지 6,200평, 전통 한옥 2채 (45평 30평) 및 한옥보일러실, 해발 400M 전망 최고의 명당
- 가지산, 운문산, 천황산 등 영남알프스 인접
- 현재 팬션 운영중
- 가액 : 33억
주인직 010-6563-3122
010-7100-6203

포교원 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에어컨, 큰 냉장고
- 금강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 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가능,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2층 전체 도시가스 보일러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비 3,900만원
010-4646-363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 20평, 평수 :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가격절충)
010-2384-032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시내 보문산 부근 전망좋고 위치가 좋습니다
- 명산인식장산과 보문산 공원이 바로 앞에 보이는 보문산 자락에 있음
- 사찰에서 보문산 50m
- 대전역(택시) 10분거리, 대지 70평 건물 1층 요사채 35평, 2층법당 25평
- 삼존불, 산신, 칠성 신중탱화, 인등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 가액 : 3억 3천만원
010-8701-960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 20평, 평수 :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가격절충)
010-2384-0327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 매각(가격 협의)
010-5097-3468

"급" 불교사 양도
- 장소 : 부산시 사하구 대로변
- 평수 : 10평
- 보증금 : 천오백만원
- 월세 : 45만원
※개인 사정으로 급 양도합니다. 시설금 육백에 모두 다 드리고
- 몸만 나갑니다.
010-6770-7598

사찰(급)안내
- 소남이 급히 공사찰 소임관계로 부득이 양도 하고저 하오니 뜻 있는 스님들께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750만원
- 평수 : 35평
010-3742-5925

대형 포교원
- 위치: 대구 시지 지하철 신매역 1번 출구 1분거리
- 8층 건물 5층 120평,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10만원, 관리비 50만원
- 남향이라 환하고 겨울 따뜻, 법당 기둥 하나 없는 넓은 공간
- 큰법당+큰방+종무실+종무실 방+주지실+기도실+탈의실2+주방 (전체 강화마루+보일러+방음벽+이중창 시공으로 조용)
- 불교대학, 선방, 명상요가수련원으로 적합
- 주말 주변 주차 대량 가능
- 주변에 상가, 학원, 병원, 학교 대단위 아파트단지 밀집
- 인테리어 1억 이상 완벽한 시설 일체 보시 (청도에 대형 템플스테이 불사 완료한 복 많은 포교원임)
문의 : 010-3487-003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경북 팔공산 자락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근방
- 평수 : 대지 100평, 건평28평, 1층 방3
- 주방거실 2층 법당 20평 증축
- 삼존불, 미타, 관음, 세지
- 상단탱화, 산신탱화, 신중탱화
- 법종, 소불 108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5천 월세 3천에 70만원
010-8611-7568

사찰(급)안내
-납골당 5,000기 허가 운영중-
- 위치: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화산리 447-4외 6필지(447-1,2,3,5,6 산144-5)
- 총부지:31,411㎡터(약 9,501평)
- 건물 : 법당 91.16㎡(28평) / 요사채 81.07㎡(25평)
- 납골당시설, 목조기와대웅전, 목조기와요사채, 납골시설, 풍수, 전경최고
- 교통 : 2차선지방도에서 500m 광주광역시에서 30㎞ / 장성읍에서 12㎞ / 장성 상무대옆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4115-5454

銀 염주 합장주 금강저 팔찌 목걸이 반지 모든것
「인터넷 : 네이버 주얼드림」 클릭하면
염주 · 목걸이 · 팔찌 · 반지, 기타 다양한 불교용품이
가득 소개되어 있습니다.
• 공장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현로 237-1
☎ 031-969-9495 / 010-5441-9495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광역시 중구 복산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 4층건물 중 1층 16평
- 법당, 방1개(친견실), 주방, 화장실, 별도공간 5평
- 시설 : 신설 삼존불, 신장, 영가단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상담후 가격 결정
052-291-3379
010-4576-22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3길 124-5
- 가야산 국립공원, 해발 600m 지점, 청정지역, 경관수려
- 부지 약 360평, 건평 45평
- 임법당 준공 1년
- 가액 : 1억 4천만원
010-7161-210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전철 문정역에서 3분거리
- 4층건물중 2층 45평, 법당, 방 3
- 원목탁자, 삼존불, 탱화3점, 에어컨2대
- 냉장고, 세탁기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8년간 운영(절을 지어 이사하게 됨)
02)762-0108
02)433-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20분 거리 호남선 옥과 IC 5키로
- 종교부지 650평, 산 1만2천평
- 기암괴석, 사자앙천혈
- 조립식건물 3동, 3존불 봉안
- 적송나무숲 암자, 노천약사석불
- 가액 : 3억 5천
- 장난전화 하지 합시다
010-8224-168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5분거리
- 3층 건물중 2층, 같은 3층(60평)
- 종무실 1, 방 2, 화장실 2, 욕실 1, 후원(상태 깨끗합니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99만원 (관리비 없음) 시설비 3천만원 즉시 법회가능
02)993-0399
010-5205-0118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20분 거리 호남선 옥과 IC 5키로
- 종교부지 650평, 산 1만2천평
- 기암괴석, 사자앙천혈
- 조립식건물 3동, 3존불 봉안
- 적송나무숲 암자, 노천약사석불
- 가액 : 3억 5천
- 장난전화 하지 합시다
010-8224-1688

사 찰 안 내
- 위치 :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 법당 목조 25평, 요사 50평, 심야전기
- 종교용지 대지 포함 약 500평, 전 1,480평
- 가액 : 5억 2천
011-9731-1415
033)762-2494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3억 3천만원
054-283-6293
010-4606-725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 건물 3층 전체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50만
- 시설비 1,500만원 (답사후 협의 결정)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3층
- 전철1호선, 동묘역, 2번,3번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 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글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600만원
010-3722-27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삼량진역에서 10분 거리
- 경관 아주 좋음
- 대지 230평, 건평 75평(법당)
- 큰방4개, 다실1개 거실 및 주방(현대식) 심야전기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비품대 2,500만원
010-3547-1766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 ~ 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암 자 안 내
- 위치 :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 대지 전 합 1,380평
- 건 약 50평, 태양광 온수
- 사진 전송가능
- 상담후 저렴하게 드립니다
- 가액 : 1억 3,000만원
010-3288-1317

암 자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송지면
- 관음법당, 해수관음상 5층 석탑, 석등
- 방생도량으로 최적
- 완전 바닷가, 전망 좋음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8,000만원(절충가능)
061-337-3357
010-5370-507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급양도, 방문요
010-3186-0361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순천시 상사면 와룡길 55-105 순천역에서 20분거리
- 해돋이 명소, 해발 350미터
- 종교부지로 허가 나왔음(분할도 가능)
- 부지 1,50평, 건물 60평
- 가액:4억
주인직 010-3228-978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법당 28평, 목조건물, 남향
- 요사채 : 방2, 공양간, 화장실
- 평수 157평
- 가액 : 2억 9천
010-3508-7710

사찰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신녕 1075번지외 5필지
- 등기상 3천평이나 실평수4천여평임
- 가옥 60여평 한동
- 현장 대형차 진입
- 사계절 계곡물 흐름
- 가액 : 4억(절충가)
010-6253-310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에어컨, 큰 냉장고
- 금강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 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가능,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2층 전체 도시가스 보일러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비 3,900만원
010-4646-3638

도심속의 작고 아담한 포교원
- 위치: 대구 서문시장 부근
- 철학이나 영으로 포교하실분
- 관세음보살, 호신불, 신중
- 방2개, 주방, 욕실, 창고
- 총 13평
- 가액 : 6,5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1-542-0982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1,420평, 법당 20평, 관음전, 종각
- 요사채, 공양간, 창고, 차고, 외부화장실 등등
- 대형주차장 등
- 스님 건강상 문제로
- 가액 : 3억 3천
010-4628-5699

포교원(삼존불)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 2층 약 27평
- 가능역에서 약 5분거리 위치 좋음
- 가액: 1,000만원, 월 60만원 합 1,500만원(조절가능)
010-3247-5577

포교원(급)안내
- 위치: 수원시 정자동(대단지 아파트 앞상가
- 자원풍부 ,입지조건 최상
- 면적: 32평(3층 중 2층) 시설내부(최상) 시설 일체 완비
- 상가(32평) 1억2천 만원(시설비, 1천5백)
- 총 양도가 1억3천5백만원(대출4천포함)
- 임대가능: 보증금3천만원 / 월35만원 시설비1천만원. 현재 스님 운영중
010-2556-5035
070 -7789-50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7분거리
- 평수 80평, 2층 건물
- 2층 대웅전 15평 1층 요사채 공양간 창고 1동 법당 뒤(산)
- 앞 냇가, 시내버스 교통 좋음
- 가액 :대출 4천안고 1억 2천만원
010-8794-1257

포교원 안내
- 위치 : 송파 삼전동 5층건물중 3층
- 30평 대로변위치(9호선 개통예정)
- 법당,상담실,공양간,화장실,주차장
- 보증금 2000만원 / 월세120만원
- 시설비 추후상담
010-7660-515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건물 : 2층 23평
- 교통 주차 편리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300만원
010-8223-487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서문시장 부근
- 철학이나 영으로 포교하실분
- 관세음보살, 호신불, 신중
- 방2개, 주방, 욕실, 창고
- 총 13평
- 가액 : 6,5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1-542-0982

암자 임대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역 앞) 대문앞 차도(버스)
- 대지 약 112평, 건(2동) 약 30평
- 법당2, 방2, 거실, 공양간, 마당
- 가액 : 보증금1,0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100만원
010-4840-3939
오후 1시 이후에 전화 하십시오.

수양관(암자)안내
- 위치 : 대전시내 보문산
- 대지 98평, 건물 40평 텃밭(국유지) 약30평
- 대학병원 5분, 역전 10분거리
- 가액 : 2억 7천만원(전세가능)
010-5407-8034

기적의 명상치료

비디아말라 버치 · 대니 펜맨(명상 지도자)

〈2〉 '생각' 하지 말고 '경험' 하라

자신의 몸, 외면하지 마라



습관 해방시켜 고착된 고통 탈피
선천적 행복에 다가가게 돼
명상은 '즐겁고 평화로운' 장소서
자신 가혹히 몰아붙여선 안돼

마음챙김 프로그램 소개

이 책에서 여덟 장에 걸쳐 진행되는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설명하겠다. 각각의 장은 일주일치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각 단계를 밟아 나가는 동안 당신의 괴로움은 차츰 잦아들고, 마음도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다. 프로그램 첫 주부터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사람이 많다.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 당신이 느끼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도 차츰 해소되어 다시 활력이 느껴지고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 것이다.

각 장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명상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설명이 있다 명상은 하루 20분 정도의 시간이 든다. 책과 함께 제공되는 MP3 파일에 명상 트랙이 담겨 있고, 각 수련 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장별로 음영 처리된 표 안에 들어 있다. 책을 모두 통독한 후에 주별로 해당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각각의 장을 다시 읽는 것이 좋다. 주별 프로그램에는 몇 백 년에 걸쳐 축적된 지혜가 담겨 있고, 이런 지혜 중에는 한 번에 포착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다시 환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두 번째 요소는 매일 실천하는 '습관 해방시키기(Habit Releaser)' 다. 이것은 당신의 부정적인 사고 습관, 행동 습관을 차츰 깨뜨려 줄 것이다. 습관을 통해 고착되는 통증, 괴로움,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이런 습관을 해소하면 전체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습관 해방시키기는 대개 즐겁게 실천에 옮길 수 있으며, 2차 괴로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동시에 당신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행복과 호기심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다. 습관 해방시키기는 공원에 찾아간다든가, 비에 흠뻑 젖어 본다든가,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물을 올려놓았을 때 끓자마자 성급하게 달려들어 불을 끄기보다 물이 완전히 끓을 때까지 기다리는 등의 간단한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을 완전한 마음챙김 의식(mindful awareness)을 가지고 온전히 정신을 집중한 상태에서 시도해보자.

일주일 중 6일을 명상하는 것이 제일 좋다. 요일은 마음대로 선택해도 된다. 만약 하루나 이틀 정도 빠트렸다면 다른 날에 시간을 조금 더 내면 된다. 그런 다음에 다음 주의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가면 된다. 만약 일주일에 명상하는 일수를 4일이나 그 이하로밖에 챙기지 못했다면 되도록 해당 주의 프로그램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좋다. 마음챙김은 반복을 통해 힘을 얻는다. 따라서 권장해 준 일수만큼 명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명상 프로그램은 시간이 10~20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하루에 두 번씩 실천에 옮기는 것이 좋다. 언제 명상을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의 시작과 끝에 시작을 잡는 것이 제일 좋다. 규칙적으로 명상하는 것도 중요하다.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면 꾸물거리는 습관이 줄어들고 하루 일과를 더욱 효율적으로 짤 수 있다.

명상은 즐겁고 평화로운 장소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조용한 집안 한 구석만 있어도 충분하다. 명상의 공간을 꽃이나 약간의 장식물로 장식하는 것도 좋고, 그림을 걸어 두거나 바위나 유목 등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해 주는 자연물을 가져다 놓는 것도 좋다. 가능한 전화기는 진동으로 바꿔 놓거나 아예 꺼두는 것이 좋다.

명상이라고 하면 의례히 유연하게 책상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이런 자세로 명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자세가 불편해서 하기 힘든 사람도 있다. 이런 자세로 앉는 것은 명상 수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저런 자세를 시도해 보면서 명상이 잘 되는 자세를 찾도록 한다. 마음챙김은 경쟁이 아니다. 자신을 가혹하고 불편한 입장으로 몰아붙여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1주차: 몸을 다시 만나라

마이크는 말했다. "그 일이 있고난 후에 몇 년 동안은 고통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조선소 용접공이었어요. 용접일도 이젠 옛날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야외에서 하는 중노동이었지만, 요즘은 지붕이 있는 건선거에서 일하는 첨단 기술입니다. 강철을 레이저로 절단한 다음에 용접하는 동안 아주 정교한 지지대가 저를 대신해 강철을 제자리에 붙들어 줍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결리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부상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셈이죠."

마이크는 화물선 위에 철판을 용접하고 있었다. 그러다 뒤를 돌아보려고 고개를 어깨 너머로 돌리는 순간 허리에서 당기는 듯한 느낌이 날카롭게 찾아들었다. 순간적으로 아프기는 했지만 한 시간 후에 차를 한 잔 마시러 갈 때까지만 해도 그것에 대해 더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몇 시간이 더 흐른 뒤에는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시작되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그 후로 5년간 전문의에서 전문의로, 통증 클리닉에서 통증 클리닉으로 의뢰를 받아 떠돌아다니게 된 시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마이크의 일은 기술적으로 정교하고 특수한 기계와 장비가 있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저 몸만 써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머리도 그만큼 많이 써야하는 직업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업을 위해 몸을 움직여야 하는 활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었다. 작업을 할 때 머리를 굴리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져가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점점 한 자세로 고착되어 갔다.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마치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이 자주 들었다. 그는 거대한 기계 속의 톱니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있었던 것이다.

자기 머릿속에서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기에게 몸이 있다는 것을 깜빡하기 쉽다. 생각만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저 바깥세상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다 보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몸에 대한 감각을 잃기 시작한다. 여기에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등이 언제나 '켜짐' 상태로 놓여있으니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어쩌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몸을 외면하기 시작했는지 모른다. 당신의 마음 한 구석에 자기 몸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기는 느낌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 그들과 비교하면 당신의 몸은 바라는 것만큼 날씬하지도, 근육질도 아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만큼 키가 크지도, 예쁘거나 잘 생기지도 않았다. 그리고 날이 날수록 조금씩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당신 마음속에는 가능한 자기 몸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아온 경우라면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진다. 아마 당신은 통증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야 할 악마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언젠가는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말리라는 두려움 말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이 언젠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감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좋든 싫든 당신은 몸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몸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문제를 계속 묻어두는 꼴밖에 안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첫째 단계는 바로 자신의 몸과 조심스럽게 다시 만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괴로움도 차츰 가라앉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몇 주 정도 진행하다 보면 마침내 1차 괴로움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차 괴로움은 뇌를 거치면서 본능적인 통각으로 빚어지는 날것 그대로의 신체 감각을 말한다.

바디 스캔 명상

'바디 스캔' 은 당신의 마음과 몸을 다시 통합하는 과정의 시작이다. 이것은 1차 괴로움과 2차 괴로움을 구분하며, 궁극적으로 당신이 실제로 고통 받고 있는 통증을 줄이는 데도 핵심적인 부분이다. 또한 당신이 느끼는 불안이나 우울증에 따라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의 시작이기도 하다.

바디 스캔 명상은 당신의 의식을 조심스럽게 몸으로 옮겨 와 부위별로 이동하면서 자신이 발견한 내용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관찰하도록 이끌어 준다. 각각의 신체 부위를 잠시 무대 중심에 세웠다가 다시 부드럽게 내려놓고 다음 부위로 이동해 나가는 것이 이 명상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것은 당신이 명상에 평온하고 탐구적인 느낌을 최대로 불어넣을 수 있게 북돋아 준다.

이러이러한 것을 느껴야 한다는 선입견을 뒤로 하고 대신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려고 노력하자. 감각이 없는 신체 부위를 만날 수도 있다. 어떤 부위는 화끈거리거나 욱신거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만날 수도 있고, 어쩌면 지끈거리는 느낌을 만날 수도 있다. 생명이 맥동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평온하고 중립적인 영역을 발견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이런 감각들이 고정되어 있는지, 혹은 매순간 요동치는지 느껴 보자. 자신의 통증이 '고체처럼 고정되어 있는 적' 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유동적인' 존재임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 가능하다면 이런 감각에 동반되는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도 느껴 보자. 두려움, 분노, 슬픔이 흔히 느껴지는 것들이다. 여기에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 생각들이 동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안도감이나 평화와 행복의 느낌을 발견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을 발견하든지 그것을 심판하려 들지 말자. 최대한 그냥 관찰하려고만 하자. 그렇게 하면 당신의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차츰 부드러워지고 해소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명상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명상이 당신에게 특별히 호흡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프로그램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다. 호흡은 생명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의식의 문턱 바로 아래서 느끼는 감정이나 육체적 감각을 말해 주는 민감한 지표이기도 하다. 수련을 하다 보면 당신은 호흡을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이용하는 법을 배워서 괴로움이나 스트레스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이를 감지해 완화시킬 수 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저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통증, 괴로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다음의 지시를 따라해 보자. 주먹을 꽉 움켜쥔 후에 호흡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아마도 주먹을 쥐는 순간 호흡을 참게 되고, 그 호흡이 뱃속에서 꽁꽁 얼어붙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제 호흡 주변에서 이완하면서 주먹을 움켜쥔 느낌 속으로 호흡을 불어넣어 보자. 주먹에서 살짝 긴장이 풀리는 것이 느껴지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고통, 스트레스, 불편 등을 느끼면 자동적으로 호흡을 참는다. 호흡을 억제하는 습관이 얕은 호흡이나 과도한 호흡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 호흡이 교란되면 마음속 경보 시스템에 불이 들어오고, 이것은 몸에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리고 마음은 이렇게 증가된 긴장과 스트레스를 감지하고 더욱 심한 경계 태세로 들어간다. 호흡이 교란되면 이런 식으로 고통스러운 악순환 고리를 통해 2차 괴로움이 유발된다. 이것은 불안과 스트레스도 함께 부채질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통증이나 고통스러운 느낌에 호흡을 불어넣으면 그것이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마음챙김과 호흡 의식하기를 악순환 고리의 회전 속도를 약화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빠르게 회전하던 고통이 빠르게 속도를 줄이며 평화로운 상태로 잦아들 것이다.

이 글은 〈기적의 명상치료〉(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약수암
- 주 지 : 학천 (김성일)
- 주 소 :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399-8

위 사찰은 2015년 5월 15일 사찰 총회에서 탈종을 결의하고 경주김씨공절공파달산문중 및 약수암신도회 동의를 거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2016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8기 수강생 모집 안내

그동안 **제1기에서 제7기**까지 전국에서 **9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배우신 모든 스님께서 큰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심>

강의 특징

7개월 동안의 교육기간중 5개월은 초보부터 고급, 비법까지 완벽하게 전수 2개월은 사주팔자를 뽑아 놓고, 운세나 운명을 정확하게 직접 통변 할 수 있는 통변술(추명술)을 가르쳐 드림.

명리학을 배우시고 통변을 못하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통변이 자신 없으신 스님들께서도 이 기회에 신청하셔서 배워보십시오.

대상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 교육기간 : 2016년 3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 수 강 료 : 7개월 교육전기간 강의료 무료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책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 대금 20만원)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교특별강좌

(사)한국불교연구원에서는 불교도의 지적교양 증진과 일반인의 폭넓은 불교이해 진작을 위해 불교특별강좌를 실시합니다.

인도철학과 불교

- 기 간 : 2016년 1월 4일(월) ~ 2월 29일(월) [매주 월요일, 8주간]
- 시 간 : 오후 7시 ~ 9시
- 장 소 : 연구원
- 강 사 : 이태승 (본원 원장.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 교수)

일본불교의 구조적 이해

- 기 간 : 2016년 1월 7일(목) ~ 2월 25일(목) [매주 목요일, 8주간]
- 시 간 : 오후 7시 ~ 9시
- 장 소 : 연구원 강의실
- 강 사 : 원영상 (본원 연구위원. 일본 불교대학 박사)
- 수강료 : 각 강좌 당 100,000원 (교재비 포함)
- 수강접수 : 2015년 12월 10일부터
- 접수처 및 문의 : 한국불교연구원 사무국 TEL 02)762-5624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가길 59 현대뜨레비앙 148
TEL : 02)762-5624 FAX : 02)762-5627 우편번호 13133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김호석 화백의
화폭 속 선지식
명성 스님

형·색 구별 없이 마음에 모두 품다

사진작가 주명덕 선생님과 동행하여 운문사에 갔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학장스님이신 명성 스님을 만나 뵈었다. 스님께서는 자상하고 따뜻하며 상대에 대해 세심한 배려가 몸에 밴 분이셨다. 나는 그런 스님의 모습에서 진심과 정성을 느꼈다. 우리 일행은 학인스님들이 거처하는 공간에서 쉬며 새벽부터 밤까지 암송하는 스님들의 맑고 청아한 글 읽는 소리에 빠져들었다. 운문사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 후 나의 아이들이 운문사 여름불교학교에 참여했고, 가족 나들이와 특강 그리고 탁본 등을 위해 여러 차례 운문사를 찾았다. 스님께서도 내가 개인전을 할 때마다 올라오시어 격려해 주셨다. 이런 인연들로 나는 운문사에 일종의 경외심까지 갖게 되었다.

한번은 학생들을 데리고 운문사 답사를 했다. 불교문화를 이해시킬 욕심으로, 발우 공양을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운문사 경내의 국보급 불교문화재를 학생들이 편하게 관찰하며 사진 채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드렸다. 이에 스님께서는 흔쾌히 그리고 따뜻하게 나의 말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나는 학생들이 답사 오기 하루 전에 운문사 학인스님들을 대상으로 한국미술특강을 하기 위해 운문사를 찾았다. 강의는 작품과 그 속에 숨은 의미를 찾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는데, 많은 수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었던 나에게도 250여 분의 비구니 스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스님들의 열의가 워낙 대단했고 그분들의 맑고 청수한 기운에 내 스스로가 감화되어, 강의를 하는 내내 신이 났다. 유쾌한 강의가 진행되던 가운데 특히 명성 스님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명성 스님께서는 맨 앞자리 중앙에 앉아계셨고, 강의가 진행되는 내내 가장 호기심 가득한 천연스런 모습으로 강의를 들으셨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자 제일 먼저 질문을 하셨다. 그 이후에도 명성 스님은 그때와 같은 적극성과 애정으로 강의에 관심을 보이셨다. 나는 이런 스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스님께서는 내가 화가이기에 그런지 내 작품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다. 특히 재미있게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딸 하운이' 라는 작품과 '새벽' 이라는 작품이었다. 두 작품 모두 가족을 모티프로 한 작품인데 한 점은 변기에 앉아 일을 보고 있는 딸의 모습이고 다른 한 점은 새벽에 부스스 일어나 오줌을 누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다.

스님께서는 두 그림에 대한 관심만큼 해석도 탁월했다. 인간의 심리와 마음의 진실함 그리고 생명력을 읽으셨다. 또한 "선승은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전통에도 의지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화가도 마찬가지다" 고 하시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다.



새벽, 종이에 수묵, 86×59cm, 2000
새벽에 부스스 일어나 오줌을 누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다. 스님께서는 이 그림에 대한 관심만큼 해석도 탁월했다. 인간의 심리와 마음의 진실함 그리고 생명력을 읽으셨다.



물, 종이에 수묵, 60×89cm, 2015
예술의 힘은 상투적인 것을 함축적인 일반성으로 승화시킬 때 나타난다.

한번은 차담을 나누는 가운데 느닷없이 질문을 하셨다.

"내 얼굴상이 어때요?"

나는 어떤 고민도 없이 즉각적으로 "잘 생긴 상이라 볼 수 없는데 보면 죽은 데가 하나도 없어 해석의 여백이 훨씬 큰 인상입니다. 머리카락의 굵기가 굵습니다"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크게 웃으셨다. 나는 순간 당황하여 말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림을 그리며 줄곧 인간의 머리카락의 의미를 생각했다. 머리카락에는 종이나 성을 구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여성과 남성의 머리에서 차이가 주는 대조, 머리와 욕망을 연결하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관념에서 그러하다. 나는 머리카락 축소의 극단적 행위는 삭발로 보았다. 삭발은 자발적으로 신에 귀의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종교적 의미의 짧음은 자제와 규율, 경건, 단호함 등을 상징한다. 그러나 스님의 머리는 삭발의 형태임에도 그분의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성정이 느껴졌다.

> **스님이 가진 것 더 나누고자**
> **고민하는 모습서 '항상심' 느껴**
> **어떤 사람이든 마음으로 안아**

또 한 번은 새해 인사차 가족 모두 비구니 회관에 들러 스님께 예를 올린 적이 있었다. 그 때는 스님께서 전국비구니 회장으로 선출된 후였다. 스님께서는 인사를 받으시고, 우리가족에게 붉은색 봉투와 각각 다른 형태의 선물을 주셨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나누어주고자 하시는지 받는 내내 죄송스런 마음만 들었다. 그 모습이 스님의 변하지 않은 항상심이었다.

스님을 여러 해 뵙는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이든 마음으로 품어주는 큰 포용력을 보았다. 스님은 어느 편도 가르지 않으셨고, 형과 색도 구분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품안에 끌어안으셨다. 이런 스님의 인품과 가르침이 있었기에 오늘날 운문사가 세계 최고의 비구니 스님 교육기관으로 우뚝 서게 되었을 것이다.

작년 봄 운문사 주지 스님께서 봄에 진달래 꽃색이 곱다며 불러서 내려오게 하더니 올 가을엔 단풍 빛이 맑고 투명하다며 또 내려오라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명성 스님의 얼굴빛에 생기가 돌 때 스님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올해는 운문사에 내려가지 않았다. 스님의 소매엔 국화 향기가 가득 스미어 있겠지만 단풍이 주는 세월의 상징성과 암시를 외면하고 싶어서였다.

나는 명성 스님으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그려 달라며 그림을 주문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운문사 스님들이 명성 스님의 진실 된 모습만은 기록하고 싶다는 원력이 나의 마음을 불러 세웠다. 스님께서 차를 끓여 속진을 씻고 열린 창문 사이로 등나무를 보며 싱긋 웃는 모습을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내년 봄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명성스님 상, 종이에 수묵 채색, 84×59cm, 2015



大方廣佛華嚴經 사경집

화엄경 논강
(華嚴經 論講)

청량소 + 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가 지은
진귀론으로 논강함

◆ 한글 화엄경 강의용 출판
◆ 한글 화엄경 사경집 출판
◆ 진귀 화두집 〈평온〉 출판

화엄경 강원 : 문의 1899~9532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영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림.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불자 세상보기

和諍의 꽃 한 송이를 들어 봅시다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민주노총이 주도한 11월 14일의 민중총궐기대회가 강경진압과 폭력시위로 얼룩지면서 12월 5일로 예정되었던 2차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컸었다. 그러나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제안한 '평화지대-평화의 꽃길' 이 이날의 시위를 평화시위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하면서 이러한 걱정은 말 그대로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화쟁위원회가 제안한 평화의 꽃길에는 불교, 개신교, 성공회, 원불교, 천도교 등 5개 종단의 대표와 신도들을 포함하여 약 500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처럼 불교가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하다.

새삼스럽지만 '화쟁' 이란 말을 다시 떠올려 본다. 화쟁을 둘러싼 갑론을박의 철학적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순진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안을 둘러싼 해법을 찾는 데는 원효 스님이 발안한 '화쟁' 개념의 상식적인 이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복잡한 이론논쟁을 잠시 유보한다면 '화쟁' 은 서로의 입장을 잘 헤아려 보살핌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화쟁' 이야말로 "한국사회에 만연한 차이를 앞세운 배제와 다름, 분열과 갈등의 논리"를 지양시킬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낳게 만든다. 5개 종단의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 존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사회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호소했다.

12월 5일에 보여준 종교인들의 평화 메시지는 지극히 소박한 것이었지만 그 울림은 자못 컸다. 평화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들고 나온 꽃 한 송이가 경찰의 강경진압은 물론이거니와 시위대의 폭력행위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날 화쟁위원회의 도법 스님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불길이 삶의 현장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질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불길이 꺼질 수 있도록, 잦아들 수 있도록 부처님이 가신 길을 따라 평화를 위한 원을 함께 세울 것"을 요청했다. 같은 날 지인 스님도 문학적인 비유를 들어 "오해와 갈등의 두꺼운 외투는 물대포나 차벽이 아닌 소통과 경청이라는 햇볕이 벗길 수 있는 것"이라며 평화시위에 대한 종교인들의 호소가 "상호 경청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들은 오늘날의 종교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종교가 싸움을 부추긴다면 그것은 사이비에 불과하다. 종교는 본질적으로 평화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 종교는 당연히 종교답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불교의 화쟁담론은 낡고 진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과 같은 분노와 투쟁의 시대에는 화쟁정신에 입각한 상호이해의 사회적 여유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불법시위와 폭력진압의 악순환을 끊는 데에도 화쟁의 몸짓과 발짓은 끊임없이 시도되고 또 반복되어야 할 줄로 믿는다.

화쟁이란 말이 얼마나 평화-친화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는 화쟁위원회가 합법적 시위보장과 평화시위를 동시에 요청한 지난 12월 5일의 2차 민중총궐기대회가 별 탈 없이 평화적으로 회향된 사례에서도 거듭 확인된 바 있다.

잘 알고 있다시피 개인의 의사표현수단인 시위가 헌법상의 권리인 것만큼이나 일반시민의 일상적 삶을 방해하는 폭력시위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갈등해결방식은 언제나 폭력을 수반하는 양상을 되풀이해왔다. 이제야말로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불교적 답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화쟁의 언어이다. 부처님은 일찍부터 독(毒)은 독으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이다.

어쩌면 화쟁의 연원은 부처님의 그와 같은 상황인식과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일까? 문득 '화쟁' 이란 꽃 한 송이를 높이 쳐들고 각양각색의 갈등현장을 모두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언대

한상균 피신 24일 평가와 과제

한상균 민조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한지 24일 만에 자진출두하며 사태가 마무리됐다. 말도 탈도 많았던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의견과 관련 성명서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사회문제 전문성이 필요하다"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진출두 형식으로 조계사 일주문을 나갔다. 사태는 일단락되었으나 종단으로써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첫째, 법원으로부터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확신범 즉, 정치적으로 억울하다는 피의자에 대해 조계사 등 도량을 사실상 도피처로써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종단이 사회적 이슈에 대응할 시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상균 위원장의 사례에서 시위의 폭력성 논란에 집중하다보니 정작 본질인 '노동개악' 이라 칭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과 '민중총궐기대회' 측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11개 분야에 대한 내용적인 것들은 결과적으로 중요시 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종단이 사회적 문제에 개입할 시 전문성이다. 과연 화쟁위원회가 복잡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종단을 대표해서 탁월한 대안을 제시하고 대응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단에 실력 있는 연구소기능으로 하여금 부처님가르침에 입각하여서 전문성과 시사적 식견으로 독자적인 대안을 생산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한다. 향후 종단은 중요한 사회문제에 개입 시 종단기능에 전문가를 더하여서 종단의 목표와 진행방향을 결정한 후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12월 9일 15시 30분 경부터 경찰이 관음전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조계사 관리주체에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또는 관음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사전 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사법경찰관이 그 대상이 누구든 법 집행을 하면서 절차와 예의를 무시하거나 대충해서는 안 된다. 종단은 내부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냉철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도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상생할 수 있는 정책 필요하다



퇴휴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자진 퇴거 결정을 통해 이번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극단적 갈등들이 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닌 '소통과 대화' 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소되는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는 종단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를 위해 조계사 관음전 일대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이를 막는 스님들과 종무원들에게 무력을 행사한 정부와 경찰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또한 촉구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민의를 오롯이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우리 국가의 운영기조가 이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지 혹시 약자가 아닌 강자의 입장에서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아닌지 현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통해 한상균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과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논의에 한정된 것이 아닌 노동법 개정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사회적 협의도 진행돼야 한다.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노동자, 농민들의 절규를 정부는 결코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본 회는 조계사에 경찰 병력이 투입된 이번 사태를 맞아 불교의 자주권과 교단수호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임을 밝힌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종교로서 불교가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社說

일촉측발 위기 막은 불교계 지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월 10일 자진 출두 방식으로 조계사 일주문을 나서면서 일련의 사태들이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숨 가빴던 25일 동안 가장 빛났던 것은 화쟁 사상을 기반으로 한 조계종의 대화와 중재 노력이었다. 일단 부처님 품안으로 들어온 사회적 약자를 여러 어려움, 불편을 인내하면서 최대한 보호하려했던 것은 종교가 갖는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1월 16일 이후 조계종은 화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화와 중재의 노력을 이어갔다. 12월 5일 열린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평화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경찰을 오가며 중재를 했고, 종교인들이 참여하는 '평화의 꽃길 기도회' 를 성사시켰다. 12월 10일에도 한 위원장의 자진 출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단체, 조계사의 종무원들이 인간띠를 형성해 보호했다.

한 때는 SNS를 통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던 한 위원장이 조계사를 나서며 감사의 인사를 표한 것도 불교계의 노력에 동감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력에 대해서 종단 안팎으로는 긍정적 평가 여론이 높다. 하지만 남겨진 과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종단이 사회 문제를 개입할 시 명확한 대응 매뉴얼과 가이드 라인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 하겠다' 는 슬로건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강자와 약자가 분명한 노사 갈등과 서로의 이익이 부딪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떻게 화쟁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막연하고 직흥적인 중재로서는 공감을 이끌어 내기는 점점 어려워 질 것이 분명하다.

2000년대 이후 '현대판 소도' 가 된 조계사의 역할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불편한 논쟁이 있더라도 기준과 원칙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고 이를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화쟁의 지혜' 가 빛난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과 과제를 잘 보강해 이웃과 함께하는 불교가 되도록 노력하길 기대한다.

가짜 기부금영수증 이제는 안된다

매년 1월이 되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이 직장인들에겐 단골 화두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가계가 더 각박해진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길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가운데 가짜 기부금영수증이라도 발급받아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겠다는 사심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다.

이제는 안통하는 세상이 됐다.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용 기부금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63곳의 명단을 지난 12월 3일 공개했다. 소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들이다. 이중 종교단체가 95%(60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단체 1곳, 문화단체 1곳, 기타 1곳이다. 이중 불교와 관련있어 보이는 사찰들이 50여개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교계에 허위 기부금 영수증 남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는 주로 수수료 받고 백지 기부금영수증 남발과 다른 종교단체 고유번호 도용해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으로 드러났다.

한 예로 경상북도 김천의 A사찰은 137건의 거짓 영수증으로 총 5억 8백만원 어치의 영수증을 발행하다 적발됐다.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다. 불법(佛法)을 홍포해야 할 불자가 불법(不法)적인 일을 해선 안 될 것이다. 또한 사찰도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순간적인 삿된 마음을 바로 잡아주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부처님 가르침은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 눈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정직하라는 것이 핵심 가르침이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할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 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 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전념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고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隨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째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째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버림 받은 청소년 제대로 돌보는 일,

마산 관해사 주지 자운 스님



자운 스님은 … 1950년 하동에서 태어나 하동 병설 중 · 고등학교를 거쳐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마산 석봉암 주지 월봉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으며 2001년 마산 관해사 주지로 취임했다. 이후 병원 위문공연을 진행하고 일일찻집 등을 통한 수익금으로 환우돕기를 실천해왔다.
태고종 경남종무원 중부분원 총무를 역임했으며 사단법인 가향자비회를 설립했다. 하동 경찰서 경승과 국립마산병원 IRB 위원, 경상남도 희망자치연대 대표 등도 맡고 있다. 현재 법원처분소년 장기쉼터인 ‘자운영청소년센터’를 운영 중이다.

눈이 내리기 직전이었다. 하얀 눈이 듬성 듬성 바람에 날려 경남 의령 다사리 마을에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다. 기자가 차를 대자 10여 명의 남자 아이들이 마중을 나왔다. 차 문을 열자 모두 합장으로 인사를 건넸다. 이들은 자운영 청소년센터에서 머무는 아이들이었다. 눈빛은 맑고 자세는 공손했다. 자운영 청소년센터는 소년범 재활쉼터다.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자운 스님은 이들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 기회를 잃었던 아이들이라고 했다.

12월 3일 자운영 청소년센터에서 이런 아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주고 싶다는 스님의 원력을 들었다.

“청소년에게 새 가정과 새 삶을”

스님의 이끔에 따라 자비마을 자운영(慈雲-young)센터의 스님 처소로 향했다. 아이들이 머무는 따뜻한 방과는 달리 자운 스님의 처소는 냉골이었다.

기자가 처소로 들어가자 스님은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며 전기스토브를 하나 급히 꺼냈다. 그것도 고장이 나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고, 손잡이조차 언제 돌렸는지 뻑뻑해서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이야기를 꺼내기 무섭게 아이들이 스님의 처소에 들어왔다. 공부하러 가야 한다며 차비와 용돈을 받아간다. 보기에도 어려운 살림살이인데 아이들의 공부와 식사까지 모든 내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요. 이번에 봉사자들이 김치를 담가 주기 위해 처음 왔어요. 이때까지는 도움 한 번 받아 본 적 없었는데, 그 손길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갈 곳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인생에 있어 한 번 더 기회를 얻는 장소인거죠.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스님은 대중의 관심을 당부하며 입을 열었다.

자운영 청소년센터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가정으로 시작됐다. 천종호 판사가 주축이 돼 2010년 10월에 설립한 대안가정 청소년회복센터 중 하나다. 청소년회복센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회복센터를 나온 소년들의 재범률이 30% 이하로 하락했다. 자운 스님의 자운영은 전국 13개 대안가정 중 두 번째로 문을 열었다. 불교계로는 첫 대안가정이다.

“이곳에 있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조손 가정, 위기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버지는 알콜 중독으로 폭력을 쓰고 어머니는 그 폭력을 못 이겨 집을 나가죠. 보호받지 못하고 무서워 떨던 어린 아이는 가출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 친구들과 비행을 반복하고 절도, 사기를 치다가 형사에게 잡혀 처벌을 받게 되죠. 이곳에 학생들은 대부분은 그런 가정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자운 스님은 6개월의 기간 동안 아이들을 위해 치료하고 보호하며 가르친다. 또한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을 비롯해 진학과 인성교육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은 보호지도 받으며 감옥을 가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아이들이 전과자라는 낙인을 받지 않을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다.

“오토바이 절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봅시다. 법치국가에서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전과자라는 낙인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죠. 폭력에 시달린 아이들은 이집 저집을 돌며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 아이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 최다 배출

자운영은 올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안가정 중 검정고시 합격자를 최다 배출했다. 또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기도 했다.

이런 성과에 대해 자운 스님은 각 가정에 있는 가풍처럼 자운영만의 가풍이 있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했다.

자운영의 경우 불교와 예의, 봉사, 대화기술을 엄격하게 강조한다. 먼저 아이들은 입소를 하면 합장인사와 삼배, 차수 등 불교예절을 익힌다. 또 〈부모은중경〉과 〈목련경〉 사경과 〈반야심경〉과 〈법성게〉를 외우게 된다.

청소년 대안가정 ‘자운영’ 센터 개설
엄격한 가풍으로 사회성 키워
검정고시 합격자 · 대학진학 최다
“대안학교 세우는 것이 마지막 꿈”

마산결핵요양병원 관해사도 챙겨
매실 경작 수익금을 환우돕기에
법회 · 일일찻집 · 탁발 등도 진행
가향자비회 설립해 후원조직 확립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큽니다. 분노는 살인적입니다. 입에 죽이고 싶다는 말을 달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부모은중경〉을 사경하고 나중에 독후감을 적게 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반야심경〉도 〈법성게〉도 처음에는 뜻을 모르지만 씨앗을 뿌린다는 심정으로 익히도록 합니다.”

또 자운 스님은 아이들에게 행복해지는 대화기술을 익히도록 돕는다. 자운영 내에서 욕설은 일체 금지된다. 또 자운영 방문자에게는 반드시 웃는 얼굴에 당당하고 자신있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 가훈이 바로 ‘인생을 Yes! 행복해지는 대화 기술!’이다.

“인생을 Yes! 행복해지는 대화 기술!은 누군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조건 yes!하고 달려가며 지시와 전달 사항 있는데도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자신의 의사 표현을 상대에게 정확히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성은 대화하는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지만 이곳에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유아기가 공백입니다. 전혀 기본적인 것을 익히지 못했습니다. 6개월 간 이 과정을 거치면 아이들이 기존과는 180도 바뀌게 됩니다.”

결핵환자들의 아버지로도 활동

자운영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스님은 빠지지 않고 국립마산결핵병원 관해사를 찾는다. 스님은 이곳 관해사에서 결핵환자들을 위해 15년간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처음 관해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이 있었을 때 주변의 만류가 많았다. 자운 스님이 당뇨를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뇨병 환자가 결핵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말이 있었어요. 은사 스님을 비롯해 다들 말리더군요. 하지만 관해사에 머무는 스님이 안 계신다는 말을 듣고 환자들이 마음에 걸려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절에 갔더니 법당은 창고 수준이 되어있더군요.”

관해사는 1989년 주지였던 정관 스님이 입적하기 전까지 금강자비회와 양생회 회원들이 일군 사찰이다. 1974년 건립한 관해사 양생전(養生殿)은 투병 중인 환자들의 회복을 기원하며 건립된 곳으로 국립마산결핵병원의 유일한 불교 안식처였다.

하지만 정관 스님의 입적 후 2년 간의 공백 동안 이런 안식처는 사라졌다. 잠시 스님들이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자운 스님은 2001년 주지로 임명된 후 환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섰다.

스님은 위로법회를 시작으로 결핵환우 보신공양, 연 1회 위로공연, 결핵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수륙천도재 및 입원환자 의류 기증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환우들과 함께 소록도, 통도사 등으로 순례를 떠났다. 새로운 시도로 환자들은 즐거워했다. 외출이 어려운 상황인 그들에게 스님이 마련해준 여행길은 활력소였다.

“관해사까지 오는 길에 108계단이 있습니다. 부처님 뵈러 가야겠다는 신심으로 간절한 마음을 낸 자가 이 계단을 오르면 병을 낫게 된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그렇게 환자들과 마음을 나누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던 중 스님은 한 결핵 환자가 병이 낫기도 전에 약값이 없어 병원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다. 2009년 봄이었다.

“한번은 환자 둘이서 찾아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떠난다는 거예요. 약값이 없어서 치료가 힘들다고 하는데 약값을 제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근데 그 병이 일반 결핵과는 다른 다제내성 결핵이라는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다제내성 결핵은 처방 가능한 거의 모든 항결핵약에 내성이 생긴 것으로 2차 치료제를 써도 환자의 70%만 완치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치료가 어려운 병이다. 2012년 희귀 질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당시 하루 약값만도 한알에 6만원이었다. 다제내성 결핵 환우들의 고가의 약값을 지원하고 환우 자립 지원 사업을 펼쳤다.

“결핵이란 병이 전염성이 있어 격리되고 일반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만은 아니죠”



2011년 4월 개소한 자비마을 ‘자운영센터’ 모습


스님은 관해사서 매실과 녹차를 재배해 수익금으로 환우들을 돕고 있다.


결핵 환자들과 산사 순례에 나서는 스님의 모습



2015년 9월 열린 결핵환우 힐링 한마당

들은 쉽게 관해사에 들어 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금은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했지요”

스님은 관해사 경내에 있던 3000평을 일구기 시작했다. 스님의 손은 그 어떤 농부의 손보다 더 거칠어졌다.

“집집마다 탁발을 다니고 관해사에는 매실나무 450그루를 심고 녹차를 심었어요. 그렇게 생긴 이익금은 모두 환자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됐죠. 그리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자비사랑 보시실천 대법회를 개최하고 환우를 위한 위안 공연과 노래자랑도 열었습니다.”

결핵제로 운동에 종교계 나서야

환우들을 위한 스님의 모금 활동은 끝이 없었다. 매년마다 일일찻집을 개최해 자금을 마련하고 약값을 지원했다. 그리고 2009년에 사단법인 가향자비회를 설립하고 일반인들과 소통하며 후원조직도 마련했다.

“한 해에 결핵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만 3500여 명입니다. 아기 때 맞는 BCG 예방 접종이 몇 살 까지 예방이 되는지 아시나요? 청소년기가 되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사망자수 1위 국가입니다. 결핵제로 운동에 모든 종교를 뛰어넘어 함께 노력하고 도움을 줘야 하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국립마산병원은 재건축 중이다. 병동도 현재 별관 만이 사용되고 있어 관해사와 1km 정도 떨어진 곳에 환자들이 머물고 있다. 그로 인해 법회는 잠시 중단된 상태다.

“재건축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환자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약사재일을 기해 병원을 찾아 갑니다. 2년 후 공사가 완공 되면 환자들이 다시 관해사 근처로 돌아 올 겁니다. 그 때를 대비해야죠.”

스님은 그동안 도량을 정비하고 환자들이 관해사를 찾을 때 안전하게 법회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안학교 설립 원력도

스님은 자운영을 나온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인연이 연결되었다고 말했다.

“한 인연이 마무리가 잘되니 또 다른 인연이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저의 원력이 인재 불사입니다. 여건이 되면 대안학교를 지어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15명 이상 수용을 못 합니다.”

스님은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불제자 학교를 지어 그 어느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운 스님은 어릴 적 경남 하동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하고 싶어 6km를 매일 같이 달려서 다녀야 했다. 배우고 싶었지만 어려웠던 가정 형편에 중학교 진학이 어려웠다. 2년을 기다린 결과 낮에는 일을 하며 밤에는 다시 6km를 달려 야간 학교를 다녀야 했다. 공부가 하고 싶어 서울에서 내려온 고모를 몰래 따라 기차를 탔으나 길을 잃고 방황했다. 그 시간에 만난 친구들은 평생 두려운 기억을 안겨주었다.

“그때 절도, 비행, 폭력을 했습니다. 배움에 대한 갈증 그리고 당시 겪었던 방황기가 지금 자운영에 있는 학생들을 이해하는 원동력입니다. 누군가는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비행을 안 하는 게 또 어딥니까? 전 콩나무 비유를 자주 씁니다. 콩나무에 물을 주면 물을 다 빠져 버립니다. 하지만 분명 콩나무는 자라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그 안에서 분명 무엇인가는 자라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혹은 두 명은 변하는 것을 직접 봅니다.”

자비 자(慈) 구름 운(雲), 스님의 법명이다. 자비의 구름이란 뜻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하늘에 눈이 어느덧 쏟아 붓는다. 온 세상을 하얗게 높고 낮음도 없이 모두 덮는 하얀 눈처럼 자비의 구름이 몰고 온 따뜻한 세상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발원해 본다.

마산=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전법일기

사찰 문턱이 너무 높아요

중증 지체장애인들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은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 없기에 단절된 상황에서 외로운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낸다.

광림사에서 청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수화법회와 불교성지 순례법회가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알려지자 지체장애인 불자들이 불교계에도 장애인 포교단체가 생겼다며 너무도 반가워 하였다.

어느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스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 지체장애인인 저희들은 평생을 혼자 다닐 수 없습니다. 책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부처님 도량을 참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 전화를 받으며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마침 광림사 신도 중에 개인택시를 하시는 거사님들이 있었다. 역시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인지라, 이분들이 도반들에게 연락해 20대의 택시를 확보하기 이르렀다.

달리는 법당이라는 의미로 단체 이름은 ‘법륜회’ 라고 하였다. 먼저 순례할 답사를 마치고 중증지체장애인 세상나들이를 진행했다.

택시 20여대가 만(卍)자 마크와 함께 중증지체장애인 세상나들이라는 플래카드를 차에 걸고 뒤에는 휠체어를 싣고 달리기 시작했다. 많은 분들이 도로에서 양보해주었으며 그 중 불자운전자들은 파이팅을 외치며 격려해주기도 했다.

드디어 사찰에 도착하였다. 처음 순례를 진행한 사찰마당에는 주차장에 쓰이는 자갈이 깔려 있었다. 이 돌이 문제였다.

지체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에 구멍이 나려 하였다. 장애인 불자들도 조심해달라며 안타까워했다.

어쩔 수 없이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인 불자분들을 휠체어에 태워 통째로 들어 사찰의 계단을 올라갔다. 법당 앞에 도착하니 한 단계 과정이 더 남았다.

법당에 있는 보살님께서 휠체어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며 난감해했기 때문이다. 나무로 된 법당 바닥이 상하거나 혹은 무너질까 걱정되기도 했다.

결국 우리는 지체장애인 불자들을 등에 업고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함께 합장하고 경전을 읽자 감격스러움에 눈물을 흘리는 장애인 불자들이 많았다.

특히 10여년 만에 사찰에 온다며 감사하는 그 모습에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환희심이 솟아났다.

법회를 보고 점심공양을 할때였다. 사찰 주지 스님이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는데도 지체장애인 불자들은 많이 먹지를 않는 것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오랜만에 온 사찰에서 사찰음식을 많이 잡수시라고 하고 싶었지만 이유가 있겠다 싶었다.

연유를 물어보니 “물과 음심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에 가야하기에 밖에 외출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게 미안해서 많이 먹지를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림 · 박구원

사찰에서 계단이나 문턱은 비탈길이 있거나 봉사자가 옆에서 도와주어도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는 것은 대신해 줄 수 없기에 조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점심을 더 권하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만이 들었다. 전통사찰에 양변기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지체장애인 불자 한 명이 대변을 보기 위해 4명이 돕곤 했다. 그 후로는 이동식 양변기도 구입해 필수적으로 갖고 다니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전국의 관광사찰은 물론이고 많은 사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대된다면 장애인들은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사찰을 참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찰 내에도 자원봉사자를 대기시켜서 지체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안내하며 그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준다면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심을 키우게 될 것이다.



해성 스님(연화원 이사장)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신 성 불 상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전화 031-533-7724. 010-5223-5174



아미타불의 본원력으로 쉽게 윤회를 벗어나 성불할 수 있는 도를 보인 원효성사의 논서!

- 종교의 마지막 논서 -

원효의 무량수경종요

정목스님 번역 · 해설 | 신국판 | 양장 | 흑백 | 384쪽 | 20,000원

오룡골 백송(白松)의 안심과 희망의 메시지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정목 지음 | 신국판 | 칼라 | 280쪽 | 14,000원

원인론과 불미록을 번역 · 해설한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 역해 | 신국판 양장 | 2도 | 348쪽 | 20,000원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지혜와 힘을 체험케 하는 묘한 논서
현세에 안심을 얻고 정토를 감득해 묘관찰지를 증득하는 법

『무량수경종요』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큰 뜻을 원효성사의 깊고 넓은 지혜로 해설한 보배로운 저술이다. 염불수행법, 보리심, 정정취, 부처님의 지혜 등, 신행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자세하게 해설되어 있다. 선근이 깊은 사람은 염불로 지혜를 성취하여 오탁악세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세파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범부일지라도 부처님의 지혜와 성사의 가르침을 우러러 믿고 염불하면 반드시 자비광명의 은혜를 입어 안심과 희망을 얻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무량수경종요』는 ‘종교의 마지막 논서’이다. 비록 불교에 귀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책을 읽으면 세계와 인간의 존재방식과 실상, 범부와 성인의 세계관, 철학과 종교의 관계, 성자의 지혜 등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토원 ☎055-375-5844. 카페 ‘아미타파’(cafe.daum.net/amitapa) 비움과소통 ☎02-2632-8739



대행 스님

주인이 하는 거지 자기 육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호에 이어서)

이 사람이 형성이 돼서 그저 사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도, 한번 병들고 쓰러지니 그뿐입니다. 보잘것없죠.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살이를 볼 때에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루살이를 볼 때. 저 산천초목이, 저 산봉우리가 또는 큰 돌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강원도 금강산에 일만 이천 봉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루살이로 보겠죠? 그러니 일만 이천 봉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뜻이 있는 겁니다. 팔만 구 암자 하는 것도 뜻이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옛날에 있었던 얘기도 현실 얘기고요, 미래의 얘깃거리가 오는 것도 바로 오늘 얘깃거립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가는 현생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 이렇게 좋은 세상을 못 보고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살았는데…." 하지만 그 조상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 여러분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 그 조상들은 못살았느니 못 먹었느니 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 하려면 생활 속에서 근면하고 착실하고 진실하게, 내가 지금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 믿음, '네가 형성시킨 거니까 네가 없애려면 없애고 좀 더 살게 하려면 더 살게 하고, 마음대로 해라.' 하면 좀 어떻습니까? 어차피 한 번 갈 거라면 그렇게 믿어 보면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뜻으로 항상 이 몸뚱이 속에 사는 그 중생들이 전부 한마음이 돼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게끔 한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건강하고 좋을까요?

이 도리를 공부하는 거요, 사실 따지고 본다면 엄청난 공부입니다. 그거를 느껴 보지도 못하고 들어 보지도 못하고 맛을 모르고 그러기 때문이죠. 그러니깐 역대 조사들도 아마 속으로는 팔짝팔짝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쩝니까, 그거. 그러니까 턱 놔 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지냈겠죠. 허허허. 깡통은 깡통끼리 살기 때문에 왈가닥왈가닥하고 살 거고, 금은 금대로 살기 때문에 빛이 있을 거고. '아이고, 그대로 사는 거지 어쩌겠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계는 체로 치는 거와 같다 이랬어요. 상세계로 올라가느냐, 하세계로 떨어지느냐가 달려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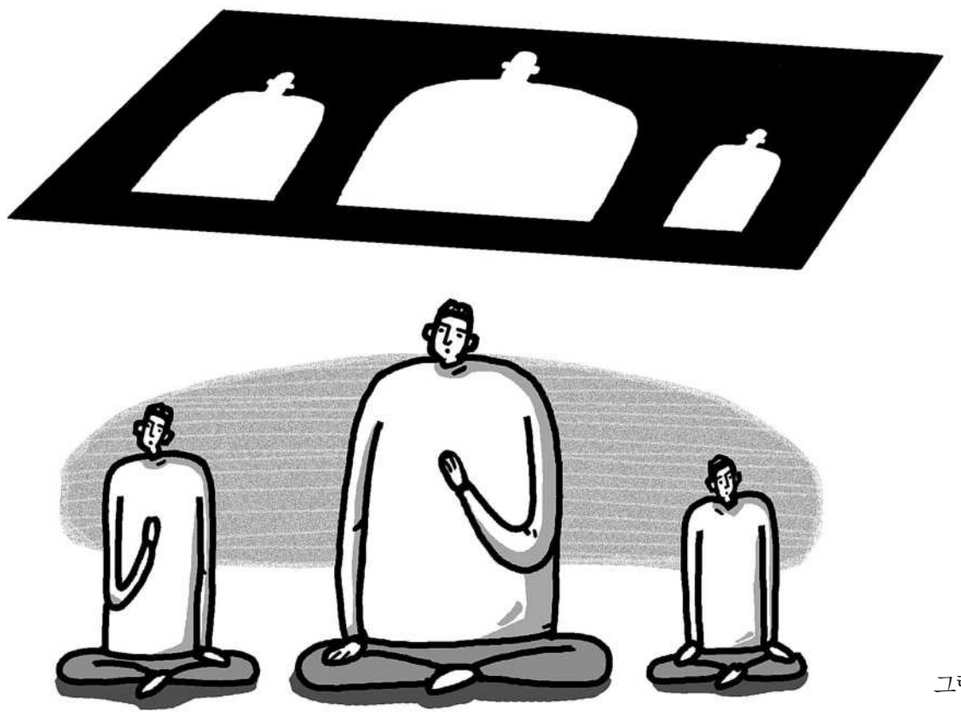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옥이 따로 없다 이런 얘기죠. 지옥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독사다.' 그러면, 독사같이 살았으면 독사의 몸을 지니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자동적인 인과가 그렇게 무섭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살던 의식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 그 독사의 모습을 가졌으니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입니다. 옛날에 무당들이 칼을 들고 뭐랬느냐 하면은, 바가지에다 죽을 담아 가지고 끼얹으면서 칼을 던지면서 하는 소리 좀 보세요. "썩 물러가거라." 하하하. "썩 물러가지 않으면 밥내 국내도 맡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러고 칼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사람한테 귀찮게 굴고 그렇게 한다면 지옥으로 떨어져서 땅속의 벌레가 되느니라 하는 소립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도 그걸 모르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깐 이 세상에 경찰서가 있고 유치장이 있고 감옥소가 있듯이 지옥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막바로 가서 그대로 짐승이나 벌레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무슨 감옥소가 따로 있고 천당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이 그냥 지옥이고, 여기에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고 이런 것이죠.

이 사람이라는 컴퓨터는 이 자체에 여러 가지가 한데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신통 하면 벌써 컴퓨터에 거기 붙어 있는 거, 사진기라든가, 또는 탐지기라든가 또 뭡니까? 저 통신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부착이 돼 있습니다. 이 망원경 하면은 천안통(天眼通) 이렇게 합니다. 천안통 타심통(他心通) 또 신족통(神足通) 천이통(天耳通), 이렇게 여기 부착이 돼 있는 거죠. 또 숙명통(宿命通) 하고 여기 이렇게 한데 부착이 돼서 돌아가니까, 이거는 뭐 사대 팔방으로 이 허공에 전부 그냥 조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깔축없이 자기가 남한테 욕을 했으면 욕한 것이 입력이 돼서 욕을 또 먹게끔 입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아니, 모든 거를 주인에게 맡기세요. 주인이 하는 거지 자기 육신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 하면 텔레비전 속에서 나오지 텔레비전 상자에서 나옵니까? 그렇죠? 텔레비전 상자가 텔레비전이 아니고, 텔레비전 오장 육부가 바로 텔레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장 육부가 한데 합쳐서 모두 부합이 돼 가지고야 나오지, 부합이 되지 않으면 선 하나만 끊어져도 안 나와요. 그러니 사람도 역시 텔레비전과 같다. 그러니 텔레비전 상자를 믿지 말고, 텔레비전 속의 그 모두를 한마음으로 믿어라. 스위치만 누르면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하는데, 그거를 다 한꺼번에 용도에 따라 볼 게 있으면 보고 보기 싫은 건 그냥 누르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거기만 믿어야지 어떻게 상자를 믿습니까? 내 육신은 그 오장 육부의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관리인이죠. 오장 육부를 보호하는 관리인. 그와 마찬가지로 오장 육부의 그 모든 의식들은 바로 한마음을, 한마음을 중시하고 들어가거든요.

표현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구가 그렇게 돌아다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허허. 아는 분 있다면 손 들어 보세요,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하하하.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신도1(남) '알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게, 모르는 게 아는 게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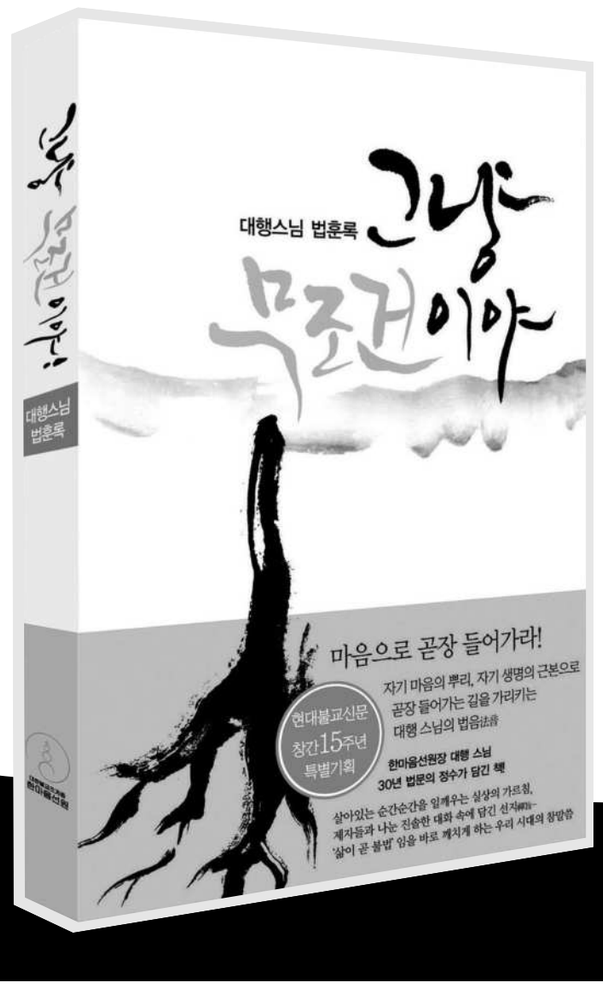
큰스님 하하하. 그러니까 이 인간 속에 든 세포 하나하나의 의식들이 이 인간이 어디로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고 알려 줌으로써, 믿음으로써 '아, 이렇게 다니는 것도 나구나!' 그러니까 자기 손가락을 자기가 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진실히 믿어서, 병이 낫고 안 낫고 그걸 떠나서, 또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믿어야 합니다. 진짜 자기를 그렇게, 수억겁을 통해 쫓고 쫓기면서 진화를 시키고 그랬던 것도, 쫓고 쫓겨 봐야 그게 마음이 발전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공부로 알라. 왕창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믿는 것만은 '허, 무너지게 또 했군!' 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웃고 쳐다본다면, 그 대치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믿지 못하면 아예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하고 버리는 거나 한가지입니다.

자기 자성신(自性神)을 진짜로 믿어야지, 어째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자성신을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이 세상에 뭐 믿을 게 있겠습니까? 대신 죽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아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효자 효부다 하더라도, 부부지간이 아무리 정이 좋다 하더라도 대신 똥 눠 주고, 대신 아파 주고, 대신 죽어 주고, 대신 잠자 주고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로 자기를 자기가 믿어서 모든 사람이 한 가정이라도 밝게 살 수 있게끔 자기가 능력을 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입니다. 질문 있으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본래 산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 29면에서 계속

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남) 스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하신 법문 중에, 아직 스님 뜻을 잘 못 알아들어서 하나 물어볼까 합니다. 오(五)라는 숫자는 나의 근본도 되지마는 우주의 근본도 됩니다. 근데 오백의 아들과 또 오백의 여우와 오백 년의 여우 몸을 받고 또 오백 년 후 다시 여기서 만나자, 오백 나한 이렇게 여러 번 오백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오백의 숫자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스님의 뜻에 가장 가깝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에서 궁금증이 나서 왔습니다.

큰스님 오백(五百)이라는 것은 공(空)했다는 소리도 됩니다. 오백이라는 소리는 이 오온(五蘊) 이 자체가 바로 비었다는 소립니다. 찰나찰나 프로펠러 돌아가듯이 돌아가는데 어떤 거를 가지고 '이것이 도다, 이것이 도가 아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백 숫자는, 그러게 백(百)이 아닙니까? 백! 오백! 하하하.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진주에 새벽같이 갔는데 그 점안식(點眼式) 할 때는 전부 밖으로 나왔습니다.

큰스님 왜요?

질문자1(남)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하는 섭섭한 생각도 들면서, 거기에 대해 굉장히 의심이 들어서 한 며칠 생각해 보니까, '아, 등신불(等身佛)을 등신불로 보지 마라.' 그리고 활공법(活空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한마음선원에 계신 부처님은 참 만년 보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점에서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왜 스님이 쫓아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 과거에 부처님 시자가 두 분이 계셨는데 우바마라라는 존자가 부처님이 임종하실 때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 해서 멀리 쫓겨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스님께서 그 의식을 하시는데 일반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마음공부에 어떤 지장이 돼서 쫓아냈는지, 그게 의심이 나서 다른 신도들에게 물어보니 "한마음선원에는 점안식(點眼式) 할 때 전부 다 쫓아내던데?" 이런 이야기만 합디다. 하하하.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큰스님 하하하. 지금도 얘기하셨다시피 가섭 존자가 모든 그 책을 편찬하는 데 "너는 자격이 없다." 하고 아난 존자를 내보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얼른 쉽게 말해서 이 부처님한테 점안식을 하는데에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를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그런데….' 하고 산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게 사불이 되죠.

질문자1(남) 폐가 섞인다 이 말이네요.

큰스님 예. 금(金)에 즉, 사금이 섞이게 되지요. 그래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모두 금하고 스님네들의 그 한마음으로서, 일편단심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저는 1년여 전부터 저희 집사람의 도움으로 한마음선원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큰스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형제회에도 가입을 해서 선배 법우 여러분과 생활의 방식도 공부하고 또 불법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하면서 먼저 배운 분들의 공부를 훔쳐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끼리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역시 스승님께 여쭈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을 모아서 제가 대표로 질문을 올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뭐 어느 책에서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같은 질문을 받으시고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기에 제 자신도 이것은 여쭤서 알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큰스님 부처님이 대답을 하셨다면 안 하는 게 있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또 틀린 말이지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신 게 하신 거지요.

질문자2(남) 부처님께서는 무정물에도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큰스님 불성(佛性)을 지금도 얘기했지만 '아, 온 게 없으면 갈 곳도 없을 것을….' 한 뜻이 바로 거기에도 해당이 되네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텔레비전 상자가 자기냐, 텔레비전 자체가 자기냐? 저 방송국에서 이렇게 통신을 줘야만이 사람 노릇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텔레비전 상자가 자기라고 하니까 이것이 망가지면 방송국이 다 망가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부서졌을 뿐이지 죽은 것도 없고 산 것도 없어요.

질문자2(남) 그렇다면 제가 언젠가는 죽어서 송장이 될 건데, 그러면 살았다는 거하고 지금 현재 살아 있는 저와 송장과는 어떤….

큰스님 본래 산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살아서 움죽거리는 이 몸뚱이가 바로 자성신이 있다는 거니까 둘이 아닌 자기 자성신(自性神)을 믿으라고 그런 거지, 그러니깐 형체가 꼭 자기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심전심이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음과 마음은 이 육체를 비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셨죠. 대답을 안 하신 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살아 있어도 이 의식만 딱 끊어지면은 그냥 송장이죠, 뭐.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산 송장, 죽은 송장 그것뿐이에요. 허허허. 산 송장, 죽은 송장!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현상계에서 보면 지구 속에 화산이 일어나는 것은 지구 속에서 나오는 작용이고, 지구 바깥에, 바다에 해일도 일고 홍수도 생기고 전쟁도 일어나는 것은, 지구의 대기권이나 인간들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이라 볼 때, 지구라는 몸체가 처음 형성될 때 인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뭉쳐졌다면, 파괴나 난리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지구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고 정화하기 위한 작용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몸체도 인연에 의한 업식으로 뭉쳐진 것이라면 우리가 화산과 홍수가 작용을 하듯이 나를 제도하고 정화를 하기 위한 주인공의 작용이라 생각하니 그대로 넉넉한 마음이 듭니다. 지구가 작용을 하였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듯이, 나한테서 나온 것을 제자리에 도로 놓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큰스님 법문 중에 "병이라고 이름 짓지 마라. 병이 병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과 뜻이 같은지요?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도 공부가 되어 가는 증명인지요?

큰스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역력하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패기도 생기고 잔잔한 물과 같이 아주 편안하기도 하면서 편안하고 잔잔한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심력은 정말 누구도 그걸 당해 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가신다면 잘 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계(戒) 정(定) 혜(慧)를 이렇게 정해 놨는데 계율도 모든 게 이 한마음 속에 들어 있고 지혜도 한마음 속에 들어 있으니 계 혜 정이죠. 계와 혜가 정 속에 들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정 속에 듦으로써 지혜가 풍부해서 해탈이 생기고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우리, 도반으로서 열심히 해 보십시다. 또 질문할 사람 없어요?

질문자3(여) 스님, 저는 질문하는 것보다 스님한테 고맙다는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마음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이종 언니로부터 『무(無)』와 『도(道)』 책을 받아 읽고 찾지는 못해도 마음을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찾자니 습을 제거해야 되겠고, 습을 제거하자니 나 자신을 버려야 되겠습디다. 그런데 그게 참 잘 안되더라고요. 이번 1월 3일 날 스님을 처음 뵈려고 했는데 안됐어요. 그런데 추석이 돼서 갑자기 손이 아파 왔습니다. 손가락이 아파 왔는데 이거를 주인공한테 한번 맡겨 보았지요, 첫 번에. 맡겨 보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들어요. 결국 골수암까지 갔습니다. 골수암까지 가서 치료를 해도 안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뼈 검사를 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때부터 제가 '아니다. 손가락을 끊어 내는 한이 있더라도 두 번 다시 병원에는 안 가고 내 주인공한테 맡기겠다.' 그러면서 한 보름을 견뎌 봤어요. 그러다가 그때 큰스님께서 KBS 홀에, 부산에 오셨습니다. 그때 부산지원에서 스님을 뵈었지요. 그때는 마음이 완전히 놓입디다. '이제는 완전히 손이 낫겠구나.' 그러고 스님 뵙는 순간에 몸에 전기가, 전류가 흐름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이 약간 곪더라고요. 그래서 고름을 내 손으로 직접 짜냈습니다. 짜내고 한 며칠 있으니까 완전히 나았어요. 그래 지금 사진 안 찍어 보고 검사 안 한다고 하지마는 저는 지금 믿습니다. 지금 아물었어요.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 믿는 마음의 능력이란 건, 여러분이 못났든 잘났든 자기 마음이라는 건 이 태산을 지고도 남음이 있고 이 우주를 뚫을 수도 있고, 탱크를 부술 수도 있는, 얼마나 허, 이런 도리인지 모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도리입니다. 그런 건데 믿지들을 못해 가지고선 그렇게 허우적허우적거리니 마치 이 허공을 허우적거리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 단단히 믿음을 가져서 세세생생에 이 중세계의 통 속에서 벗어나십시오.

아이, 또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하시라고요. 없습니까? 하하하. 여러분, 이 질문은 질문대로 해야겠지만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믿는다, 내가 이거 틀림없이 여기서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주먹을 쥐어 보이시며) 믿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딱 뒤집어 놓고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패기가 생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다리 절름발이고요, 한쪽 눈장님이고요, 한쪽 귀 귀머거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이저 광선이 그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마는 이 마음의 심력만은 못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만 50%밖엔 안 되니깐요. 이 부처님께서는 자기 아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똥 누고 밑을 씻어줘 가면서, 그렇게 높은 게 없이 그저, 하다못해 개가 염원을 해도 개로 화(化)해서 병을 고쳐 주시고 또 무명을 벗겨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떠한 개체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전체의 한 덩어리의 한 불기둥을 표현해서 부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의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저 이 '도리천' 하면은 천체 한 기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우리가 도반으로서 내가 더 높으니, 네가 더 얕으니 이런 거를 떠나서, 한 기둥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심력을 똑바로 길러서 애고라든가 병고라든가 어떠한 애고라도, 어떠한 업식이라도 다 그냥 태워 버립시다.

※위 법문은 1992년 12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틀림없이 여기서만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딱 뒤집어 놓고 바로 세울 수 있는
> 그런 용기와 패기가 생기게 하는 겁니다.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구성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